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1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2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정 천 구

내가 서울에서 자라던 대여섯 살 때 일로 기억된다. 이웃집에 내 또래에 아이가 있어 곧잘 어울려 놀았다. 그 부모는 외지에서 이사와서 이집 저집 허드렛일을 해주면서 연명해 가는 집 아이였다. 나는 어른들이 그 집을 무시하고 하찮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잘 놀다가도 덩달아 그 아이를 놀리거나 때리기까지 했다.

어느날 논두렁에서 놀다가 그 애를 공연히 때려서 코피를 나게 해서 그애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은 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애 부모도 우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중학교부터 서울로 유학을 왔고 마침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남의 업수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도 알았다. 그로부터 어릴 때 이웃집 친구를 멸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도 참회하는 마음이다.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아버님께서 숙환으로 고생하시다 끝내 돌아가셨다.

알량한 공부한답시고 아버님을 돌봐드리지 못한 일, 불효한 일들은 참회하고 또 참회해도 모자랄 것이다.

"나 중심으로 살지않았나…"

그즈음 나는 거룩한 스승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다.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터이지만 마음으로 발심을 한 것은 그 때부터였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후 10년쯤 지나 선생님께서 열반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언가 배우려는 욕심만 강하게 낸 것 같고 스승님을 마음으로부터 모시지 못하고 죄만 지었다. 이것을 진정으로 참회한다.

"주는 마음으로 살라, 미안한 일을 적게하라,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대하라"라는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께 참회할 일 뿐이다. "백겁으로 지은 죄도 한 생각으로 불복 소멸된다"는 말씀에 한가닥 희망을 갖지만 나의 경우는 금생에 지은 죄만도 땅 두께보다 두꺼운 것 같다.

〈영산국제산업대 총장〉

"사찰환경 적극보호" 3당 후보 한 목소리

현대불교 '대선후보 불교계공약' 설문

관련기사 21면

사찰주변의 환경 보호와 편향적 종교정책 배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불교계를 향해 내놓는 공통적인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또 후보들은 폐사지 복원, 불교문화의 보호 육성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고취, 문화정책의 고양등을 내세우며 '불심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질문한 대불교계 공약사항에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대불교계 공약사항을 △편향적 종교정책 배제 △사찰주변 환경 보호 △국립공원 입장료 점차 폐지 △문화재에 대한 국민 교육 강화 △세계적인 불교성지 조성등 5개로 정리했다. 국민회의도 △특정종교 편향행위 근절 △사찰환경 보존 △불교문화 보존 육성등 3개 부문에 대한 10가지의 공약사항을 밝히고 있다. 국민신당은 △농지법 개정 △문화재 보호 △사찰환경 보호 △통일후의 북한 문화재 보존대책 강구 △문화유산 보존대책 강구 △학교교육에서 우리문화재의 중요성 강조등을 중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본지의 설문에서 현정부가 92년 대선때 내 놓은 공약 사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 김대중 후보는 "공정한 종교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인제 후보도 "대통령의 개인적 종교신앙이 종교정책에 편파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문화예산이 0.62%에 불과한 현실에 대해 후보들은 "집권하면 1%선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대불교계 공약을 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현존유일 고려천수관음상 공개

고려시대 것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이 공개됐다.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박물관 수장고에서 케이블TV Q채널이 확인한 천수관음상은 높이 90㎝ 폭 90㎝ 무게 약60㎏. 청동에 금을 입혔으며 13~14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이 그림과 조각으로 조성됐다는 기록은 있으나 조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물관측 기록에 따르면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프랑스 민속학자 사를 바라가 1888년 경북 성주 동광사에서 가져간 것이다.〈관련기사 24면〉

송광사 방장에 보성스님

부방장에 현호스님



◇보성스님



◇현호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제5대 방장에 원로의원 법일 보성대종사(梵日 普成, 송광사 율주)가 추대됐다.

송광사 임회는 14일 정축년 동안거를 맞아 열린 임회에서 만장일치로 보성스님을 방장에, 현호스님(법련사 주지)을 부방장에 추대했다. 이로써 송광사는 방장 일각스님 열반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방장을 추대했으며 처음으로 부방장제를 도입했다.

보성스님은 내년 3월 조계종 종회에서 추대인준되며, 4월 보조스님 기일에 맞춘 '3월불사'에서 추대의식을 갖게된다.

자연공원법 개정

17일 국회통과…문화재관리지원 법제화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일부를 공원내 사찰 문화재의 기여도에 따라 관리 보수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자연공원법 제33조 '부담금의 귀속 등'을 규정하는 조항 3항에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

자연공원법의 개정은 10월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와 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합의사항 제2항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공명선거촉구 성명

종단협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10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에서 개최됐던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결산했다.

종단협은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과 공동명의로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성명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공명선거 정치 경제 문화 환경등 전분야의 자정과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는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는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하나의 한국불교 초전지 제주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천사, 제주 유형문화재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外

■ 참가 안내

◇출 발: 12월 13일(토) 오후1시 · 김포공항
◇장 소: 법화사지 · 관음사 · 약천사 · 불탑사 · 목석원 · 한림공원 · 산방산 · 수목원 · 용두암 등
◇회 비: 135,000원
◇안 내: 강창화(제주대 강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엠투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한국불교현대사」
출판기념법회
● 일시 : 1997. 11. 27 오후 6시
● 장소 : 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문의 : (02)723-5264
동국대학교석림동문회 회장 혜 총

수행한담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12·13면
찬불가 부르며 자비 실천 23면
새연재 '깨달음 가는 올바른 순서' 14면

'97 문화유산의 해
"문화유산은 과거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입니다.
전통의 멋
본 작품에는 옛 선조의 혼불와 氣가 스며있으며
외적으로는 전통의 멋과 생활공간의
우아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며
내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자손의 번영을
지켜드립니다.
POINT
본 업은 문화유산의 해기 작품이기는 지금 저희 총무공사에서는 해외바인으로 한정된 작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황금거북선 ₩500,000 → ₩250,000
■ 에밀레 종 ₩800,000 → ₩400,000
■ 금관총 금관 ₩500,000 → ₩250,000
■ 황금 거북선
독립기념관 제1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그 규정을 토대로 고증위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낄 수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 재 질 : 동, 순금도금(99.9%) ● 규 격 : 317×175×235m/m
■ 에밀레 鍾(國寶 第29號)
삼인정신의 전통기법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조화시킨 명품으로서 타종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소리는 우리민족의 숨결을 담고 있으며, 그 여운 또한 아름다우며 신비스럽습니다.
● 재질 : 청동 ● 규격 : 410×235×445m/m
● 기술자문 : 서울대학교 기술생산연구소
● 문양자문 :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전 국립중앙 박물관장
● 작 기 한 공식 작품내역
▶ 1985년, 보신각 새종 ▶ 1986년, 수원시민의 종 ▶ 1988년, 천주시민의 종 ▶ 1993년, 엑스포 '93 대종 ▶1993년, 창원시민의 종
■ 금관총 금관(國寶 第87號)
우리나라의 금관중 가장 대표적인 금관으로서, 내외관의 화려함은 그시대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기시켜 주며 정교함과 섬세함 또한 세계 어느나라 금관 못지않게 우수하여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 질 : 동, 순금도금(99.9%), 마분목 ● 규 격 : 200×200×460m/m
100여개의 부속품을 깎고 또 다듬어 섬세한 구조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 한정된 작품 한점 한점에 소장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사 설

종교편견 없었나

지난 4일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 PD수첩은 석용산의 재산과 여자문제를 다룬 특집을 방영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공문을 통해 그 편파성과 부당성을 시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MBC는 이에 대해 사과는 유보한 채, 방영의 고충과 정당성을 변호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PD수첩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그늘에 가린 인권의 사각지대를 들추어내고, 부당한 권력과 기득권의 횡포를 고발하는 드문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자본의 논리와 언론의 보수성에 저항하면서 수백회의 전통을 축적한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정론에 적지 아니 이바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PD수첩이 과감히 불교계 주변의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다. PD수첩측은 석용산을 다루면서 남다른 고뇌를 거쳤고 파장을 우려해 주저 끝에 방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이 나가자 예상대로 불교계신문과 방송사에는 신도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불자들 모두가 얼굴에 화로불이 끼얹어지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다.

불자들은 이 기획이 300회특집으로 마련된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MBC는 93년 석굴암의 통일대종을, 그리고 이어 소쩍새마을의 일력의 행각을 발굴하여 고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어 석용산의 비리를 추적보도한 것은 불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제4 제5의 불교관련고발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법이다. 불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편의 종교이다. 드리운 그늘이 크다 보니 이런 저런 불미한 일들이 불교의 이름 아래 음습하게 자라기도 한다. 문제는 그러나 그 존재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일찌감치 석용산의 행적을 감찰하고 그의 승적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 애시당초 사미계만 받았을 뿐 정식승려가 아니었으니 박탈하고 말것도 없이 자동제적된 상태였다는 것이 옳겠다. 그렇다면 MBC는 석용산을 불교도로서가 아니라 불교를 도용 참칭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단순과렴치범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에서는 승적도 없는 사람을 시종일관 스님으로 호칭하여 오해를 야기시켰고, 여인의 신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교계신문기자로 자막처리하여 불교계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전체적 구성을 보면 불교계와 종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감정적으로 불교를 다루고 있다는 혐의를 갖게 한다. 보도의 선정적 효과를 노려서인지 마치 조계종단이 석용산을 비호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서둘러 파문시킨 것처럼 애매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증대시켰다.

이 불공정과 선정성은 혹 MBC의 의도 속에 종교적 편견은 없는가를 묻게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타종교의 유사한 비리들을 제쳐두고 유독 불교계 주변의 그것만 캐내고 고발하는데 주력한다면 사회고발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이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숨겨진 일각의 비리를 폭로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책무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과 초월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믿음, 바로 인간의 종교적 열망을 다치지 않고 지켜가는 일이다.

포교사 전문화 모색

조계종 2300명 배출 청소년·복지·문화등 특화

조계종 포교사의 전문화가 모색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2천3백여명에 이르는 포교사들을 포교인력으로 적극 활용키 위한 방안으로 전문화를 검토키로 하고 우선 서울·경기지역 포교사 7백여명을 대상으로 활동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포교원은 이 간담회를 바탕으로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포교사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포교사증에 분야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교원은 9월 포교사단 사무국장을 임명, 포교사 관련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 포교사 활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간담회 이후 포교사 전문화를 의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 관장은 "고급 불교자원을 활용키 위해서는 지금처럼 포괄적인 개념의 포교사가 아니라 전문화 세분화해 구체적인 활동영역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전문포교사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이 배출한 포교사는 2천3백여명에 이르며, 포교사들의 활동 중심이 되는 포교지단은 경남과 대전·충남 등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포교사 활동분야 및 간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대상(유아 어린이 대학생 청년 포함) 12월5일 △일반인대상(직장법회 사찰) 6일 △특수(군·경찰서 교도소 소년원) 9일 △사회복지 11일 △기타(방송연예) 12일. 활동분야는 장소 임대관계로 5개로 제한했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정성운 기자〉

"종단비하 의도 없었다"
MBC, 조계종에 회신

조계종 총무원이 MBC에 PD수첩과 관련 사과방송을 요구한 공문에 대해 MBC측은 "11월4일 PD수첩에 방송된 '석용산은 뭘 갖고 저승 가지'는 종단을 폄하하거나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MBC는 총무원에 보낸 회신에서 "현재 PD수첩은 석용산 건을 제외하고 귀 종단과 관련된 다른 내용은 취재하거나 방송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귀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비행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비방' 기독교TV
유선방송위서 '경고'

기독교TV의 빈번한 불교비방이 문제시되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3일 '제101차 심의위원회의'를 갖고 문제가 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기독교TV 프로그램의 불교비방은 방송에서 타종교 비방을 금지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규정' 제40조를 위반한 행위여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TV측도 이와 관련 자체심의 과정을 강화해 타종교 비방내용은 삭제후 방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JTS, 北어린이 영양식 지원

나진·선봉에 공장설립

북한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역 어린이 1만여명에게 구호물자가 무상지원된다. 미국 JTS(이사장 법륜스님) 상임이사 최경숙씨는 14일 '나진-선봉지역 방문 활동보고회'를 갖고 "나진-선봉시행정경제위원회 공업관리국과 어린이 구호활동과 관련, 9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영양식 공급과 이를 위한 공장설립 등 구호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송석구총장은 18일 키르키즈공화국 초청 방문에서 동국대와 키르키즈공화국간 불교문화 및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 JTS는 나진-선봉지역에 있는 탁아소 50곳 유치원 54곳 어린이 1만5백50여명에게 매월 3천만원 상당의 영양식품과 구호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북한측은 미국 JTS의 구호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 '물고기 가공공장' 부지 2백평과 건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JTS는 약 1억5천만원을 투자, 영양식품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북어린이돕기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 불국사 주지)은 18일 수덕사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의 지속전개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설 것등을 결의했다.

10여명의 본사주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본사주지들은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될 때까지 서명운동 전개 △정부의 민족정기 함양과 전통문화 중흥을 위한 정책제시 촉구 △북한 어린이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 등을 결의했다.

"대북식량지원 필요"
민족돕기·시사저널
대선후보간담회서

이회창(한나라당) 김대중(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 세 대통령 후보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동포애에 바탕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과 〈시사저널〉은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통령 후보 초청-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세 대통령 후보는 "북한 동포에 대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동국대-키르키즈대 교류협정

경제발전도 협조

동국대가 키르키즈공화국 및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와 불교문화 및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8일 녹원스님(이사장)이 키르키즈공화국 아카예프 대통령 초청으로 키르키즈공화국을 방문, 키르키즈공화국 정부 관계자와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 베르블라예프 총장과 교수, 스님, 학생교류 및 학술, 교육정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국대는 또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단계에 있으며, 불교 및 학술교류 외에 양국 교육기관 및 경제발전에도 대해서도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녹원스님은 키르키즈공화국 방문기간중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여로 키르키즈국립민족종합대학교 베르블라예프 총장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송석구 총장은 평생교수로 초빙됐다.

조계종포교원 연내 군법당 지도방문

군포교현황 점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은 연내로 군법당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포교원 차원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도방문은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법사들을 격려하며 군법당 시설 및 군포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교원은 "1차 1백5개의 군법당중 군단급 법당과 시설이 낙후된 전방 법당 6곳 정도를 선정해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BBS 타종교인이 방송 '물의'

'뉴스와이드' 진행·해설 개신교도가 맡아

불교청주방송의 외부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가 타종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불교방송의 로컬제작프로인 '뉴스와이드96.7'(월~토, 오후7:25~8:00)의 진행자 홍신희씨(前 서원대 총장)와 이 프로그램에서 매일 10분씩 시사해설을 하고 있는 김춘길씨(중부매일 논설실장)가 개신교도로 알려져 지역불자들의 비판 여론이 일고있다. 홍신희씨는 청주중앙예장교회 신도로 부인이 권사이고, 김춘길씨는 청주 상당교회신도로 알려졌다. 최근 PC통신에 '청주 불교방송의 의문점'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홍씨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교방송을 진행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뉴스프로그램인데 기독교인이 불교방송을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를 답하라"는 맞불이 뜨는등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불교방송이 개국 초기 타종교인으로 알려진 당시 교수 H씨를 진행자로 출연시켜 불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여론에 진행자를 교체했던 일도 있어 이번 불교청주방송 문제는 불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위영란·감지연 기자

태고종 동방불교대 설립인가

99년 단설대 개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곡) 동방불교대가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 용인에 불교학과 40명 정원의 단설대학 신설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99년 개교예정인 동방불교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동방불교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설립을 인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태고종은 지난 7월 선암사 종단간부 연찬회에서 동방불교대를 선암사내에 건립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건립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동방대 총동문회는 12월 6일 오후 5시 타워호텔에서 학교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제1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오랜만에 뜻이 통했네

訃告

八空山桐華寺 副住持이신 慶曇堂 泰日 大和尙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1년 11月 18日(陰 10月 19日) 午前 7時 通天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41年 11月 21日(陰 10月 22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八空山 桐華寺 道場
■ 茶毘場 : 八空山 桐華寺 茶毘場

大韓佛教曹溪宗 第九教區本寺 桐華寺 住持 無空 合掌

慶曇堂 泰日 大和尙 桐華寺葬 葬儀委員會

증 명 : 고송 화산 범룡 진제
장의위원장 : 무공
부위원장 : 원명
위 원 : 도봉 영봉 동일 지성 성우 성덕 원학 장일 성타 명성 종운 보현 혜정 법민 혜선 혜담 성천 정륜 태공 지정 지우 보인 도명 금강 청수 묘적 정관 한우 회룡 정각 대윤 법해 역공 선주 효상 금봉 홍관 정안 무량 문성 정현 원현 성종 선오 학연 대유 정업 성준 명심 성육 법전 보명 지성 승암 청호 지환 지산 현수 일경 청학 학명 초세 동호 성연 선진 현철 정윤 대덕화 자성화
호 상 : 성타
지도위원장 : 선봉
부위원장 : 종운
지도위원 : 혜운 수암 운성 정오 경희 현선 혜선 종열 자명 성범 재문 혜명 인각 희조 법상 수성 동진 정광 부용 경암 정각 정민 월현 서래 병수 연진 상용 무문 여명 효성 명권 용안 진묘 자호 법륜 법륜 영조 법인 금강 인성 원종 재원 명권 자명 성묵 덕해 지형 정우 정문
집행위원장 : 성호
도 감 : 정효 의 전 : 지도
지 객 : 각정 재 무 : 오정
섭 외 : 선종 홍 보 : 김성수 사 제 : 부용
경 호 : 법현 병 법 : 돈오 원 주 : 운정
문도대표 : 일타
문중대표 : 선지
상 좌 : 선지 정명

"사찰재산권 보호 폭 넓어져"

자연공원법 개정 의의와 과제

17일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일부를 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법제화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 관리 보수비 지급은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문화재 관리보수비는 국립공원내 사찰과 공원 관리사무소 간의 임의 협의에 의해 입장료 수입의 10%에서 30%까지가 지원돼 왔었다. 그나마 30%를 지급받는 해인사와 법주사를 제외한 13개 사찰은 일률적으로 10%씩을 지급 받아 왔으며 쌍계사 내소사 대전사 도갑사 희방사등 5개 사찰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었다. 불교계는 13개 사찰이 지급받고 있는 10%도 기여도에는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일률적 지급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부담금의 귀속등'을 규정하는 자연공원법 제33조에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급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달여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즉 개정된 법에 따른 문화재 관리 보수비는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안에 명시된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향후 주요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재기여도 사찰-공단 이견 좁혀야
정부지원 불가피…입장료폐지 '변수'

이와관련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요구하는대로 법개정이 실현됐지만 기여도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크게 바뀔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측도 "큰 변동이 없는 입장료 수입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선이 다시 조정될 경우 정부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기여도 조정에 따른 지원의 규모 변동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근거로 지원금의 범위를 전면재조정 해야할 것이며 이에따른 실무협의에서 문화재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종단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측은 법개정이 이뤄진 것과는 별개로 기존의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계종은 개정된 법에 따른 전면 재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조계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자등 전문가를 통한 사찰문화재의 재평가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여도의 재조정 기준을 문화재의 수량이나 가치(국보 보물등 지정현황)에만 두기 보다는 문화재를 포함하는 공원내 사찰의 정신적 역할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교계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입장료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폐지와는 의미가 상충되는 것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입장료의 폐지는 정부가 약속한 부분인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법은 그때까지의 경과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정각회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발의함으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올 3월과 7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표류했었다. 그러나 10월 14일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계종과 정부가 합의한 3개항중 제2항에서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 한다"고 합의한데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선학원 관계 '악화일로'

대책반구성 재산환수등 강경책 총무원
"정관개정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선학원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무원은 8일 정기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일도양단 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힌데 이어 13일 '선학원대책반'을 구성 법적대응등 종단 방침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선학원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온양에서 열린 이사회 및 전국 분원장회의에서 전국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에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선학원 분원장들 대다수의 의견이 '정관개정 불가'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종단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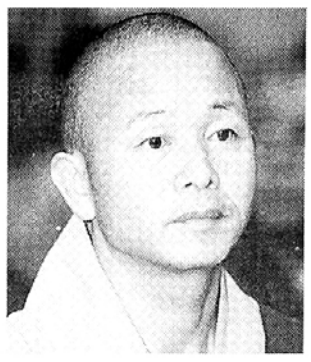
총무원 대책반(반장 혜창스님·총무부장)은 종헌 제9조3항과 4항과 제118회 중앙종회가 결의한 '선학원 임원 중징계 방침'에 따른 실무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학원 법인 설립시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출연한 종단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선학원 소속 분원장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조계종 소속스님들에 대한 종단입장의 홍보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같은 조계종측의 움직임은 "더 이상 미온적으로 선학원 문제를 덮어둘 수 없다"는 종단의 입장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밤에 열린 선학원 이사회는 "종단과의 마찰없이 화합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종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전국 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진로문제를 정하기로 하고 21일 분원장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불참한 분원장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설문을 하기로 했다.

21일 배포된 설문의 내용은 ▲조계종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 할 것인가 ▲종단의 징계방침과 관련 임원스님들과 행보를 함께 할 것인가를 묻는 2개항 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한 1백50여명의 분원장 스님들은 설문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자율적으로 포교하고 가람을 수호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임원진만 징계당할 수는 없으니 모든 분원장들이 함께 징계당하자" "재산보호와 도제교육의 두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문제의 해결은 없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자"는 등의 의견이 강도높게 제시됐다.

선학원 재단측은 이번 설문이 분원장들의 보다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분원장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불가'의 입장이 한층 견고히 확인되는 분위기였고 보면 다음달로 예정된 선학원 이사회의 관단여부에 따라 '조계종 선학원 문제'는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전망이다.

조계종의 대책반 활동 여부와 선학원 분원장 설문에 따른 이사회의 진로문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교계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



수요 인터뷰

창립 33년 '한국불교현대사' 출간
석림동문회장 혜 총 스님

"불교현대사 정리는 미래준비"

8백여 동문 전법 열심
"책발간은 수행 부산물"

석림동문회(회장 혜총)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큰 일을 해냈다. 광복이후 한국불교의 종단, 포교, 교육, 문화 등 전분야의 50년史를 총정리한 자료집 〈한국불교현대사〉를 출간한 것. 회장 혜총스님을 만나 출간의의와 계획을 들었다.

-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석림동문회는 그간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33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동문들이 8백여명이나 됐습니다. 선방수행, 종단업무, 역경, 해외포교, 후배양성, 가람수호 등 전 분야에 흩어져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승가의 친목모임이라고 보면 쉽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수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행에서 오는 부산물로 친목 도모도 하고 출간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 출간하신 〈한국불교현대사〉는 최초로 한국불교의 최근세를 총망라했다는데 교계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또 누구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2년전부터 자료수집, 자료연구, 분류, 정리까지 동문스님들과 교계언론인들, 각 해당분야 전문인들이 함께 한 결실입니다.

물론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방대함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의 출간은 불교사적, 종단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한국불교 현대사를 정리한 책이 없던차에 하나의 교과서적인 위치를 점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거듭할 것입니다.

- 석림동문회의 추후 활동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석림동문회 회원 각자가 수행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보다 내실있는 모임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동문회 차원에서 벗어나 종단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올 7월에 출간된 동문회원 50명의 글을 모은 〈출가사문의 인연이 되어〉라는 禪에세이집이나 이번 〈한국불교현대사〉출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 석림동문회 회장으로서 개인적 포부가 있으시다면.

▲석림동문회가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야나 타단체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책임을 다하는 승가단체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목어

TV를 보려면

부처님께서 장로 난타와 향파는 가게에 가셨을때 난타에게 이르셨다.

"저 향이든 주머니를 한 시각만 잡고 있다가 도로 놓아라." 난타는 분부대로 했다. "이제 네 손을 맡아 보아라." "세존이시여 손의 향기가 끝없이 미묘하옵니다." "그럴 것이다. 사람이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따르게 되면 그 덕에 감화되어 바른 도가 융성해지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길을 가시다가 생선가게에 이르셨다. "난타야 이 가게에 들어가 싹은 생선위에 펴놓은 갈대풀 한움큼을 잠시 쥐고 있다가 놓아라."

난타가 시키는 대로 하자 다시 말씀하셨다. "손을 맡아 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느냐?" "오직 부정한 비린내가 날뿐입니다."

"그럴 것이다.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이 생선을 덮은 풀 모양으로 잠간 사이에 악업이 물들어 깨닫지 못하게 되느니라."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 보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물들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시간을 TV와 함께 보낸다. 뉴스도 보고 교양프로그램도 보겠지만 TV에 중독되면 청소년들의 말장난, 불륜·폭력이 넘실대는 드라마와 외화,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에 묻혀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은 곧 인생낭비일뿐 아니라 갈대풀이 비린내에 물드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부설 유아원은 TV안보기운동을 전개했다. 3~9일까지는 TV를 전혀 안보고, 10~16일에는 TV시청시간을 축소조정토록했다.

"퇴근후 자정이 넘도록 TV를 시청해왔는데 아이덕분에 TV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놀이, 독서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이 길어지고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TV안보기운동'에 동참하여 시청시간을 줄인 한 학부모의 체험담이다.

TV를 아예 안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하고 서로 살펴주고 이해하는 시간, 삶의 질을 높여줄 독서시간을 TV에 뺏겨서야 되겠는가. 좋은프로만 골라보는 원칙을 세우자. 불자들은 이왕이면 불교TV(btn)와 불교방송과 가까이 지내자. 향 주머니를 가까이하여 몸에서 향내 나듯 생활이 향기로워 질 것이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中央僧伽大學校 '9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이래 7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91년 3월 각종 학교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 받았고, '96년 12월 안암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서, '97년 11월 2개학과 증설인가, 군법사 선발대학 인가 등 제반구비 및 학풍이 정착되어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 "나"군〉 신입학 시험

모집학과 및 정원 ※정원외 모집은 입학정원의 2%, 학과정원의 10% 이내에서 가능함.

계열구분	학 과	일 반 전 형 (60%)	특 별 전 형		비 고
			정원내(대교과출신)	정원외(재외국민등)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주간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4개학과	72명	48명(40%)	2명	총계122명

※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제2지망을 할 수 있으며, 출신고교와 본교 지원학과 간의 동일계(비동일계)에 대한 가(감)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경학과> 역경학과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한문 등 불교경전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역경사로서의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학과로 신설.

<포교사회학과> 포교사회학과는 종단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및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학과로 신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만으로 우선 선발함.
※「수능시험」준비를 하며 「경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승가교육 바탕위에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
※ 재외국민, 외국인 승려 특별전형은 별도요강에 의해 시행 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타종단 승려도 추천으로 응시, 총정원의 5% 내외로 입학 할 수 있음.
· 전형방법 : 하기 전형방법으로 입학정원 60% 범위 내외 선발 함.

고교내신성적	교리 및 상식고사	면접고사	합 계
40%	40%	20%	100%
400점	400점	200점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7. 12. 8.(월)~98. 1. 6.(금) 17:00 (단, 토요일은 제외)
■ 접수기간 : 97. 12. 29.(월)~97. 12. 31.(수) 14:00 / 98. 1. 5.(월)~1.6.(화) 17:00 (교육부 지정기간)
※ 전화로 우편교부 신청하거나 접수기간내 우송접수 가능함.

■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내신성적표 (입학원서 중간 기록란)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입학원서 뒷면 기록란)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2)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98년 졸업 예정자는 제외)
3)석차 연명부 사본1부 (이상은 출신고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함)
4)승적 증명서 1부 (총무원 발급:최초 수계일 기록)
5)최종 수계증 사본 1부
6)특별전형 지원자 :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증명서 1부
7)건강 진단서 1부(대학입시 또는 입사용 - 보건소등 발급)
8)은사스님 추천서 1부 (은사, 사숙 등)
9)호적등본 1부
10)주민등록 등본 1부
11)칼라사진 (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4매 (원서부착 3매외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정시모집 "나"군 ※예비소집시 원서교부증과 승려증 필참
· 예비소집(특별·일반전형)-'98. 1. 16.(금) 90:00 - 09:40 (음 12월 18일)
· 불교교리 및 상식고사(일반전형)- 〃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특별·일반전형)- 〃 12:30 - 17:00

2·3학년 편입생 모집요강

1)모집내용 : 제2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각 ○○명
제3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각○명
2)지원자격
· 제2학년 :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2년이상 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전문대 졸업자, 방송대·산업대(개방대) 1학년 이상 수료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가능)
· 제3학년(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의 승납 3년 이상 승려
3)전형방법과 일정은 신입학 요강과 유사함.
※ 지원 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 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 (02)925-5507~9(내 202~205) FAX : (02)928-4302

"내년 100세…회향은 수행자 본분"

생활불교회에 구복암 기증 월 해스님



"출가사문은 포교와 참선 수행에만 진력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회향하는 것은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백수(百壽)를 앞둔 월해스님(99)은 구복암을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에 기증한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스님은 그동안 출가도량인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하며 이생을 마감할 것을 발원해왔다.

1958년 금강산 지맥인 속초시 노학동 달마봉 기슭에 구복암을 창건, 두문불출하며 40여년동안 통일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스님은 백수가 가까워지면서 유점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 구복암을 '금강산 월해사'로 개칭해 대한생활불교회에 기증키로 결심했다. 여기에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모든 것을 회향하고 싶다는 스님의 마지막 서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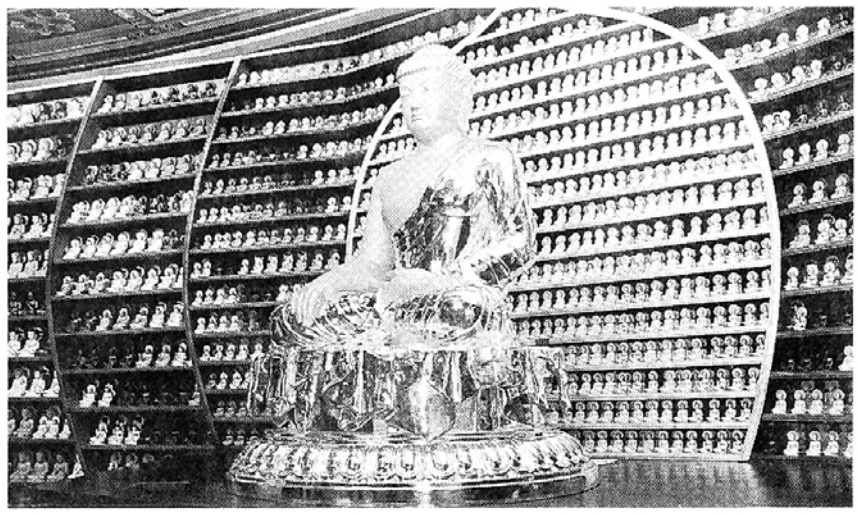
40여년간 통일염원…절약정신 강조

평소 콩나물 반쪽이라도 나눠먹으라며 절약을 강조하시는 스님은 "백수를 앞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남은 시간 동안 부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다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용맹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황해도 서흥에서 출생, 1911년 금강사 유점사 차복동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유점사, 안변 석왕사, 정평 한우사, 중국 소림사, 고성 건봉사, 계룡산 대자암, 해인사 용탑선원 등 제방 선방에서 '이뭣꼬'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정진했다.

속초=김중근 기자

동국대에 나투신 2천1백86 부처님



Focus

동국대에 아름다운(?) 부처님이 나투셨다. 그것도 2천1백86분이나.

21일 90주년기념문화관 상층에 문을 연 '깨달음의 법당' 대각전엔 주불인 석가모니부처님이 웅장한 자태로 자리잡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 뒤 상단부 13칸, 하단부 14칸으로 돼 있는 불감실엔 네가지 크기의 원불(석가모니불)이 금·백·녹·청동 4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6가지 수인을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주불 바로 뒤엔 광배모양의 틀안에 금동색 원불들이 자리잡고 있어 멀리서보면 흡사 광배가 빛을 내며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1만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국대는 곧 부처님세상이 될 듯하다.

각각의 원불중 가장 작은 소불은 주불 복장물로 봉안됐으며, 나머지 3가지 크기의 원불에는 각 봉안자의 발원문과 봉안자가 체출한 반야심경 사경지를 복장했다. 또 동국대학교의 각종 현황기록과 기념물들을 복장해 개교 200주년이 되는 2106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이회창후보가 교계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종단대표자 이회창후보 간담회

종교편향근절등 불교 5대 공약 발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한국불교종단 대표자 초청 간담회가 17일 63빌딩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후보는 '종교편향근절 정책수립' 등 5건의 대불교계 공약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김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등 교계 종단 대표자 26명이 참가했다. 신한국당측에서는 권익현 김명윤 고문, 김태호 사무총장, 곽정출 당무위원 등 12명의 불자의원이 배석했다.

신정일 후보 옛도반과의 만남 행사



통일한국당 신정일 총재의 대통령후보 축하 옛도반 모임이 18일 정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철우스님, 미국 자비사 주지 도철스님, 前 화계사주지 정수스님 등 신총재와 인연 있는 스님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신총재는 "나라를 위해 발심했으니 이제 뜻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며 옛도반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신총재는 대학시절 대구 용연사에서 불교에 귀의해 출가수행자를 길을 걸었었다.



"한국불교 자정필요"

이청씨 주장

태고종 개혁 승가단체인 보현도량(회장 무위)이 24일 종로 원각사에서 창립7주년을 기념해 연 발표회에서 작가 이청씨가 '불교자정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청씨는 이날 "불교의 매력과 강점은 '자력종'이란 원리에 있으나 오늘의 한국불교는 종교적 정체성을 잃고 오로지 권력 외호단체의 구실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권단체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청씨는 "광복이후 한국불교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목표는 중심을 잃었고, 방향도 일정치 않은 결과 실제로는 '절뺏기'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씨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정운동은 이제부터 일어나야 하며 그 이념적 근원은 불조의 근본정신으로 회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숙〉

교 차 로

연꽃 어린이집 개원



세영 신륵사 주지는 20일 여주 시내에 설립된 신륵사 부설 연꽃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연꽃 어린이집은 2백여평 대지에 건평 83평 규모이며 원아는 1백명을 모집한다.

자비의 전화 창립 4돌 법회



김무찰 일붕선교종 총무원장스님은 15일 인천교육연합회에서 인천 '자비의 전화'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원사 지장보살상 봉안

현장 보성 대원사 주지는 14일 황금범종타종 및 지장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또 98년 2월11일까지 태아영가천도 및 단청불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실시하며 동참자에게는 〈태아령 천도공양법〉 책자와 사경·사불용 반야심경과 지장보살체본 등을 보시한다. (0694)52-1755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



자용 수국사 주지는 19일 황금보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요식을 봉행했다.

btn '장아함경' 강의

홍선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은 24일부터 불교TV '재미있는 경전공부' 시간에 〈장아함경〉 강의를 시작했다.

기장군 사암련회장 취임



원각 연봉사 주지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남미륵사 범종타종 법회



법홍 강진 남미륵사 주지는 16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타종 대법회를 봉행했다.

장상문거사 5주기 추모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불교방송 초대사장과 진흥원 초대이사장을 역임한 장상문거사 제5주기 추모법회를 2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개최했다.

영역시집 출판 및 낭송회

고은 시인은 두번째 영역시집 〈자아를 넘어서(Beyond Self)〉 출판기념회를 21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졌다. 이어 12월6일까지 미국의 버클리대 미시간대와 멕시코 한국문학제 등에서 랭커스터 교수 오세영시인 등과 함께 시낭송회를 열고 귀국한다.



국제불광회 훙콩대회 참석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은 29일~12월1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국제 불광회 제6차 세계회원대표대회'에 참석한다.

제1회 이화문학상 수상

신동춘 한양대 명예교수는 21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논문심사차 일시 귀국



박광서 우리는선우 공동대표(美 브라운대 교환교수)는 서강대 박사논문 심사차 25일 일시 귀국해 12월10일 출국한다.

제주 한라불교 사장 취임

김창식 제주케이블TV 총국장은 13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한라불교신문 제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2억 출연 백석문학상 제정

김영한 길상사 창건주는 2억원을 출연해 백석문학상을 제정했다. 창작과 비평사가 주관하는 이 상은 올해부터 98년 출간되는 시집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 상금 1천만원을 줄 예정이다.

태일스님 입적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동화사 부주지 태일스님이 18일 오전 7시 대구 통천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57세 법랍 43세. 스님은 대구사암주지련 등에서 활동하면서 지역불교화합에 크게 역할했다. 영결다비식은 21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葬으로 엄수됐다.

"청소년 상담·선도활동 전념"

속초종합복지관 장학후원회장 최세영씨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세대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12월 12일 속초 아남프라자 대연회장에서 중·고등학생 각 10명에게 총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될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장학후원회장 최세영씨(45·신흥사 거사림회장). 최씨는 "장학후원회는 장학금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장학회가 삼위일체 되어 상담·학교주변 지도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10월 27일 속초지역 불교계 최초로 결성된 장학후원회는 매년



2회에 걸쳐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고·대학생을 발굴, 장학금을 전달 할 계획이다. 〈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님프만 3,000,000원 △동아대 불교학생회 425,000원 △문병진 1,110,000원 △윤용숙 1,000,000원 △범능스님 500,000원 △박 석 330,000원 △박병호 200,000원 △김석용 150,000원 △문정호 150,000원 △구언련 120,700원 △정원교 100,000원 △최인순 100,000원 △이춘규 100,000원 △김기호 100,000원 △고불장 50,000원 △남배현 33,000원 △정자심 30,000원 △박영순 30,000원 △이장욱 3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740,700원 〈19일 현재 총 868,235,99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
전하는 마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립니다.

모든이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모십니다.

일 시 : 1997년 12월 3일 (수) 오후 7시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주 최 : 부산불교합창단 협의회
후 원 : 부산불교교육대학 ·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내원정사 · 범어사 금강암, 현대불교신문, BBS 불교부산방송
특별후원 : 한미보청기, 대일학원, 무량도예, 세종헬스
문 의 처 : 051)818-8659

정/서/영
찬불가 독창회



● 쇼프라노 / 정서영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부산 불교 교육대학 5기 포교사 졸업 · 내원정사,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 · 부산불교 교육대학 합창지휘

● 피아노 / 김 진 (내원정사반주사)
· 부산여대 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빈 국립음대 마스터클래스 디플롬

탐방 서초반야회



◇법조인 불자모임인 서초반야회는 매월 셋째 수요일 대성사에서 불심도문스님의 지도로 경전강독 및 참선정진 법회를 열고 있다.

"부처님법 의지 '파사현정' 실천"

판검사등 70여명 활동 참선통해 '곧은마음'

부처님의 정법을 사회법의 판단과 적용을 통해 소리없이 회향하고 있는 법조인법회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판사 40명, 검사 3명, 법원직원 15명, 변호사 18명, 민사조정위원 3명 등 총 79명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서초반야회(회장 권광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초반야회는 참선과 경전강독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다져 생활속에서 자비평등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실천하는 신행모임이다.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6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의 우면산 대성사(주지 보현스님)에서 정기법회를 본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사찰에서 저녁공양을 하면서 법담을 나눈 후 대성사 조실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의 법문과 경전 강독, 참선 지도를 받으며 산사의 정적에 마음을 비운다.

회원들이 요즘 강독하고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이세간품'은 이 모임의 성격을 잘 대변해 준다. 즉 '이세간(離世間)'에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중생이 세간에 있되 속세에 물들지 않는 게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에 씌지 않는 것'(如蓮華不着水)과 같다는 뜻이 있다. 어떤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부동심(不動心)과 자비·평등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물론 궁극의 목표인 성불의 인연을 쌓는 모임인 것이다.

서초반야회는 지난 95년2월 손수일판사가 도문스님과 인연이 되어 법조인법회 창립을 준비해 김진태검사와 박홍우 박기동 김동윤판사가 도문스님을 친견, 4월에 첫 법회를 가졌다. 하지만 실제 연원은 훨씬 오래다. 서울대 법과대학 불교모임인 법불회가 법회성립의 시초이기 때문.

창립이래 연 2회 경주 천룡사, 수원 용주사, 남양주시 봉선사 등지에서 순례 및 수련·수계법회 등도 펼쳐온 서초반야회는 96년 4월 사법연수원 김희옥 이인재교수의 지도하에 서암 前 조계종 종정스님을 증명으로 다르마 법우회를 창립시키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PC 불교동호회 깊어가는 신심

사이버법당 초월 사찰 정진법회 잇달아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 불교동호회(이하 불동)의 신행공간이 사이버법당에서 사찰로 옮겨지고 있다. 매 분기별 전국모임과 격·월별 소모임 활동으로 신행을 쌓아 온 PC통신 불동 회원들은 사찰법회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 '3천배 참회' '1080배 정진'

하이텔 '1만배' 천리안 '철야사경' 눈길 4대통신 '불동회원' 연합법회 추진도

'철야 사경정진' 등 주제별 법회를 주관하면서 '머리에서 온 몸으로' 불교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지난 8, 9일 '3천~1만배 참회법회'로 눈길을 끈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김주서)는 29~30일 공주 영평사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정광스님의 법문과 참선, 조석예불 및 108참회, 동학사 갑사 성곡사 마곡사 순례로 한해의 찌든 심신을 정화할 계획. 이에앞서 하불동은 22~23일 1박2일간 서울 법련사에서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샵 김희정)와 공동으로 '1080배 정진법회'도 가졌다.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샵 박수호)도 29~30일 무박2일로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국모임을 갖는다. 첫날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저녁예불 및 토론회를 가진후 '부처님 그리기와 사경정진'을 철야로 진행한다. 다음날 새벽예불 후에는 대구 갓바위와 동화사, 군위 제2석굴암 등을 참배하고 발심의 기회를 갖는다.

나우누리부처님마을(대표시샵 권상목)은 23일 오후 연화사에서 서울경기모임을 갖고 각 통신 불동의 연합법회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교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와관련 천불동 박수호시샵은 "이제 각 통신 불동의 신행이 궤도에 올라선 만큼 앞으로는 사찰 연합법회 등을 통해 네티즌 불자들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비정신으로 대민봉사 앞장

경기도청 불자회 창립…회장에 조한유씨



◇조한유회장

경기도 도청 소속 불자공무원들의 신행모임인 경기도청불자회가 18일 창립됐다.

오후 6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법회에서 同회 고문으로 추대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가고,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청불자회는 법회에 이어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국제협력실 조한유(49)실장을 선출한 것을 비롯 5명의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칙을 통과시켰다.

이어 조한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관내 1백여개의 사찰을 두루 순례하는등 산사 체험을 강화해 내실있는 신행모임을 꾸리겠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민서비스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1백30여명의 불자회 회원들은 앞으로 매주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한달에 한번 사찰순례를 통해 불심을 다지는 한편 자비정신에 바탕을 둔 대민봉사에 적극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同회는 고문에 정각 묘엄스님을 비롯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총회의원 정대, 봉선사주지 밀운스님과 지도법사에 용화사 주지 성주, 봉녕사 도감 진상, 용주사 총무 신경,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 등을 위촉해 수행을 점검받기로 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봉녕승가대학 학장 묘엄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철장사 주지 도광스님과 경기도의회 홍성호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여해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다.



전통등연구회 현판식

조계종 봉축기획단 전통등연구회(회장 백창호)가 20일 11시 강남 봉은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무상(봉은사 주지), 성관(조계종 호법부장), 지현(조계종 총무국장)스님을 비롯 전통등연구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등연구회는 내년 5월까지 전통등놀이문화 시연지로 알려진 봉은사에서 △전통등 재현 △놀이문화 재연 △장엄등 제작 등 봉축행사를 준비한다.



대한법화종 해수종정 추대식

대한법화종 해수스님 제5대 종정 추대식이 20일 캐피탈호텔 신라룸에서 열렸다. 해수스님은 추대법어에서 "모든 종도가 화합해 더욱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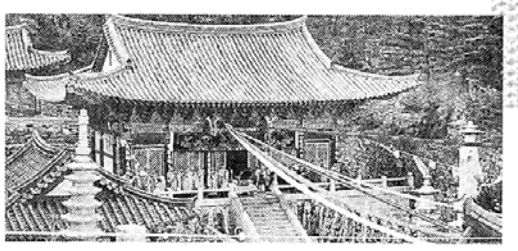
취임식에는 대호(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대산(삼론종 종정)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김광태(한국법화종 총무원장) 무찰(일붕선교종) 지성(천태종 총무부장) 권익현(한나라당 고문) 최정길(대한법화종 전국신도회장) 등 8백여명이 참석했다.



도선사 청담대종사 26주기 추모재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는 15일 오전 11시 호국참회원에서 '청담 대종사 열반 26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산 속에 은거하는 소극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속에서 부처님의 정견(正見)을 펴기를 서원한 행동하는 수행자였다"고 스님을 추모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문수사 혜정스님, 정각회장 서석재 의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월해사 개산 및 백고좌법회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19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소재 월해사에서 강원교구본사 '개산 및 백고좌법회'를 봉행했다. 법일 월해사 주지, 재곤 선운사 주지스님을 비롯 동문성 속초시장, 최종호 월해사 신도회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수 생활불교회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월해사를 모든 불자의 기도처로, 수행도량의 국제선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MBC불교연구회 창립법회

부산MBC불교연구회(회장 주흥식)는 1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행사에서 성오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법의 탐구를 위한 이 창립이 올바른 언론창달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교불련 불국사 동계수련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류종민)는 28~30일 2박3일간 경주 불국사로 동계 수련회를 떠난다. 28일 '불교문화재와 환경' 주제 추계학술세미나, 29일 예불·참선 및 문화유적 순례, 30일 석굴암 해맞이 등의 일정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 (02)720-6618

sbs 불자회 통도사 순례

서울방송불자회(회장 최인국 제작영상부국장)는 22~23일 1박2일간 양산 통도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12월에도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등 설악산 주변 명찰을 순례할 계획.

청정회 창립4돌 법회

청정회(회장 강희병)는 12월 4일 부산 청정회 본원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지회 회원 1백50명은 지도법사 강정진법사를 모시고 한 해 신행을 점검하면서 한 단계 높은 정진을 다짐할 계획. (02)878-1843

울산경불련 진제스님 초청

울산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류관희)은 12월 4일 오후7시 정토사 대웅전에서 창립2돌 기념 진제스님(동화사·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초청대법회를 거행한다. 진제스님은 경허-혜월-운봉-향곡선사로 이어지는 임제정맥(臨濟正脈)을 계승한 우리 시대의 선지식. (0522)72-1033

동의대 홍선스님 초청강연

동의대교수불자회(회장 송무효 토목공학과교수)는 19일 오후3시 자연대학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BBS통신원 양로원 위문

BBS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전경남) 회원 40명은 21일 오전 10시 관음대비양로원을 방문, 난방용 연료를 전달했다. (02)705-5151

하나로선정회 9차 포럼

하나로포럼선정회(상임공동대표 고준환)와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소장 최용기)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즈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민족통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대통령후보 초청강연회 및 제9차 포럼을 열었다.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이인제 국민신당 대통령후보의 강연에 이어 하상식 창원대교수, 이상만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소장, 손기웅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인순 효성가톨릭대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구경북지회 결성 동산반야회



조계종 동산반야회(이사장 김재일) 대구경북지회 결성법회가 16일 대구 거사림정법회관에서 봉행됐다. 대구경북지회는 올봄 결성된 제주지회에 이은 2번째 지회. 초대 지회장에는 곽정진 거사가 선임됐다.

보광사부설 보/광/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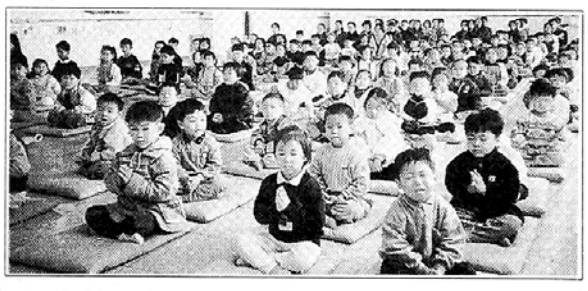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과 유아교육전공 교사가 유아발달의 특징과
유아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 유아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을 하고자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점 교육 프로그램 ●

- 근본적인 교육은 '나의 생각과 행동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연결시키는 관찰(명상)력을 길러 자신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업)을 없애야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 보광 유치원에서는 자기관찰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명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심리학자인 융은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정신적 문제를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정신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스님의 지도아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과 부모님이 자신의 '깊은 습'을 인식하고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 입 원 아 모 집 ●
취 원 연 령 : 1992년 3월 1일~1995년 2월 출생
입원 신청일 : 12월 1일





함께하는 프로그램
■ 가족 명상시간 (매주 토요일)
■ 가족 수련회 (여름, 겨울 방학)
■ 어린이 법회 (매주 토요일)
■ 부모 모임 ■ 아버지 모임

시설소개
1. 연 건 평 : 991평
2. 건 평 : 484평
3. 운 동 장 : 773평
4. 부대시설 : 강당, 실내놀이장, 주방, 수영장 동물사육장, 식물재배장, 모래놀이장, 복합놀이시설,

◈ 차량운행지역 및 시간 ◈
● 유치원 ↔ 만 덕(25분)
● 유치원 ↔ 구 포(20분)
● 유치원 ↔ 신모라(25분)
● 유치원 ↔ 괴 정(30분)
● 유치원 ↔ 엄 궁(20분)
● 유치원 ↔ 하 단(25분)
● 유치원 ↔ 김 해(30분)

보광사 부설 보광유치원 주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845-1 TEL: 051)973-2242, 2243 FAX: 051)973-2242

법회안내

대구 관음사 (053)475-3706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주지 우학스님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유치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다라니기도 매월2·4주 토 오전10시
3천배기도 매월1·3주 토 오전10시
시민선방 매주 목 오후7시30분
※12월1일 동지기도 입제

선혜정사 (0636)52-3508
정기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주지 성원스님
신도회 거사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

법림사 (032)832-8881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경전강의(반야심경, 금강경) 매주 목요일 오전10시30분

원통사 (02)954-9944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경전공부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불교를 바로 봅시다
대구교육원 초급신행강좌

불교대구교육원은 12월2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초급 신행반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 입문자들을 위한 이번 강좌는 △사원예법 △불전 예불의식 △불교와 여성 △불교문화의 이해 △한국불교사 △기도성취와 신념 △사경의식 등을 원명(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시명(삼성암주지), 철우(파계사 율원장), 일진(운문사 승가대학 강사)스님 등이 강의한다.

이번 강의는 초발심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에 의지해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53)253-7063

황금불상등 명소찾아
BBS 泰 몽콜사서 법회

청우스님(등명낙가사 주지)과 함께 떠나는 불교의 나라, 태국으로의 여행. 불교방송은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간 태국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가야국 허황후의 고향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태국의 전 수도 아유타야를 찾아가 왓 야이차이 몽콜사에서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 왓 야이차이 몽콜사는 초대 아유타야왕인 유통이 1352년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3대 등신불을 봉안한 사찰.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상 등의 불교 유적지와 방콕의 명물 수상시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02)705-5303

겨울 달구는 새싹불심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관)는 12월6~7일 1박2일간 경주조선호텔에서 제24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겨울불교학교 활성화와 어린이 포교확대를 위해 계획한 이번 연수회는 △변화하는 불교교육 특강 △사찰 속의 어린이 환경활동 연구 발표 △겨울을 이기는 심성놀이 △겨울로 엮은 찬불가 부르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51)808-4569

옛조상의 숨결 느끼자
문빈정사 유적 답사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일)는 산과 바다와 들판이 행복하게 어울려 있는 곳을 찾아 청소년 유적답사를 떠난다.

가을의 끝자락인 30일 내소사, 개암사, 수성당을 둘러보며 부안지역의 질경과 그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삶을 체험한다. 또 스님들이 전해주는 사찰의 유래와 전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바쁘게 스쳐보왔던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만져보고 이야기하며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출발 9시 광주 동신고등학교 정문앞. 회비 1만원. (062)222-2202.

청소년 알면 미래보여
맑고향기 광주모임 교육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본부장 박원재)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기'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함은 이 땅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는 곧 우리의 미래를 가꿔나가는 또다른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 △정신분석 △행동주의 △동양적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1회 3시간, 총 12주에 걸쳐 실시된다. (062)653-0048

자비의 김장담그기
불교복지관 봉사자 모집

불우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자비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복지시설 단체에서 꼬리를 잇고 있다.

월동준비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와 김장김치 후원을 통해 보살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대구 백천복지관 ((053)811-1347)은 12월20일까지 △대구불교복지회((053)427-1907)은 12월6일까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에 김장을 지원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051)893-5304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속초종합사회복지관 (0392)31-876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85-016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등에서도 12월8일까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손길을 기다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겨울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해 12월6~7일 제24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96년 1월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제20차 연수교육 모습.

나의 수행일기


이 병 춘 〈직지사 신도회장·(주)한능 회장〉

나는 독실한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다.

불교와 일찍 인연을 맺은 덕에 심리적 이유기라는 청소년기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만해도 내 스스로 간절하게 불법에 닿아 있지는 않았었다. 조상대대로 부모님에게까지 이어져온 신심이 그저 정성과 기복 정도로 생각됐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나이를 먹어 가며 인생을 겪으면서 의식·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믿음으로 깊어진 것이다. 나는 집에서 〈반야심경〉과 기도를 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탓에 하루일과를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해왔다. 그 공덕인지 나는 내가 바라던 공무원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처님께 첫 가피를 받았다.

불심 돈독한 아내와 결혼하고부터는 본격적인 신행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사실상 사실하면서 사람들이 본래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참선도량의 마련을 추진해왔다.

공직에 있으면서 불교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에 속해 일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 그런 속에서도 객관성과 상식,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불교계를 생각하고 불자들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미력하지만 인연짓는 불사마다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또 백년지대계인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내 호인 '만정(晩庭)'을 따 10년전부터 만정장학회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1979년 김천 중앙고에 7천여평의 부지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제1회 김천시민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모두가 불법의 진리를 믿고 실천해온 결과였다.

8년전 정들었던 공직을 청산하고 견직물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설립했다. 사장으로서 사원들을 대할 때 항상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신행패턴도 달라졌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참회였다. 가족 친지 사원 선·후배 친구 등을 마음에 꽂고 늘 그것을 거울삼아 나를 뉘우친다. 참회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절감하며 살고 있다.

고희를 넘기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드리고 있다.

"과실로 죄악을 범할지라도 능히 뉘우치면 선(善)이 되어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나니, 참회가 있는 사람은 선법(善法)이 있다"고 설한 〈유교경〉의 말을 명심하며 참회의 수행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더욱 더 불법에 의지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로 회향하려다.

'반야심경 봉독' 하루 시작
'참회' 공덕 실감 … 장학회 설립등 보시 생활화



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생활하면서도 틈만 나면 전국의 명찰을 찾아나섰다. 스님들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것이 우리네 외의 유일한 낙이었다. 이렇게 나름의 구법행각(?)을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8년전 직지사 회주이신 오녹원스님을 친견하게 된 인연이다. 나로서는 부처님께 입은 두 번째 가피다.

이날의 인연으로 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신도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나는 회장으로서 또 불자로서 김천시 개운사 포교당 증축불사와 직지사 만덕전 불사 등 8년 동안 크고 작은 불사에 많이 참여 하였다. 나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자아성찰과 깊은 자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수행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나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일등 인생이 되려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삶이 무엇인지 인식 못하는 병든 문명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직에 충

게 시 판

♣ 인사

△btn 상조회=△회장 강정기(사업부 부국장) △감사 전병철(관리부) △총무 김원곤(기술부 차장) △회계 허정연(관리부)

△조계사 신도회=△신도회장 김미형 △관음회장 김연재 △대승불자회장 송광수 △반야회장 옥세광 △보음합창단장 김우용 △청년회장 이종찬 △선재어머니회장 손순화

♣ 알림

△법사자격고시=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는 12월7일 대한불교법사회 법사도량에서 법사자격고시를 실시한다. 대상은 불교대학, 강원 2년이상 졸업(수료)자, 졸업예정자. 시험과목은 필기고사, 설법실기, 의식실기, 면접. 원서마감은 29일까지. (02)266-1827

△기부금영수증 서비스=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02)928-0750

△대공원 카서비스 센터=이달희(前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정법회 회장)씨는 18일 대구시 수성구 대공원 주유소내 카서비스 센터를 개업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난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순간온수기와 리프트 시설을 갖춘 이동 목욕 차량을 운행한다. (0562)48-6165

♣ 강좌

△주부 요리교실=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연스님)은 조리사자격증반과 가정요리반을 개설한다. 개강일은 12월1일. (051)264-9033

△수화·점자 기초강좌=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점자·수화교실을 개강한다. 개강일은 12월8일. 회비는 3만원(교재비 포함). (02)720-4528

♣ 모집

△월동연료비 후원자=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할 월동연료비 후원자를 찾고 있다. 1구좌 1만원이상. (0551)31-8017

△자원봉사자=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거동불편한 노인분들의 수발 및 말벗상대 자원봉사를 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성인한글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성인 읽기 및 쓰기등 글을 배우기 원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월 10일까지 접수마감이며 65세 이상은 무료다. (02)985-0161

△직원채용=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경리직 여사원을 모집한다. 고졸이상 PC 사용 가능한 불자. (02)734-8050

△컴퓨터작업 봉사자=능인선원(원장 지광) 기도본부는 기도입재 법우관리를 위한 컴퓨터 작업에 동참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02)577-5800

♣ 행사

△법류스님 초청법회=(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2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법류스님(조계종 포교사)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세미나=대한불교조계종사설사암연합회(회장 박종후)는 2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설사암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6-4344

△97 교사의 밤=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12월13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한해를 정리 결산하는 '97 교사의 밤' 행사를 연다.

북·한·동·포·돕·기

'97 광주불교합창예술제

사생의 자부하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무명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사바 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서원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30일 (일) 오후 5시
◈ 장 소 : 광주남도예술회관
◈ 주 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주 관 :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화엄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
◈ 후 원 : 불교광주방송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북지사

■ 특별출연 ■
· 정율스님(이리 원광대 음악학과 재학중)
·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 김용철(국악인) : 한량무
· 박초향(국악인) : 장타령

문의 전화 062)376-3224(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5-9986(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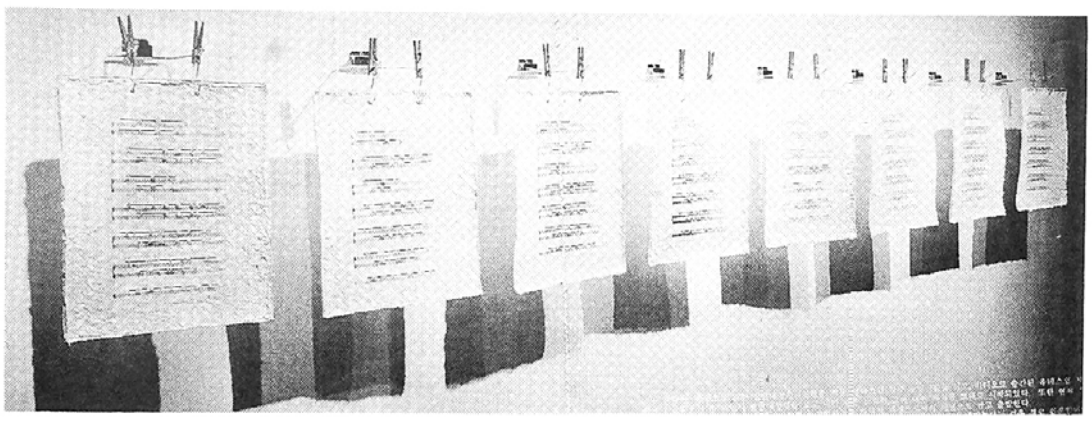


본 행사에 도움을 주신 단체및 사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날마다 새롭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광주불교대학·대학원 : (062)375-7603, 7633
⊙ 광주불교문화대학 : (062)228-9098
⊙ 향림사 신용협동조합·우산사회종합복지관 : (062)375-7606
⊙ 향림유치원·어린이집 : (062)375-7605
⊙ 선덕사유치원 : (062)264-8024, 263-4660
⊙ 1급 경동공업사, 경동카센타 : (062)674-2111
⊙ (주)동산회관 : (062)226-4900
⊙ 광주불교능인회 : 능인회새마을금고 능인회 장 의 부 (062)226-5161~4
⊙ 한울회관 : (062)369-8363
⊙ 원후헤어모드 : (062)672-3996
⊙ 우신건축사무소 : (062)525-3130, 521-1845
⊙ (주)성경엘리베이터 : (062)528-0462~3
⊙ (주)제일화재해상보험(감로대리점) : (062)528-6740~1
⊙ 금호공사 : (062)223-8081~3
⊙ 천지개발 : (062)525-0404

1997. 11.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상 명 합장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설치미술 윤영석作 '팔만대장경 읽기'.

"문화유산도 재창조 소재"

우리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

성곡미술관서 12월28일까지

작가 20명이 재창조한 석굴암 대장경 종묘… 보는 이에겐 사고의 확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생명감을 투여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성곡미술관(관장 박문순)이 개관 2주년을 맞아 12월28일까지 여는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등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거나 창덕궁, 수원화성 등 지정예정인 우리 문화유산을 20명의 작가가 6개월간 회화(9), 사진(5), 조각·설치(6)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이룬 결실이다.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단순한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조형적, 형식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각적 해석의 시도가 두드러진다.

강운구씨는 '촬영금지' 팻말과 석굴암 본존을 각기 다른 초점으로 대비시킨 사진엽서를 통해 역사의 질곡을 관통해온 본존불의 의미를 현대인에게 묻고 있다. 임영선씨는 석굴암 본존불과 십대제자를 설치, 생로병사의 의미와 자비의 세계를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설정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김동욱씨는 전통적인 채색과 오방색을 사용, 화엄 불국세계를 조형화했고, 김영헌씨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를 설치미술로 표현했다.

전광영씨는 대장경 제작과정에 담긴 고려인들의 혼과 정성을 치열한 중이 수공업 작업으로 재현했다. 윤영석씨는 팔만대장경을 악보로 치환시켜 시공을 초월한 음의 세계와 불심을 연결한 설치작품을, 황규태씨는 윤회와 영겁회귀를 우주와 자연의 이미지에 결합시킨 사진작품을 각각 선보인다. 최진욱씨는 한 아이가 팔만대장경이 들어있는 수다라장을 지나는 그림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구도자를 떠올리게 한다.

윤기석 기자

문화 소식

'문화재 논저 색인' 발간

국립중앙도서관 1만2천 항목 정리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정기영)이 문화재 관련 자료를 담은 〈학술논저총합색인(문화재편)〉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1945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문화재분야 저작물을 수록한 색인집으로 일반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 1만2천여 항목을 담고 있다. 항목은 △문화재 일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보존관리 등으로 나눠 서명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저자명 색인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관련 색인집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자료집은 우리문화재 연구 및 보급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효作 「휴식공간 · 봄볕」

한국화가 4인4색전

28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상

중견한국화가 4명이 인사동 갤러리 상(02-730-0030)에서 28일까지 한국화 군집개인전을 갖는다. 초대작가는 임효(42) 이정신(52) 김춘옥(51) 이성현(37)씨. 임효씨는 '휴식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닥종이 위에 직접 부조작업을 한 독특한 수묵화를 선보이고 이정신씨는 '낙산사 가는길' 등 4계절에 걸친 실경산수 작품을 선보인다.

불심시심 〈108〉

유불은 하나의 흐름

株笻麾주再登樓 (주공휘주재등루) 지팡이 멈추고 불자 날리며 다시 오른 누대
前後園林正晩秋 (전후원림정만추) 앞 뒤 동산 숲들은 바로 늦가을
雁自北翔黃葉盡 (안자북상황엽진) 기러기 북에서 날자 단풍도 지고
風從西起碧雲收 (풍종서기벽운수) 바람은 서쪽에서 일어 파란 구름 걷히다
主翁獨坐多閒寂 (주옹독좌다한적) 주인 홀로 앉아 한적함 많더니
隣老時來共翫遊 (인로시래공완유) 이웃 노인 때로 찾아와 함께 노닐죠
一座淸談消永夕 (일좌청담소영석) 함께한 자리 청담으로 긴 밤을 새우니
方知儒釋是同流 (방지유석시동류) 이제 알겠다, 유가 불가 한가지 흐름임을.

위 시도 대원대사의 시이다. '현수노서생에게 바친(奉呈現首老生)' 시다. 유가의 늙은 서생과 마주하고 지은 시이다. 가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의기는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의 우정이 배어난다.

첫 구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불자인 주미(주尾)를 날린다 하였다. 재미있는 대칭이라 하겠다. 지팡이가 속세 노인의 호신구라면 불자는 스님의 위엄의 상징이니 은연 중에 속세를 떠나 선계에 든다는 암시적 수사라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어쨌든 지팡이를 멈추고 불자를 날리며 오른 누대이다. 누대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의 숲은 가을 단풍 일색이 되었다. 여기서 바로(正)라는 표현의 암시가 묘하다. 다음의 함께(共)와 한가지(同)로 맞물려 유석동류(儒釋同流)라는 결론을 자연스러이 유도하려는 복선이었다면, 작자의 치밀한 시적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하게 한다.

다음의 기러기가 북에서 온 다든가, 바람이 일어 구름이 걷힌다는 것은 가을의 서경이기는 하지만, 다정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이 시의 작자적 처지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손님의 오심을 비유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겠다. 기러기의 날음이 바로 손님의 오심이요, 바람 일어 구름 걷힘이 바로 손님의 기상이라 한다면 이 시의 탁의성이 오히려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듯 무료한 나의 거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준 것이다. 주인 늙은이(主翁)와 이웃 노인(隣老)의 만남이다. 이 이질적 대칭의 구조를 함께(共)라는 한 글자로 묶어 놓았다. 그러기에 다음 구의 한 자리(一座)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라는 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여기에 스님이다 선비다의 거리가 있겠는가. 진리의 세계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경주박물관회등 '문화재 전문가양성 강좌' 열기

전통문화 사랑 '내손으로'

일반교양수준을 넘어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은 시민운동단체의 문화재지킴이로서의 구실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련 단체의 전문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실시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강좌는 '경주박물관대학', '영남대박물관대학', '한국보호재단 문화재수리기술강좌',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지도자과정', '전남대 문화재전문가 양성과정' 등.

경주박물관회(0561-772-5173)는 '경주박물관대학'에 연구과정을 마련, 문화강좌를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심층적인 연구답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남대박물관대학(053-810-3622)'도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02-266-6938)의 '문화재 수리기술강좌'는 문화재 보수와 단청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 86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전통문화강좌'와는 달리 문화재보수라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남대박물관대학을 7년동안 수강한 것을 계기로 '대구문화재지키기 시민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계숙씨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애호정신과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박물관대학의 연륜이 쌓인다면 박물관회 등을 구성, 시민문화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호남문화재연구소(062-512-6711)는 내년부터 '문화재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 초·중등교사와 문화재관련 공무원, 문화답사와 역사기행의 인솔자, 성보를 직접 소장관리하고 있는 스님 등 문화재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의도 실무적인 내용을 보완, 문화재관리보호법령과 운용 불교·무형문화재 공예 고고유적조사 및 보존과학 등 이론교육과 견학·실습답사(탁본) 등 현장학습으로 이뤄진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02-260-3607)은 95년 '문화예술지도자과정'을 개설, 문화예술관련 공무원과 예술인, 스님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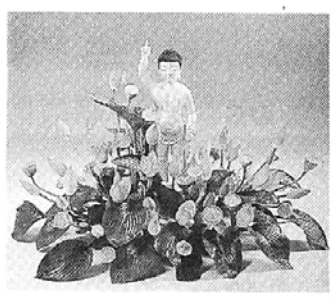
"여래의 공덕 꽃으로 찬탄"

연화 꽃꽂이聯 작품집 '시방에 꽃비 내리리'

연화꽃꽂이연합회(이사장 보명스님)는 불교꽃꽂이작품집 〈시방에 꽃비 내리리〉를 발간하고 18일 서울 신사동 리베라호텔에서 출판기념회 및 이를 기념한 생활한복 부케쇼를 열었다.

20년에 걸쳐 예술적인 불전공화(佛前供花)를 연구해 온 보명스님이 그동안의 결실을 모아 엮은 〈시방에 꽃비 내리리〉는 △불전공화의 의의 △불교꽃꽂이의 역사 △전통불전공화 △부처님오신날 화혼예식 49재 등 각 불교의식때의 꽃꽂이의 다양한 모습 등을 소개한 작품집.

특히 불전공화의 이론적 정립을 위해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등 각 시대별 불화 또는 조각에서 볼수 있는 불교꽃예술의 특성을 간추렸고 각 의식때의 꽃꽂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출가절 열반절 우란분재 등 경축일때의 꽃꽂이와 화혼예식 49재 영산재 천도재 예수재 및 일반재일, 그리고 생활꽃꽂이로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 등의 꽃꽂이도 올 칼라로 선보이고 있다.



◇보명스님作 '부처님오신날'

보명스님은 "예로부터 불교와 꽃은 아주 밀접했다"며 "이 작품집이 더욱 발전된 불전공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계 최초로 열린 전통 개량한복, 드레스와 함께 어우러진 부케쇼에는 연꽃 108송이로 만든 부케 등 총 50여종의 꽃부케가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숙〉

"조선초 궁궐서도 불상조성"

최성은교수 '태조~성종시대 조각…' 발표

숭유억불정책을 충실히 실천했던 조선 초에도 궁궐안에 장인을 모아두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 왕실위주의 불사가 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강좌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최성은교수(덕성여대 사학)는 '태조~성종시대 조각의 대외교섭'이란 주제발표에서 "조선시대에 우수한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며 "명나라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명 조각양식을 수용, 전통적인 고려양식과의 혼합을 통해 조선초기의 조각양식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교수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 태조~성종의 치세기인 1백여년동안 불상조성기사는 눈에 띄게 많다. 또 조선초기의 불상양식은 명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수종사탑에서 발견된 금동불좌상이 고려의 전통양식을 계승, 단정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보인다면, 원각사10층석탑의 조각은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가슴이 훤히 보이도록 둥글게 퍼진 착의법이 명나라 양식과 유사하다.

특히 기림사 건칠불좌상은 △운반하기 쉬운 소형불 △천의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쇼윌양식 △명문이 불상제작시기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지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지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지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지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지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쌍계사 승가대학인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1997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과) …… 00 명
사집과(편입생) …… 00 명
사교과(편입생) …… 00 명
■ 입학자격 : 사미계 수계자, 사미과, 사집과 수료자(편입생),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 1 부
② 은사스님 추천서 …… 1 부
③ 승적사본 …… 1 부
④ 주민등록등본 …… 1 부
⑤ 사진(3cm X 4cm) …… 3 매
⑥사미과 수료증(편입생) …… 1 부
■ 준 비 물 :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접수후 면접
■ 모집기간 : 1997년 11월 17일 ~ 12월 16일
■ 문 의 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83-1901

불기 2541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교구본사 쌍 계 사 승 가 대 학

학 장 선 곡 · 강 주 통 광(칠불사 주지)

"경주에 내 뼈를 묻으리라"

윤경렬옹 자서전 '마지막 신라인…'

평생 풍속인형 만들고
신라문화 알리기에
열정 바친 향토사학자
우리것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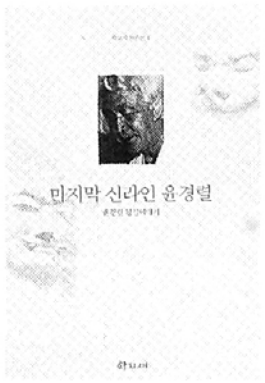
"마을 여리고 하는 일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윤경렬이 먼먼 길 돌아 천년의 부르심을 따라 예까지 왔습니다. 저의 재주로 되는 일이 아니오니 부디 보살피시어 누가 됨이 없게 하소서!" 70년대 중반 환갑을 앞둔 윤경렬 옹은 남산에 올라 새삼 옷깃을 여미고 신라의 부처님들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이 기도덕분이었을까, 이후 2년 반만에 윤옹은 일본인 직원이 1926년 〈남산의 불적〉을 펴낸 후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제대로 조사된바 없었던 남산에 대한 종합보고서 〈경주남산 고적순례〉를 펴내고야 말았다.

20세기 초두에 태어나 근 한세기를 살아온 우리문화의 산증인. 경주 남산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영원한 신라인'으로서 묻혀진 신라문화를 알리고 우리 풍속인형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향토사학자 고청 윤경렬옹(81)의 평생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학고재 刊)은 저물어 가는 문화유산의 해를 더욱 뜻깊게 한다.

이 책은 제1부 '청바위 언덕'에서 1916년 함경북도 주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전통문화와 그림을 좋아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제2부 '인형수업'에서는 일본 히카타의 나카노코 인형연구소에서 보낸 1년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에서 돌아와 우리풍속을 찾아다니며 우리다운 풍속인형만들기에 애쓰던 시절 이야기는 제3부 '우리의 풍속을 찾아서'에, 우리민족문화를 찾아서 활동했던 천년 고도 경주시절의 이야기는 제4장 '천년의 만남'에서 소개된다.



◇안압지에서 아이들에게 안압지와 임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경렬옹.



제5장 '흰머리 신라인'에는 경주 남산 고적 순례와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된 지인(知人)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문화와 민족에 대한 윤옹의 지론이 담겨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우쳐 준 마음의 스승 고유섭선생. 일본인들이 우스꽝스럽게만 묘사하던 우리 민속인형의 제모습을 찾고자 인형제작에 뛰어든 그에게 "최승희만한 무용가는 세계에 많지만, 조선춤을 추는 사람은 최승희 밖에 없다"며 전통연구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나비박사 석주명. 미에도 국적이 있음을 알려준 화가 오지호. 54년 경주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설립해 어린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을 지금까지도 함께 이어오고 있는 진흥섭박사. 윤옹은 이들의 가르침이 자신을 민족문화의 최대보고인 경주로, 영원한 신라인으로 이끈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윤옹은 49년 풍속 인형연구소 고청사(古靑舍)를 설립해 우리의 얼굴과 풍속을 기초로 인형과 기념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기도 하다. 경주의 성산(聖山)이자 신라의 불상이 산재한 남산을 그가 지금까지 6백여차례 오르내린 것도 한국인의 얼굴을 찾아 인형으로 형상화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전통문화를 일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살아온 윤경렬 옹의 삶은 역사책의 행간에 서린 보이지 않는 작은 역사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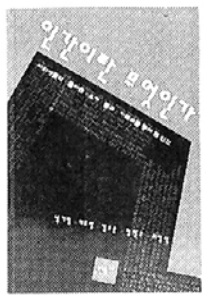
"이제 먹고 살기도 그만해졌는데 총칼을 코앞에서 휘두르지 않을 뿐 서양문화가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거리에는 외국어로 된 간판이 지천이고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문화는 옷차림에서부터 듣는 음악, 쓰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서양것 일색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무언가 정부의 생각이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윤경렬옹의 우려는 21세기를 앞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한다.

이은자 기자

"종교와 철학에 비친 인간관"

경희대 철학과 교수 공동 '인간이란 무엇인가' 펴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석가, 예수, 플라톤, 철학, 생물학, 종교학 등 모든 것들이 이 근원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인간이란 무엇인가〉(민음사 刊)는 사회생물학, 플라톤, 유가, 불교 ,기독교를 통해 본 인간관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남기영, 허우성, 김수중, 정연교, 최정식 등 경희대 철학과 교수들이 인간이라는 한 주제를 두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과 그 기록을 담은 것이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한 기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초기불교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고찰한 '불교적 인간관'은 인간을 범부와 사문의 두종류로 나누고, 오욕락과 추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범부의 길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안을 찾아나선 사문을 불교의 이상적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정론적, 목적론적, 운명론적 인간론을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나의 존재, 행동 기능, 목적은 신에의해 결정됐지만 나는 나의 존재를 전제로 내가 실현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범적 실천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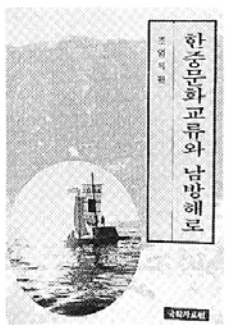
또 '생물학적 인간관'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정의되는가 하면 '플라톤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중간자로 제안된다. 인간은 무생물, 동식물 등의 유기체보다 한단계 더 발전된 도덕성을 갖춘 '유기체적 존재'라는 것이 유가의 인간관이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철학과 세계관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담은 이 책은 인간관에 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인간문제뿐 만 아니라 사회생물학적 세계관, 불교철학, 플라톤철학, 유가철학, 기독교철학 등에 대한 입문서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은〉

한-중 문화교류사 '한눈에'

조영록교수 황해 뗏목 학술탐사 논문집 출간



〈한중문화교류와 남방해로〉(국학자료원 刊)는 남방해로를 통한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관계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이 책은 지난해 동국대학교 개교90주년과 동국사학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중국 강남지역과 한중교섭'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골간으로 조영록교수(사학과)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증보하여 다시 편집한 논문집이다.

제1편 '절동불교와 한중교류(浙東佛敎와 韓中交流)'에서는 중국 보타산 관음도량과 한국과의 관계, 고려 출신 의통대사가 중국 천태종 16조로서 활동한 내용, 절동지역의 불교개황, 소동파의 고려사 및 고려에 대한 비관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2편 '한중교섭항로'에서는 9~10세기에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해상활동, 10~11세기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저자 서긍의 남방해로를 통한 한중 왕래,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시대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3편 '황해 뗏목학술탐사와 그 의의'에서는 황해를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보고 그 성격을 구명코자 하였으며, 뗏목탐사의 역사적 의의로 구성됐다.

화제의 책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엮음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혼탁해져 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 마음의 순도를 높여줄 부처님 가르침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점점 메말라 가는 현대인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 삶의 환희로움을 가져다 줄 이책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율사이며 시인 석성우스님(파계사 주지)과, 역시 시인인 석지현스님이 대소승경전과 선사어록을 두루 섭렵해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명구들만 간추려 뽑은 것이다.

현대인 꼭 읽어야 할 불교명구

인생과 수행, 진리의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참삶이란 어떠한 것이며, 피안을 향한 불자들의 생활과 수행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목과 질시 없이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삶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민족사 5천원〉

변하지 않는 것은… 김수남 지음



유럽문명의 그늘에 가린 아시아 문화유산의 진면목에 새롭게 눈뜨게 해주는 책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이다.

민속문화의 탐구로 유명한 사진작가 김수남씨가 아시아 오지 탐사기록을 담은 이 책은 한해의 절반을 아시아 오지에 머물며 소수민족들의 삶과 제의를 사진과 글로 갈무리 해온 12년 작업의 결실이다. 티벳보다 더 고유한 티벳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히말라야의 오아시스 인도 라다크, 오랜 독재로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고도(古都) 만달레이 등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관광여행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오지 9개 지역의 사람과 삶, 의례를 내밀하게 담고 있다. 〈석필 9천5백원〉

아시아 오지 사람들의 삶과 의례

화제의 책

일본속의 백제문화 2 송형섭 지음



교토의 우즈마사(太秦)에 있는 광륭사에 가면 일본 국보1호인 백제불상 미륵보살반가상이 있고, 호류지(법륭사)의 대보장전(大寶藏殿)에 전시된 예술품들은 우리문화의 전시장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다. 특히 대보장전 북창(北倉) 특별실에 안치돼 있는 백제관음상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일본 속의 백제문화2〉를 펼치면 우리가 잊고 있는 일본에 남겨진 다양한 백제인의 문화유적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대전 중도일보사 송형섭 논설실장이 일본전역을 돌며 취재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 그동안 밝혀진 고대사의 사실과 여행을 하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풍물이 사진과 더불어 쉽고 재미있게 담겨진 이 책은 잃어버린 우리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일본 속의 흥미 진진한 백제문화 답사기다. 〈한겨레 7천원〉

우리유산 찾아떠난 일본답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3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4	티벳사자의 서	류 시 화	정신세계사
5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7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8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동 지
9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냐 한	한 민
10	깨어있는 마음닦기	보 천	불 지 사

구입문의:(02)737-0695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로 한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광화문 운주사 종로구청 탑골공원 조계사 안국동 종각역 공평빌딩 종로3가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태고집 설서 편/ 〃 / 8,000 → 5,0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엮음/ 〃 / 10,000 → 6,0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 8,000 → 5,0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용/ 〃 / 12,000 → 6,0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 10,000 → 6,0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 4,000 → 2,0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용/ 〃/ 4,000 → 2,0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열규/ 〃 / 4,000 → 2,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초서자전 편집부/ 까치/ 30,000 → 15,0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 5,500 → 3,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사토 미츠오/ 〃 / 4,200 → 3,000원
원효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 3,500 → 2,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불자연합회/〃/ 5,500 → 3,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6,000 → 3,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 5,500 → 3,000원
중국 불교 上 K.S 케네쓰 첸/ 〃 / 5,000 → 3,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 8,000 → 5,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혁 외/ 〃 / 5,000 → 3,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 4,500 → 3,000원
논어와 선 한토 다이가 외/ 〃 / 4,500 → 3,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진보삼/ 〃 / 4,500 → 3,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 3,300 → 2,5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 4,3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놀란풀리니 제이콥슨/ 〃 / 3,500 → 2,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 3,000 → 2,000원
금강경 김지견/ 〃 / 4,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회/ 〃/ 5,500 → 3,000원
선정쌍수의 전개 한보광/ 〃 / 5,0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 4,300 → 2,500원
딴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굽따/ 〃 / 4,000 → 2,5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4,500 → 2,5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3,500 → 2,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타무라 시로우 외/〃/ 4,000 → 2,5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9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휴/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 / 2,500 → 1,500원
유마경 〃 /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 / 2,500 → 1,5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 / 2,500 → 1,5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 5,000 → 3,0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김영사/ 5,900 → 4,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인간 유용론(有用論)이 생명복제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용성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발달에 따라 인간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최근 '인간게놈과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정호영교수(충북대 철학과)가 22일 현대문화종교연구소 제17회 종교문제세미나에서 〈구사론〉 등 불교경전을 근거로 인간복제 위험을 경고해 주목된다.

"생명복제 욕망일뿐이다"

정호영교수 '구사론' 등 경전 근거로 경고

복제기술 발달 자연질서 교란 실상을 그대로 봐야 苦서 해방



정교수는 '인간복제와 관련된 불교의 몇가지 관점'에서 "불교적 우주관이 잘 나타난 〈구사론〉에서 우주생성의 원초적 힘은 인간의 활동(사트바 카르만)에서 비롯된다"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종을 출현시키는 생명공학도 창조의 주체로써 인간을 떠올리게 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인간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수에 따르면 생명공학자가 복제기술을 통해 새로운 종(種)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생물의 다양한 종의 보편적 상호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무한한 상호관련성을 비유할 때 '인드라(帝釋天) 그물'로 지칭한다. 또 이것은 〈화엄경〉에 나타난 '겹치고 겹쳐 다함이 없다'(重重無盡) 혹은 '이법과 개개의 사물들이 원융하여 걸림이 없는 세계'(事事無碍)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생담〉에서도 '과거세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이 "의사 시비카는 아난다, 제석천은 아룻다…"와 같이 과거세와 현재세를 결합한 것도 개개의 사물들이 서로 넘다드는 우주와 생명의 바다를 보여준다.

정교수는 생명공학이 질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유익함'으로 접근해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생명공학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고통은 생로병사의 존재 실상을 '있는 그대로(如實)' 보지 못하고 애써 부정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연기(緣起)의 세계에 대한 참다운 이해이며 반야(般若)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교수는 "〈아함경〉 '무외왕자경'은 이러한 욕망의 위험성을 '칼날에 묻은 꿀'로 표현했다"며 "보편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외왕자경'에서 부처님은 유용성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쳤고 불교의 생명관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이며 유물론적 관점이나 기계론적 개념틀로는 이해될 수 없다. 생명은 '자비' 또는 '사랑'의 활동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북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 '복제양의 탄생과 유교의 입장'을 발표한 이동희교수(계명대 유학)는 "인간복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장기이식도 동물로 하는 데 그쳐야 한다. 과학이 상업자본과 결탁할 때는 가공할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교훈교수(서울대 철학)는 '생명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에서 "생명조작과 인간복제는 근본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며 "현대의 과학과 의학은 기초학에 불과하며 인간학 인간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위덕대학교 부설 밀교문화연구원 개원식

일시 : 전기 51년 11월 20일(목) 장소 : 제1공학관 대강의실

◇위덕대는 20일 진각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밀교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밀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밀교, 신라 무속신앙 포용"

진각종 창종 50년 밀교학술회의 열어

조선불교 명맥 유지 기여 만다라사상 국토도량화

6세기경 신라에 처음 전래된 밀교는 당시 토착무속신앙을 극복하고 신라인을 귀법(歸法)케 했으며, 조선조의 억불정책에 맞서 불교를 지탱시켜 준 등불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위덕대 부설 밀교학연구원(원장 경정)이 20일 개최한 진각종 창종50주년 기념 밀교학술회의에서 종석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학) 등이 발표했다.

종석스님은 '한국밀교의 수용과 전개'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집인 〈석문의범〉에는 밀교 사상에 근거한 진언다라니가 무려 1백17칙이나 있다"며 "이와같이 밀교는 다라니 신앙을 민중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5백년간 억불 속에서 불교의 명맥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밀교의 특성과 법신사상'을 발표한 서윤길교수는 "6세기경 한반도에 처음 소개된 밀교는 당시 토착신앙의 반발을 극복하고 무속들을 불법에 귀의시켰다"고 설명했다. 서교수는 "신앙의 사회화에 성공을 거둔 신라의 밀교는 만다라 사상을 수용해 국토 전체를 도량으로 삼고 법당 뿐 아니라 산, 들, 바위까지도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시는 등 한국불교의 특징을 형성, '통섭성'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통섭성은 즉신성불의 이상과 짝을 이루면서 '즉사이진(卽事而眞·행하는 일마다 모두 진여의 표상)'을 신앙으로 승화된 한국밀교의 특징이다. 허일범교수(위덕대)는 "밀교의 법신관은 불교 법신사상의 발전적 계승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일경〉에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으로 현실세계를 정화해가는 적극적인 법신관이 설해졌다"고 지적했다.

"도심포교당 공간조형 살리자"

21일 동국대 대각전 개원 세미나서 주장

현대인들의 귀의처이며 신행공간인 도심 포교당, 도심포교당의 건축물은 실용성·대중성·편의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예술과 교리가 조화를 이룬 조형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개교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 대각전을 개원한 동국대가 도심 포교당의 공간조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인을 위한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을 주제로 마련한 대각전 개원 세미나에서 조각·회화·건축분야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은 '현대 도심 포교에 있어서 공간 조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도심 포교당은 벽쪽으로 불단을 붙여 많은 사람들이 앉게 하고 신행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식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포교당을 건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리에 입각한 시설설치 △노약자와 장애자의 편리를 배려한 대중성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신도들의 운영참여 등을 꼽았다.

손연칠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성'에서 "지금도 사찰 건립·조형 등은 과거의 양식과 관행만을 답습해 획일성과 속박에 빠져 있다"며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적 표현과의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교수는 △불교미술대전의 제도적 보안 △불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 △작가들의 구도자적 내면 세계의 승화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적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을 발표한 김개천씨(이도건축 대표)는 "현대 불교건축의 퇴조는 불교문화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대각전은 불교문화의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킨 도심 포교당이 선례"라고 말했다.

'불교조각의 현대적 과제'를 발표한 김영증씨(연희조형 관장)는 "현대인의 미적 문화적 감각을 염두에 두고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불교조형의 현대화를 위해 가칭 '한국불교조형연구회' 설립을 제안했다.



The Dalai Lama Meets with Lesbian and Gay Leaders, June 11, 1997

In a historic meeting in San Francisco on June 11, His Holiness the Dalai Lama, for the first time ever, discussed issues of homosexuality, human rights, and Buddhism with a small group of gay and lesbian Buddh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he Dalai Lama expressed his strong opposition to discrimination and any form of violence against gay and lesbian people. He voiced his support for full human rights for all, regardless of sexual orientation. He encouraged gay and lesbian activists to rely on Buddhist principles of rigorous investigation and non-violence as the foundation in their struggle for full equality. Participants were heartened by the Tibetan leader's willingness to re-examine traditional Buddhist teachings on sexual misconduct and homosexual behavior

美 불교계 에이즈 예방위해 개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

'불교 AIDS 프로젝트'는 에이즈 예방과 구제를 위해 美불교계가 개설한 단체. 이 사이트는 AIDS에 감연된 환자, 가족, 간병인들을 위해 소식, 의학, 서적, 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에이즈와 명상' '에이즈와 반야' 등의 에세이 수편을 비롯해 〈죽음과 죽어가는 것〉 〈평화로운 존재〉 등 불교와 죽음을 다룬 16권의 서적 안내가 볼거리. 또 미국 불교계가 에이즈에게 배려하는 봉사와 구제의 실질적인 활동 소식도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스티브 페스킨드는 "이 단체는 한 사람의 환자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육체·정신적인 도전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가상 공간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했던 달라이 라마도 이 단체의 간병인과 환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美불교계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는 의사를 비롯하여 육체 노동자, 심리학자, 명상 훈련가 등 60여명의 자원 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http://ww.wenet.net/~bap

홍콩,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로

홍콩은 99년부터 부처님 오신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해 홍콩종교계는 물론 전세계 불교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홍콩 행정위원회는 18일 '홍콩은 종교 자유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을 새 공휴일로 지정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절(5월1일)도 신규 공휴일로 지정됐다.

홍콩 6백40만 인구 중 공식 불교도는 약 83만명. 인구의 80% 이상이 도교를 신봉하고 있으나 도교 자체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시민 대부분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이 일상화돼 있어 홍콩 불교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불교단체는 지난 70년대부터 홍콩 정부에 부처님오신날의 국경일 제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홍콩 불교연합회의 국경일 지정요구 신청서에는 기독교등 6대 종교도 적극적으로 지지, 동참했다고 한다.

학술단신

불교 영어독해 강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불교영어독해 초급과정' 강좌를 마련한다.

김종명박사(UCLA대 불교학)가 〈Arouse Your Mind and Practice(발심수행장)〉 〈Admonitions to the Bignners(계초심학입문)〉 〈The Essentials of Pure Land Practice(염불요문)〉 등 한국불교 저술을 강의한다.

강의는 원효학당에서 12월19일부터 매주 화·금요일에 개설된다. (02) 3411-6167

논문집 '사찰조경…'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가 〈사찰조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에는 김한배교수(대구대)의 '부처 길과 절 길' 이영경교수(동국대)의 '조경 전공인의 평가에 근거한 사찰 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 김남철박사(산림조경연구소)의 '조계산 선암사 조경 식물에 관한 연구' 홍광표교수(동국대)의 '사찰의 연지에 관한 연구' 등이 게재됐다. (0561)770-2501



中에 세계최대 청동불상

높이 88m, 무게 8백t의 세계 최대 청동 불상 〈사진〉이 지난 16일 중국 강소성 무석시의 시앙첸 사원에 세워졌다고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 종교사무국 관리들과 중국불교협회 및 공산당 관계자, 국내 및 외국에서 온 불교신도 등 1만여명이 이날 불상 봉안식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 법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B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0

돈오와 점수

불교에는 여러 병통이 있지만 자력(自力)에의 과신이 심어준 병통도 적지 않다. 기독교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너의 자심에 깃든 불성을 과지하라. 다름 아닌 네가 곧 부처이니라"는 휴머니즘의 천양에 학인들은 자칫 들뜨기 쉽다.

"아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법신의 현현이고, 나의 고뇌와 방황, 욕망의 흔적까지가 곧 보리(菩提)란 말이렸다. 언필칭 돈오(頓悟)라! 깨달을 너도 깨닫는 나도 없으니 가부좌는 무엇하며, 육도(六度)의 바라밀(波羅蜜)은 웬 법석이더냐."불교의 교설은 이런 레세페르가 말류적 징후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었다.

특히나 선이 그랬다. 잠든 영성을 일깨우기 위해 높이든 돈오의 기치가 세력을 얻을 때쯤 이같은 위험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점수(漸修)는 그 위험을 차단시키기 위한 유력한 장치였다. 깨달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뼈를 깎는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그 성취는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의 고독과,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용기를 가진 예외적인 인간에게만 허여된 희귀한 과보(果報)다. 네가 부처라고 해도 그 부처는 지금



그림 · 이준석

는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혼비백산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부모를 만나거든 그들도 함께 베어라. 그때에야 너는 절대로서 진정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제는 살아있는 절대를 섬뜩하고도 과격한 방식으로 천양한 사람이다. 운문 또한 이 점에서는 임제에 뒤지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한술 더 떴다고 할 수 있다. 살아 거치적거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자들까지도 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 창시자인 석가는 물론, 왔다 간 여래와 이제 올 보살들까지 그의 혀끝에서 목숨을 잃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는 석가를 때려잡아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겠다"는 다짐은 약과이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똥막대기"라고 답한 그 신성모독이야말로 돈오적 발전의 최후의 덧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불교는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경전은 더 이상 기댈 권위가 아니었고, 사찰은 더 이상 성스러운 공간이기를 그쳤으며, 스승은 더 이상 불법의 화신이 아니었다. 운문은 진리를 둘러싼 교(敎)와 선(禪)의 모든 소란을 잠재워버렸다. 운문의 고함소리에 우리는 흡사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지?"하며 좌우를 돌아

성불로 이끄는 방편의 두날개

돈오 "중생이 곧 부처" 점수 "때부터 벗기라"

묻혀 있고 갇혀 있다. 무명의 거칠고 두터운 때를 벗지 않고서는 너는 부처일 수 없다. 그렇게 점수는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점수는 깨달음 이후의 보임(保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오와 더불어 동시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방편의 두 날개이다. 즉 돈오 이후에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오와 더불어 점수가 있다는 말이다. 새가 두 날개를 움직여 창공을 날듯이, 수레가 구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듯이, 돈오와 점수는 선뿐만 아니라 불교의 건전한 활력을 위해 동등하게 필요한 두 방법적 굴대라고 생각한다.

선의 초기에는 물론 돈오가 제창되어야 했다. 달마의 돈오는 의타(依他)와 비관의 완강한 현실에 부딪쳐 소림사의 산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몇대를 거쳐 힘을 얻은 돈오는 육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적 동력을 얻는다. 그 이후 돈오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마조(馬祖)는 돈오를 앞세우되 점수의 방법적 균형을 잘 잡아준 거장이었다.

그렇게 발전한 돈오는 임제와 운문에서 극에 달한다. 임제는 신체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정신 자체를 절대화했다. 이른바 무위진인(無位眞人)이 그것이다. 그의 포효 앞에 세계보는 사람처럼 얼떨떨해 지고 말았다.

음양의 진실에서 보면 모든 발전의 극은 쇠퇴의 시작이다. 운문 이후 선은 황금시대를 지나 길고 긴 쇠퇴와 하강으로 이어졌다. 그 바탕에 나는 '돈오의 과잉'이 있다고 믿는다. 주지하다시피 당말과 송대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각성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무너진 기강을 세우고 정치적 부패와 무능을 광정하기 위한 유교적 이념이 적극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의 개인주의와 탈권위주의, 그리고 비도덕적 지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자주 도마에 오른 것이 방거사의 표어인 "작용시성(作用是性)"이다. 절대의 경지는 현실과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는 "아하, 신기하고녀. 내가 섶을 지고 물을 나르다니(神通幷妙用, 運水及搬柴)"라고 갈탄했다. 그러나 이곳은 어디까지나 다가가야할 본원이지 오탁한 현실의 모습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돈오의 제창은 자칫 현실과 이상을 일원화함으로써 불교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돈오의 제창에는 점수의 동시적 균형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선은 헤개의 평을 뼈아픈 역설의 충고로 읽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결핏하면 똥막대기를 가져다가 문짝을 떠받치니 불법의 흥쇠를 가히 알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고따미 여인은 부처님 당시 사왓티에 사는 큰 재산가의 딸이었다. 그녀는 성장하여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들이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 그녀의 슬픔과 충격은 헤아릴수 없을 만큼 컸다. 그때 어떤 현명한 사람이 그녀를 매우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해주었다. "여인이여 당신이 찾아 가야 할 분은 부처님인 것 같소. 그분은 아마도 당신의 슬픔을 치료해 줄 약을 갖고 계실거요" 이말을 들은 고따미는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 아들의

구횡사(九橫死)

시신을 보이며 울고 애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제 아들을 살릴 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부처님은 여인을 보시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시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러주셨다. "여인이여. 내 그대의 슬픔을 없애주리라. 그대는 곧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다만 여인이여, 사람이 한번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얻어야만 되느니라"

이 말씀에 고따미는 곧 죽은 아들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대처러운 바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집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다오" "엄마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소" "우리 딸도 소에 받혀 죽었소" 결국 고따미는 한 톨의 겨자씨도 얻지 못한채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땅에 내려 놓은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진실을 생각한다면 죽은 사람의 수가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처님이 자기더러 사람이 죽은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한 것은 자기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감동하게 되었다. 고따미는 자식의 시신을 땅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신이 겪었던 일과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런 고따미에게 죽음의 현상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설법을 자세히 해주셨다. 그런 뒤 그녀는 출가를 하여 수행인이 되었는데 어느날 기름 램프의 불이 바람에 꺼질듯 하다가는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되었다. 그것은 고따미 여인에게 있어 최상의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모든 생명의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사라지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게 되었고 누구든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법칙을 예의 관찰하면 마침내 나고 죽음이 다한 경지를 얻게 된다는 결론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었고 그녀는 머지않아 아라한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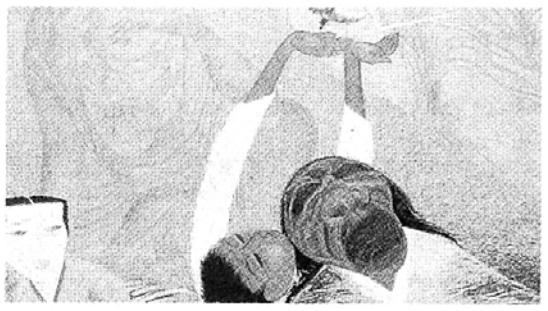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다만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약사여래본원경〉에서는 부처님이나 도를 성취한 성현들의 죽음을 제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홉가지의 슬픔에 입각한 비명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것을 구횡사(九橫死)라고 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는 죽음, 국법에 저촉되어 사형을 받음, 주색에 빠져 정기를 빼앗겨 죽음, 불에 타 죽음, 물에 빠져 죽음, 짐승에게 먹힘, 절벽에 떨어져 죽음, 독약이나 저주로 죽음, 기갈로 인한 죽음이다. 요즘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횡사할 요인은 더욱 많아졌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간으로서 당하고 있는 불의의 죽음들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법을 깨닫고 해탈을 이루는 계기로 삼느냐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法數로 배우는 불교

〈40〉



◇김영덕 作 「새야새야」

병사·익사등 9가지 돌연한 죽음
"슬픔·두려움 깨달음의 계기삼자"

불교와 수학

33

기호화

김 용 운

양자 세계의 물질 운동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태양 운동은 누가 관찰해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곧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인식하는 일이다. 그러나 양자론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보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에 주목하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하이젠 베르그의 '불확정성원리'). 나의 그림자를 잡으려 할 때는 이미 그것은 한 걸음 앞에 나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무의식 세계를 파헤치는 심층 심리학의 근본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즉 '나의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무의식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리게 되면 이미 무의식이 아니다. 굳이 무의식을 의식할 때는 그 단편을 엿보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할 수 없다. 죽었을 때는 의식이 없는 것이고, 의식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무의식 중,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과 같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8



그림 · 최주현

禪 언어도단 불성 온몸으로 표현
수학 극미·극대의 논리 전개 기호화

지방의 태수가 임제(臨濟)선사의 명성을 듣고 설법을 청한 일이 있었다. 임제화상은 도저히 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언어도단'인 진여(眞如)의 세계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임제는 태수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를 잡았다. 그는 "나는 입을 열 수 없고 당신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다"고 그 심정을 말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세계를 보이기로 했다.

첫번째 스님이 임제화상의 부름에 따라 등장하여 임제에게 묻는다.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임제는 '할(喝)'이라고 소리쳤다. 이때 물음을 던진 스님은 공손히 임제화상을 향해서 절하며 물러가려고 한다.

그러자 임제화상은 "응, 너와는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선문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만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상의 사실을 정리해 보자.

스님: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임제: 喝.

스님: (큰절을 한다)

임제: 그 정도면 말 할 수 있다.

선(禪)에서는 喝로써 언어도단(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세계의 일단을 보인다. 한 인간의 전존재(全存在)를 내던지는 존재 양식을 기호화한 것이다. 언어 세계를 초월하는 인간 존재의 참뜻을 표현하는 일은 몸 전체로 하는 행동적인 양식, 즉 기호일 수밖에 없다. 불법은 그림의 떡과도 같은 객관적인 것은 아니며 살아있는 인간의 참모습이다. 자신에 내재하는 불성을 온몸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할로 표현된 것이다. 이미 대오(大悟)의 경지에 선 임제는 그것으로 그 세계를 나타냈다. 그에 대응하는 스님도 말로는 대응할 수 없고 남은 방법은 오직 몸 전체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는 크게 절하며 그 뜻을 헤아렸음을 알렸다.

말로는 말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을 초월한 세계에는 오직 몸 전체로의 대응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알아차린 임제는 "가히 그 정도면 말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해서 말로 표현할 때는 이미 그 본질이 닳아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 단편의 기호로나마 상징화되었을 때는 그 일부만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수학을 두고 '무한의 과학'이라고도 한다. 처음 무한과 씨름하게 된 대수학자는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의식했다.

보다 작은 0.01, 그 보다 작은 ……, 0.0000000000 … 001, …… 보다 작은 세계를 의식한 수학자는 그것에 당황하면서 그 극미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논리에 신비성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개인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수학 세계의 공유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호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0.1, 0.01, 0.001, ……, 0.0000000000 … 001, …… 이라는 사실을 기호화하여 $x \to 0$의 표시로 기호화했다. 또 10, 100, 1000, 10000, …… 10000000000 … 00, …… 을 기호화하여 $x \to \infty$로 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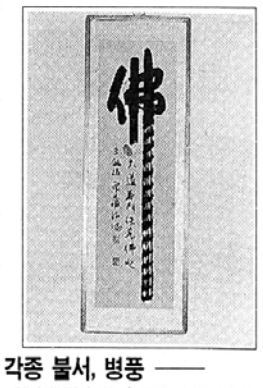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玉混합원사 · 건강防災服
조내외 內 衣
항균성 음이온발생 99.9% 54.8PPM
건강회복 젊음유지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쭉 감싸 주는 것입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ilian+BIO=건강신물질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男女각각)
중국 河北省 滿城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劉勝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가 탄력이 있었다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여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斋堂
777-0105 (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合格 · 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연성지법 무병함자의 영원한 祈願을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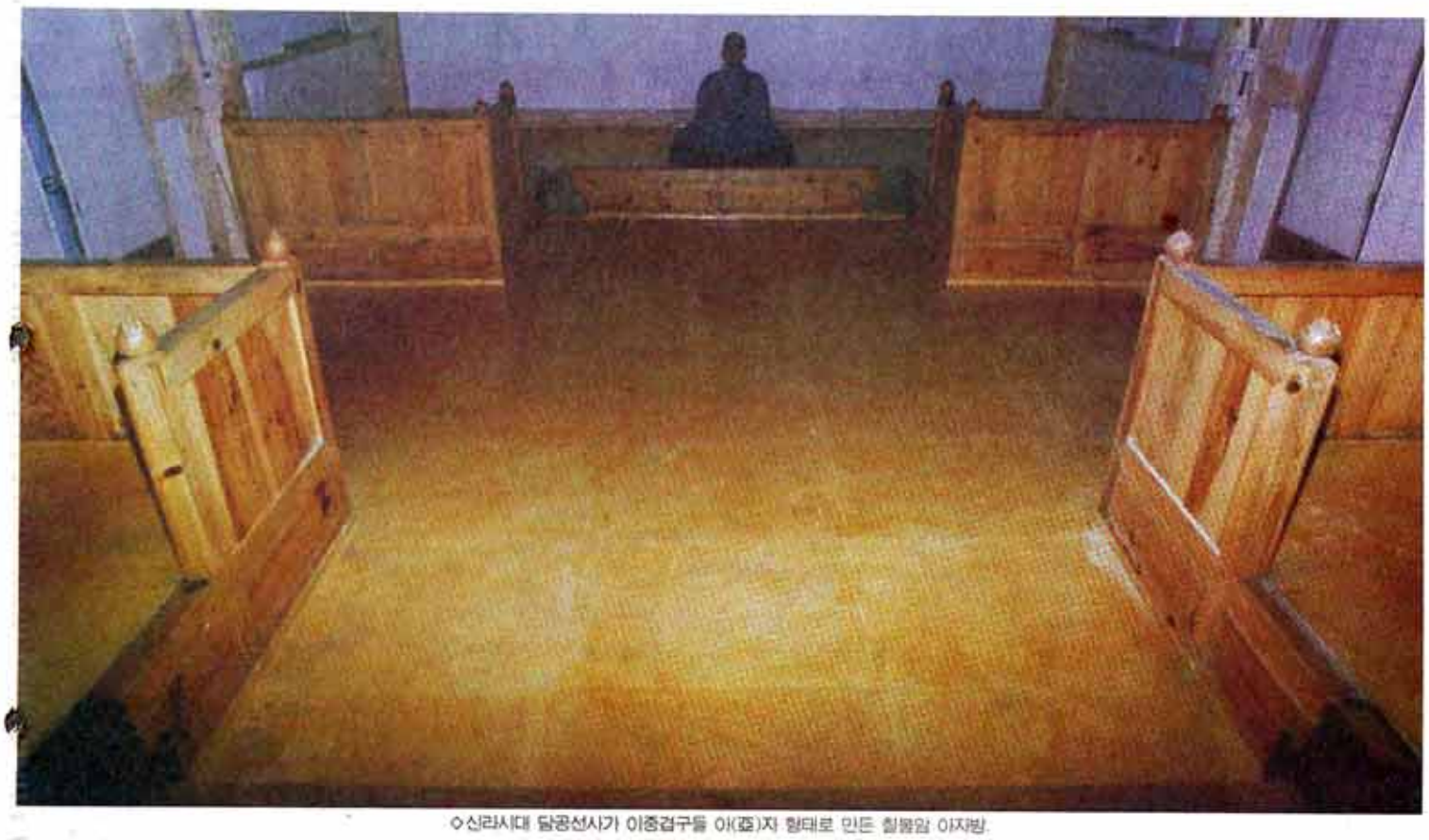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觀하며,
제2차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진리의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수련도량입니다. 스님의 정혜쌍수, 결사정신을 바탕으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수련회 일정표 "3박 4일"(목~일)

차주	비 교	연 령	대상	모집인원	회비	날 짜(기간)
1차	초심반	20~55세	일반인	30명	8만원	97.12월18일~12월21일
2차	〃	〃	〃	〃	〃	97.12월25일~12월28일
3차	응맹정진반	〃	〃	〃	15만원	98. 1월 1일~ 1월 4일
4차	초심반	〃	〃	〃	8만원	98. 1월 8일~ 1월11일
5차	〃	〃	〃	〃	〃	98.1월15일~1월18일
6차	〃	〃	〃	〃	〃	98.1월22일~1월25일

2. 수련내용
① 묵언 ② 香功(선체조) ③ 수심결 강의
④ 행선(금장해수욕장, 용두봉) ⑤ 금당도, 소록도 관광(회향일)
3. 접수요령 : 주소, 이름, 전화, 주민등록번호, 종교, 신청소감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12월 10일까지 보내시기 바람
4. 교 통 편 : 서울 - 광주(고속) / 서울 - 순천(기차) / 서울 - 녹동(직통) / 서울 - 여수(비행기) / 부산 - 순천(벌교, 녹동) → 녹동 - 금진행 (배로 15분거리) → 송광암
5. 회비납부 온라인
■ 우체국 501023-0039351-17 (일선)
■ 농 협 617073-52-068116 (일선)
6. 연 락 처 : 우)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74 송광암
전화 : 0666)843-8488, 전송 : 842-7307
암주 일선 합장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해조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 733-3900



◇신라시대 담공선사가 이중겹구들 아(亞)자 형태로 만든 칠불암 아자방.



◇기와로 쌓아만든 아자방 굴뚝.

왜 亞字일까…천년 구들도 동안거

안거철에 찾은 '칠불암 아자방'

한번 아궁이불 지피면 1백일간 온기 유지

겹구들 부채고래구조 '특이' 세계건축사전에 수록

지리산 화개골의 칠불암 가는 길은 시냇브로 겨울에 잠기고 있었다.

14일(음력 10월 15일)은 동안거 결제일이었다. 전국 70여선원에서 2천여 수행납자들이 화두 하나에 온 우주를 걸고 정진하는 동안거를 맞아 수행자들이 겨울한철 정진하기에 가장 좋았다는 선방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의 수행삼매를 엿보고 싶었다. 왜 방 모양이 亞자일까…. 한번 불을 넣으면 1백일간 식지 않는 비결은 뭘까. 겨울 수행에 군불때는 시간마저 아꼈던 옛선사들의 원력이 담긴 아자방. 정작 산길을 오르는 동안에는 '아자방의 신비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더 컸다.

하동 쌍계사 입구 쌍계교앞에서 안쪽으로 10여㎞ 구불 구불 산길을 따라가니 '무슨 잡념을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오느냐'고 호통치듯 '동국제일선원'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서 있다.

칠불암이라는 절 이름보다 더 잘 알려진 명물. 바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동국제일의 선방으로 명성을 높여온 온돌선방 아자방(亞字房 지방유형문화재 144호)이다. 신라 효공왕때 구들도사로 불리던 담공선사(曇空禪師)가 칠불선원에 구들(구운 돌)을 놓으면서 방의 모양을 亞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다고 한다.

남북 장방형으로 놓인 아자방은 두칸이 부엌이고 북쪽 세칸이 방이다. 세칸의 서쪽은 툇간을 두어 툇마루를 놓았다. 세칸 온돌방은 16평.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인 아자방은 길이9m 너비8m 규모로 한꺼번에 1백여명의 스님이 앉을 수 있다.

방구조가 직사각형 안에 아(亞)자 형태로 돼 글자안부분은 70㎝ 낮은 구조다. 그래서 창선하다 잠시 걸터앉아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낮은부분은 통로인 행경처(行經處)이고 높은부분은 좌선처로 쓰인다. 일곱짐의 통나무를 아궁이에 한꺼번에 넣고 불을 지피면 1백일간 따뜻함이 유지되어 거뜬하게 동안거를 보냈다는 불가사의한 아자선방. 그 신비의 열쇠는 구들의 구조에 있다. 아궁이는 최근들어 개조하면서 작아졌지만 고래가 4m쯤 안쪽으로 넓게 들여다 보인다. 아궁이와 방의 높이도 1.8m나 되는 것이 특이하다.

특히 이중으로된 구들구조는 보통의 구조와는 다르게 부채살과 줄고래를 혼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부채고래. 여기에 온돌도 2중으로 놓아져있는 것은 유일하다. 아궁이에서 부채살 모양으로 뻗어가는 구들은 중앙에서 다시 줄고래로 모아져 북쪽벽 굴뚝까지 연결돼 있다. 구들에 사용한 토질또한 부근 흙과 차이가 나는데 구들밑에는 15~50㎝ 정도의 강회다짐이 있어 일종의 보온층을 형성하고 있다.

구들학회 최영택회장은 1백일간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아자방은 겹구들이어서 밑의 행선처의 구들의 식으면 위 좌선처의 구들로 열이 모아지는데 진흙으로 열을 가둬서 축열기능을 좋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곳을 조사한 한 학자는 방의 보온효과에 대해 "원자물리학상 태양계의 우주선인 감마선을 이용한 과학적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구들부터 축조하여 놓은뒤 건물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자방은 한번도 개보수 한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1백년에 한번씩 아궁이를 막아버리고 물(水)로써 말끔히 청소를 하면 아무런 부작용없이 불길이 잘들어가 2층까지 골고루 따뜻한 온기를 유지했으며 따뜻한 온기는 방주위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 건물은 여러번 고쳤으나 구들은 천년전 그대로의 것이다. 우리의 주거문화중 구들문화는 열축적이 뛰어나다. 황토의 기운을 받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아자방은 1979년 세계건축협회에서 펴낸 〈세계건축사전〉에 수록됐으며 국학자들 사이에서는 구들문화의 대표적인 건물인 아자방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드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칠불암에는 올 동안거를 결제한 스님이 20명이지만 이 가운데 안거와 상관없이 3년을 기한으로 묵언 정진하는 스님이 18명이나 된다. 그러나 서슬푸른 수행자들도 찾아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윗쪽에 새로지은 운상선원에서 정진을 한다. 그렇다고 아자방 선방의 기능을 잃어 버린 것은 아니다. 아자방에서는 칠불암 대중스님들이 저녁마다 정진을 한다. 세간의 반잡을 떠난 납자들이 산중 수행처에서마저 인파소음을 피해 두방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아자방은 수많은 세월동안 무수한 고초를 겪었다. 순조 20년(1830년) 아자방 건물인 벽안당(碧眼堂)이 실화로 소실되어 금담, 대은스님에 의해 복구됐으나 1948년 여순반란사건당시 국군의 작전상 긴급조치로 전소돼 30년간 폐허로 버려져 있었다. 다행히 구들만은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1982년 건물을 원형복원했다.

칠불암 아자방에서는 벽송, 부휴, 추월, 인허, 무가, 월송, 금담, 대은, 초의선사 등 수많은 선승들이 오도의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흙과 돌구들의 선방에 앉아 바람결에 문풍지 우는 소리를 천상의 주악으로 들으며 화두를 궈뚫었을 옛선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듯 했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칠불암 아자방전경(사진 위)과 82년 건물보수시 드러난 부채살모양의 방구들.



칠불암은 어떤 절인가

김수로왕의 7왕자가 성불한 곳 남방불교 전래·국악·차 '시원지'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은 101년 가야국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왕국에서 시집온 허황옥의 10왕자중 칠(七)왕자가 외삼촌인 보옥선사와 지리산에 들어가 운상원(雲上院)을 짓고 6년만에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자 이를 기뻐한 김수로왕이 절을 크게짓고 이같이 불렀다고 한다.

선수행의 대표적 도량 칠불암은 구들문화의 출발지, 남방불교전래설의 시원지, 국악의 발상지, 차문화의 고향등 많은 역사적 의미가 깃든 사찰이다.

칠불암 아자방은 구들문화인 '앉은 문화'를 정립시켰다. 이런 앉은문화의 바탕위에서 한민족은 선문화를 만들고 걸출한 선승들을 배출하며 선맥을 잇고 궁극에는 우리민족이 갖는 선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또 남방불교전래설을 뒷받침해주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이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도 아유타국에서 직접 석탑과 불경을 가져와 가야국에 전래했다는 것이다. 칠불암의 전산인 운상원이 197년에 전래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신라 528년에 비해 훨신 앞서고 있다.

칠불암이 국악의 뿌리인 범패의 발상지로 꼽히는 것은 허왕후의 오빠인 보옥선사가 목관악기인 '분지'와 현악기인 '이크탈'이라는 피리를 토속음악에 수용한데서 비롯됐다. 신라의 옥보고는 이곳에서 50년동안 거문고를 공부하고 30곡을 지어 세상에 알렸다.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828년 차의 종자를 가져와 화개 골짜기에 처음 심었는데 지금도 칠불암 인근에는 야생차밭이 드넓게 분포하고 있다.

칠불암 150m 아래에서 만나는 연못 '천비연'의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해준다. 7왕자가 수행 정진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떠나자 김수로왕과 허황옥왕비는 아들들이 보고싶어 이곳을 자주 찾았지만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오빠인 보옥스님에게 번번히 꾸지람만 듣고 돌려날 뿐이었다. 하루는 보옥스님이 '네 아들들이 성불했으니 만나보라'며 연못을 가리켰다고 한다. 허왕비가 연못가에 앉아있으니 황금빛 가사를 걸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7명의 아들이 보였다는 곳이다. 이 7왕자들은 김왕광불 담불 상불 행불 향불 성불 공불로 불리워지고 있다.



◇허왕비가 성불한 7왕자(칠불)를 보았다는 연못 '천비연'.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불품(術佛品) ①

已勝不受惡 이승불수악
一切勝世間 일체승세간
叡智廣無疆 예지확무강
開蒙令入道 개몽령입도

이미 모든 악을 이겨 더는 받지 않고
일체 세간에서 뛰어났도다
그 밝은 지혜 가없이 넓어
어두움 걷어내 도에 들게 하시네

決網無罣礙 결망무괘애
愛盡無所積 애진무소적
佛意深無極 불의심무극
未踐迹令踐 미천적령천

번뇌의 그물끊어 걸림이 없고
갈애 다하여 쌓임 없도다
부처님 뜻은 끝간데 없이 깊어
밟아 보지 못한 길 밟게 하시네

勇健立一心 용건입일심
出家日夜滅 출가일야멸
根斷無欲意 근단무욕의
學正念清明 학정념청명

積一行得佛 적일행득불
自然通聖道 자연통성도

나는 이미 돌아가 기댈곳 없고
흉로 뜻세워 짝할 이도 없다
오직 한길 수행 쌓아 부처되어
절로 거룩한 도 통하였도다

船師能渡水 선사능도수
精進爲橋梁 정진위교량
人以種姓譽 인이종성계
度者爲健雄 도자위건웅

뱃사공은 능히 물길 건너고
사무친 노력은 다리가 된다
사람은 저마다 혈연에 얽히나니
이를 건너는 이 씩씩한 대장부일세

壞惡度爲佛 괴악도위불
止地爲梵志 지지위범지
除饉爲學法 제근위학법
斷種爲弟子 단종위제자

악도를 부숴 건너면 부처이고
애욕 그치면 범지라하며
계율 받아서 배움의 법을 삼고

"악도를 부숴 건너면 부처이고 인연의 종자 끊으면 불제자"

굳세고 씩씩하게 한뜻 세워서
집을 떠나 밤 낮으로 멀도 닦았네
육근을 끊어 욕심 버렸으니
배움은 바르고 맑고 밝아라

見諦淨無穢 견체정무예
已度五道淵 이도오도연
佛出照世間 불출조세간
爲除衆憂苦 위제중우고

진리를 보아 마음의 더러움 씻었으니
이미 오온의 연못을 건느셨네
부처님 나오심은 온 세상 비춤이라
온갖 근심 고통 없애주시네

得生人道難 득생인도난
生壽亦難得 생수역난득
世間有佛難 세간유불난
佛法難得聞 불법난득문

사람의 길에 태어나기 어렵고
오래 살기 또한 어려운데
세상에 부처님 오심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 듣기 또한 어려워라

我既無疑保 아기무귀보
亦離無伴侶 역독무반려

인연의 종자 끊으면 불제자라 한다

觀行忍第一 관행인제일
佛說泥洹最 불설니원최
捨罪作沙門 사죄작사문
無嬈害於彼 무요해어피

관행에는 인내가 제일이 되고
열반이 으뜸이라 부처님 말씀했네
죄 짓는 일 버리고 사문이 되어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는다

不嬈亦不惱 불요역불뇌
如戒一切持 여계일체지
少食捨身貪 소식사신탐
有行禪隱處 유행유은처
意諦以有點 의체이유힐
是能奉佛教 시능봉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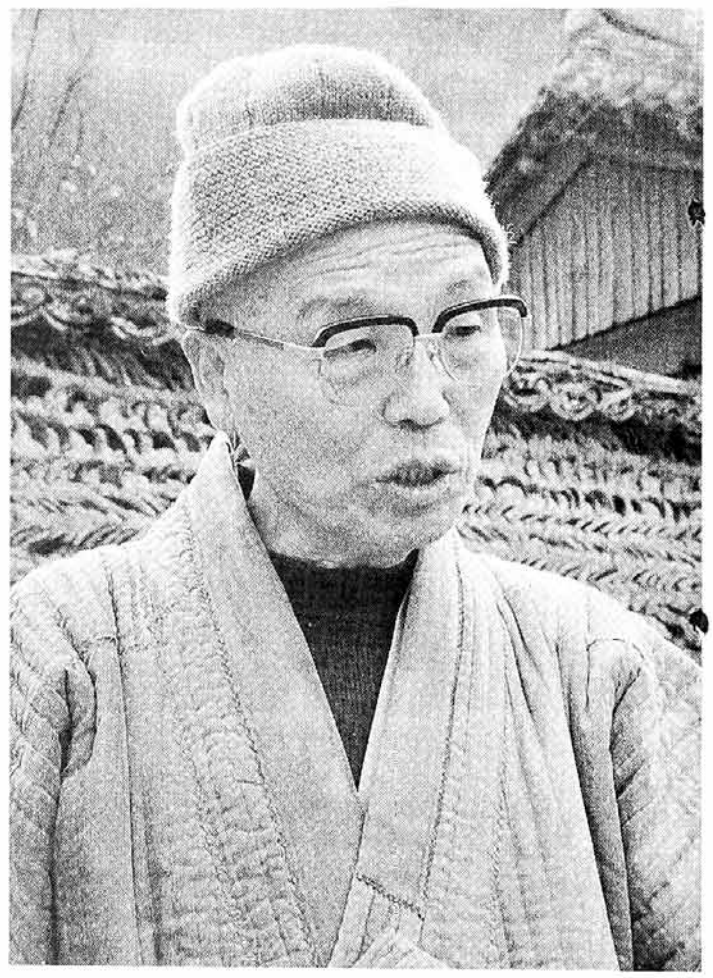
번거롭게도 괴롭히지도 않고
계율 그대로 일체를 지키며
적게 먹어 탐욕을 버리고
그윽한 고요속에 바르게 행하며
마음 오로지 해 지혜기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받드는 것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스님답고 불자다운 것은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한국불교 승보종찰(僧寶宗刹) 조계산 송광사, 보조스님의 맥을 잇는 조계총림 송광사 제 5대 방장에 추대된 범일 보성대종사(70)를 뵈러 가는 18일 오전, 송광사 경내는 첫 눈발이 휘날렸다.

임회(林會) 대중의 만장일치 추대를 위해 1년5개월여 어른을 모시지 못한채 병자년 동안거와 정축년 하안거를 보낸 조계총림에 반가운 서설로 비쳐졌다.

송광사는 지난 69년 하안거때 해인사에 이어 두번째로 총림을 설치했다. 초대 주지 취봉 창섭대종사(83년 열반)가 송광사를 정화하면서 대중들에게 "비구 기준에 맞춰서 수행하자"며 "이 청규에 따라 살 스님은 수행하고 아니면 떠나라"는 고지와 함께 "구산스님을 모셔와 총림을 만들자"고 주창하고 자신은 염불원의 회주를 맡아 설립됐다.

조계총림은 초대 방장 구산스님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하는 수행

(83년 12월 열반, 2대까지 역임) 3대~4대 일각스님(96년 6월열반)에 이어 보성스님이 수장을 맡게 됐다.

화엄전에 주석하는 방장 보성스님은 서울서 찾아온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맞이했다.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방장직을 수락했다는 스님은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서야 하는 수행"이라며 "승단의 신뢰 회복이 이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런면에서 승보종찰로서의 송광사가 역할해야 할 몫이 그 어느때 보다 많다"는 스님은 선대 큰 스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수행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추위'가 몰아닥쳐 대중들과 같이 밭의 무우뽑기 울력을 했다는 방장스님은 인터뷰 후 김장준비를 살피기 위해 겨울양식 밑천인 발고랑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절마다 가풍이 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스님의 목우가풍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총림은 승보종찰의 위상에 걸맞게 규율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 규율은 개개의 자율성을 존중한 청규여서 이른바 사회의 '군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광사는 정화도 부처님 법에 따라 전체 대중의 자율의사에 맡겨 함께 진행됐듯이, 스스로 수행하다 보면 적응하지 못하는 스님은 본인이 알아 걸망을 짊어지고 떠납니다.

근대에 이르러 효봉스님 구산스님 일각스님 등 어른스님들의 지도 덕분이지요. 여기에 역대 주지들의 성역화 중창불사로 가람의 면모일신을 이뤘습니다.

약력

- 1928년 경북 성주生.
- 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시미계 수지
-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2~71년 통영 미래사 주지
- 73~74, 78~79, 91~94년 송광사 주지
- 74~83년 중앙종회의원 (4~7대)
- 91년 대만 불광산 계단교육 참학 (존증사)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 호계원 재심위원.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승가에선 무소유와 무소임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아직 도량불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송광사가 조계산문을 연 그 뜻을 다시 새기면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의 극복과도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내가 송담스님(용화사 법보선원 원장)하고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단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는 대중들에게 나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방장에 추천됐다고 만나겠다는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사양했어요.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승단 내부적으로는 자존과 위엄를 갖추게 되고 대중들은 승단의 존엄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스님들이 요즘 너무 배가 불러요. 세속에서도 기성세대가 "우리 자란 시절…" 운운 하면 "또 그소리"한다고 합디다만 오늘의 한국불교를 일구신 선대 스님들은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소유와 무소임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다면 누가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공생과제 그 자체였습니다. '장좌불와' '하루1종식' '무문관 뚫기' 등 지금 사람들에겐 무슨 무형문화재처럼 여겨지고 말구실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수행현장에서 가슴으로 눈빛으로 확인되고 격려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낀다고 하든데, 결과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가치전도의 부작용이 승단까지 파고든 것이 아닌가 몹시 우려됩니다. 스님들은 한 시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결코 출가 본분을 놓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시주물이 늘고 절살림이 풍족하다고 출가 수행자의 본분사 덕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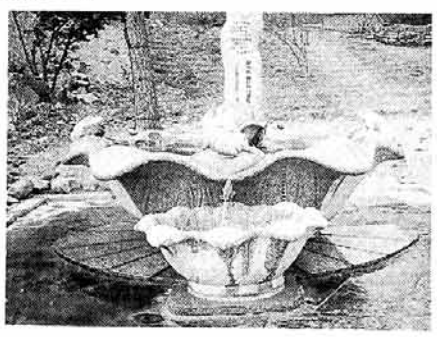
또 사람들은 세상이 민주화되고 선진 서구의식이 어떻고 합니다만, 서양인들 사는 식이 옳은 잣대가 아닙니다. 더더욱 부처님 계율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목표삼아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 승가야 말해 무엇합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스님들도 세상돌아가는데 휩쓸려 민주화에 맞춘 변화가 어쩌고 하는 언행을 보입니다. 한심스러워요. 무조건 서양 것이 가치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불교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흡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예요. 지고의 불변한 진리에 귀의한 부처님제자가 스스로의 본분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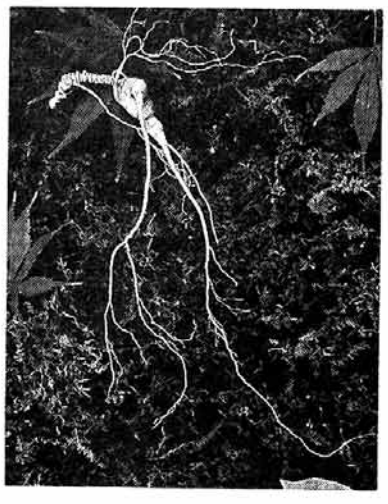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린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는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네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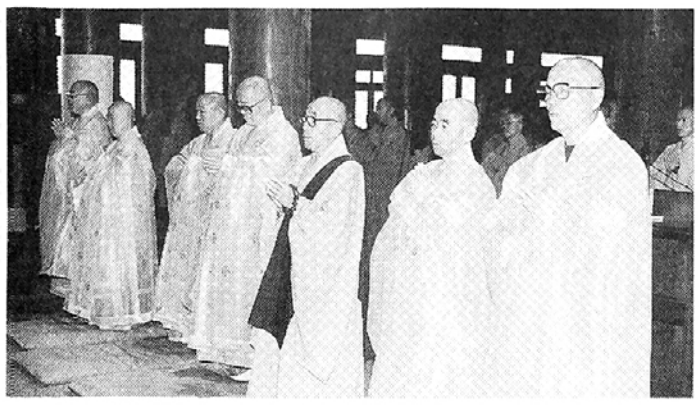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큰스님 수행한담

계 지키고 사는 삶"

"기도만 하면 반쪽불자 재가불자들도 마음밝혀 깨닫도록 스님들이 이끌어줘야"



◇지난 10월 열린 통도사 단일계단 수계산림에서 보성스님이 증사로 집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보성스님 종진스님 월하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오계 어렵다 느낄 때마다 참회 하세요 서슬퍼런 지계정신 정진 해탈의 원동력"

을 가치없게 여기고 의심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교가 학문입니까 논설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신 구경의 그 길로 가는 수행의 연속입니다. 실천인 것이예요. 모든 중생에게 내재한 그 빛나는 자성불(自性佛)을 확연히 깨달아 다시는 육도윤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제자의 삶의 목표이자 특히 출가 수행자에게는 더더욱 참구해야할 오직 한길 입니다. 신도들의 값진 시주공양받고 그 귀한 출가사문의 인연을 다하는 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실상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종교적인 세계에 몸담은 인연을 탄 사람은 모두 경제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보면 남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거저 먹고, 만들어 놓은 옷을 공짜로 입고, 시주의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집세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살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 삶의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확인해 주는 것도 곁국은 정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탁발때 만난 바라문이 "발을 갈고 씨를 뿌리고 먹으라"는 말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광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믿음과 고행과 지혜 그리고 참회와 굳건한 의지력…이같은 수행자의 덕목을 물질계의 '농사'에 비유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수행자들은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밖으로만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자기 정진과 체험없이 남의 말에만 팔리는 것이지요. 이미 부처님의 종자인 불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무명속에서 탐 진 치에 가려져 있는 것은 벗겨내려하지 않고 밖에서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사회가 기독교식 서구사상의 주입으로 많은 전통과 가치들이 전도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같은 진리를 접근하더라도 방식에서 불교의 가치체계와는 달리 교육되고 눈앞의 물질에 인격이 팔리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위대한 선지식은 행동과 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관으로 인한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실천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출가 사문에게는 떫백가지의 계가 내려지고 재가자들에게는 오계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계를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三學)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님을 스님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율입니다. 출가도 계를 받들어 지키겠다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계를 억지로 지키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율이 무슨 논쟁할 거리이냔 말입니다.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범어사에서 수계산림을 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미들이 무더기더라구요. 내가 모두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사자들은 죽기살기로 용을 쓰면서 수계를 시켜주지 않으면 범어사에 불지르겠다고 공갈까지 하는 겁니다. 우선 사중에서 놀래면서 어떻게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가 자못 감돌았어요. 나는 부처님 법계의 일인데 마지막 승단의 보루인 계율마저 문란해지면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법난이 따로 있답디까. 그래 단호하게 탈락시켰고 마침내 그들 모두 퇴방했어요. 서슬퍼런 지계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 원동력으로 정진과 해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소리 일색이었습니다.

내일(19일)이 대학입시라 그런지 신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송광사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신도교육을 제대로 안시켜서 큰일이예요. 그저 기도하라고만 가르치니 반쪽불자밖에 만들수 없어요. 재가신도들도 사람몸 받고 나온 금생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 어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도록 가르쳐야 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밝혀 불성을 깨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5계를 꼭 지키도록 주지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스님들의 몫입니다. 5계 지키는 생활을 해야 진실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생활하면서 5계 지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구나 느낄 때마다 부처님께 참회하세요. 그리고 일상에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반을 준비하면서도 손을 깨끗이 씻고 이 밥을 먹고 서방님과 애들이 각자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자세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밤맛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어서 빨리 집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하다보면 질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뜻이 합쳐집니다. 결국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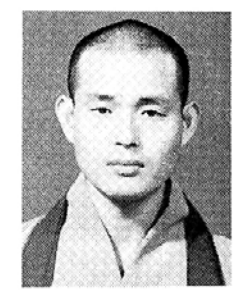
나는 최근 종단에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대해 반갑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 행자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쌍수들고 환영한 사람입니다. 승가상 정립은 행자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예요. 스님으로서 채비도 하지 않고 스님입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스님옷을 걸치지 않은 것이 해탈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행자때 부터 사미 사미니 까지는 정말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스님의 위의와 일상의례를 배워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족계 보살계를 수할 수 있고 제대로 '중노릇'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물어요, 승단의 신뢰회복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는 지금으로서는 더 푹 썩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단도 개혁의 대명제를 위해 체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선조 억불시대 일제의 왜색불교, 광복이후 서구화 등 사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응하고 계도하며 해온 몸짓들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교가 대중화 되어야 한다고 포교의 기치를 꽤나 들었지만 세속화에 더 깊숙히 물들지 않았습니까. 또 현대화 한다면서 계율에 대해 분분한 해석과 논쟁을 생각하는 본말전도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중 수행 생활보다는 변질된 토굴생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결국 푹 썩어야 귀한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 순으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서양도 물질을 뒷전으로 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같은 진리에 다시 눈돌린다고 합니다. 다 뜻이 있는 인연도리 입니다. 이 시대 시급한 과제는 지계정신과 수행풍토 회복을 통한 승가상 정립입니다. 그것이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일이고 민족의 장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나와 경전 〈31〉

천수경



정각스님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관세음보살 자비사상 핵심 밀교부 위경 한국불교 의식용 경전으로 널리 독송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천수다라니를 외우면 시방의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온갖 죄업이 소멸된다고 해서 많은 불자들이 이를 독송한다.

내가 처음 〈천수경〉을 접했던 것은 10여년 전, 출가 하루 전날인 약수암 법당에서였다. 바로 송광사로 내려가라고 하신 은사 현문스님께서는 나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시는 양 나 혼자만을 법당에 앉혀두고 〈천수경〉을 독송해 주셨다. "수리 수리 마하수리" 라는 최초의 어구를 접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아라비안나이트의 "열려라, 참깨!"내지는 요술담요에 앉아 허공을 나르기 전에 행했던 '신밧드'의 주문 "수리 수리 마수리"를 떠올리며 커다란 환상의 세계로 몰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뒤 행자생활을 시작으로 오랜 동안 나는 〈천수경〉 자체에 많은 의문을 품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천수경〉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해야겠다고 계획하였다. 이후 〈천수경〉은 내 수행의 화두로서 늘 함께 했었고, 그런 연유로 현행 천수경의 성립 구조에 대한 분석을 연구과제로 삼아 〈천수경 연구〉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천수경〉이란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신앙과 관련된 천수다라니 및, 그 신앙의궤를 전하고 있는 경전의 총칭으로서, 이를 '천수경류 경전'이라 일컬을 수 있다. 경명의 뜻은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이 넓고 크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해 설한 말씀'이다.

"나모 라 다나 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천수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천수다라니' 앞부분을 예로서, 천수다라니는 먼저 삼보 및 성관자재보살께 대한 귀의를 행하고 '성관자재보살의 자비의 힘으로 탐 진 치 삼독을 소멸한 채 열반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한역경전 가운데는 범본 다라니 5종을 포함한 무려 18종의 천수경류 경전이 현존하고, 티벳장경 가운데 2종 및 범본과 브라흐미(Brahmi) 문자로 기록된 2편의 다라니 등 총 22종에 달하는 천수경류 경전이 현존하고 있다.

이 경은 A. D. 2~3세기 경 인도에서 형성된 관세음보살 신앙에 바탕을 둔 채 만들어진 밀교부 경전으로, 그 경전 자체는 A. D. 3세기 혹은 4~5세기로부터 7세기 말 경에 걸쳐 단일 경전으로서가 아닌 다수의 천수경류 경전으로서 성립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불교에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은 위 경전들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취한 채 독자적으로 형성된 의식용 경전이라 말할 수 있다. 현존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현재와 같은 모습의 의식용 〈천수경〉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의 〈석문의범〉을 거쳐 1969년 통도사 강원에서 간행된 〈행자수지(行者受持)〉에서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재의 의식용 〈천수경〉은 그 성립 연원이 28년 밖에 되지 않는, 근래 한국불교에 의해 형성된 위경(僞經)임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천수경〉은 한국불교 신앙의례의 중심 경전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천수경〉 안에는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禪 등의 사상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또 이 모두가 한국불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관음신앙이라는 특정적 신앙 형태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에는 미륵 및 약사 신앙의 요소는 제외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신해 행 증으로써 표현한다. 믿음(信)에 기초한 불자들은, 신앙 항목에 대해 알(解)고, 이를 생활화(行)함으로서, 깨달음을 얻어 가질(證) 수 있다. 여기서 증득(證得)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열반인 것이다. 이는 〈천수경〉이 추구하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천수다라니를 외움으로써 우리는 궁극적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따라서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자기 내면의 성관자재보살께 의지한 채 천수다라니를 독송하자.



"환자가 약 먹듯 정법 의지하라"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겔스님 번역 ①

성불은 불교수행과 신행의 목표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께서 이미 일러 주셨고 선지식들이 거듭 밝혔기에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티벳의 스승 틍카빠대사의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 역시 경전에 의지하여 생활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주 쉽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고있다. 한국에 와서 2년 가까이 공부하고 지난 19일 남인도 규메 밀교대학으로 돌아간 초겔스님(32)의 번역을 간추려 소개한다. 스님이 번역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곧 단행본으로 펴 낸다. 〈편집자 주〉



쵀링 초펠스님

티벳에서 인도로 망명해 온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4세 때 인도 남부에 있는 티벳의 큰 사찰인 '규메'에서 출가했다. 19년 동안 현교에서부터 밀교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배웠다. 한국에 1년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올바른 순서〉를 번역했다.



◇부처님 가르침은 최고의 교육이므로 경전에 의지해 폭넓고 자세히 배우면 어둠속에 빛이 있어 물건을 볼수 있듯 지혜가 생긴다.

경전에서 얻는 이익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면 자기의 단점 자연히 없어져

'경전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첫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나 신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신 것이 정법이다. 이 정법들은 모두 연결돼 있으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소승이니 대승이니 경(經)과 선(禪) 같은 구분은 없다. 이것은 모두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단지 이름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인 것이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탄드라도 공부해야 한다. 우리 몸에 팔과 다리가 필요하듯이.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모든 가르침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보리도차제'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자신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게 된다. 최고의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경전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장경에 대하여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며, 또한 위대한 스승들의 말씀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염불만 하면서 이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넓게 자세히 배우지 않고 아주 조그만 기도나 참선만으로 평생동안 수행하는 것은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침을 자세히 배워야 하며, 기도와 참선도 같이 행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가 네 개의 바퀴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가르침을 자세히 넓게 배우게 되면 어떠한 경전을 대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부처님과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보리도차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초발심, 보리심, 공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대장경은 바다와 같다. '보리도차제'라는 배를 타고 선장과 같은 스승의 힘에 의지해야 바다속의 보석같은 대장경의 핵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넷째, '보리도차제'를 보게 되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발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보리도차제'에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키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경전에만 의지하지 않고 '보리도차제'와 같은 경전에 의지하여 폭넓게, 높게 배우면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의 단점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가르침 듣는 방법

자신을 병자라 생각하고 스승을 부처님처럼 공경

먼저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득을 살펴보자.

가르침을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득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게 하는 힘이다. 들음으로 해서 종교를 알게 되며, 죄를 절제하게 되며, 무의미한 일들을 피하게 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등이다. 들음은 무명엔 눈부신 등불이며, 도둑들에게는 도둑질을 할 수 없는 보석이며, 무지의 적을 정복하는 무기이며, 자기 자신에게는 틀림없이 충고하는 친구이며, 가난하게 되어도 변치 않는 친구이며, 고통이라는 병의 해롭지 않은 약이며, 재앙의 군사를 물리치는 최고의 군사이며, 수행자들을 만날 때는 최상의 선물이며, 명성과 영광 그리고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명은 없어지고 그만큼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어두운 집 속에 빛이 있으면 자기 눈으로 물건들을 볼 수 있듯이 들음의 빛에 의지하면 지혜의 눈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볼 수 있다. 들음에 의해 생긴 지혜의 보석은 다음 생으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기도 하다. 들음에 의하여 스스로 삼보에 귀의하게 되고, 명상과 정진을 하게 되며, 악업을 피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며, 악업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들음에 의하여 무지와 지혜를 구별하여 알게 되고,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득도 생기게 되므로 들음은 설혹 자신의 뼈와 살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한 전생에 살을 주고서 바른 가르침의 들음을 구한 적이 있는데, 뼈와 살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 수 있는 지금은 더욱 더 열심히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는 높아진다.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더욱 더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므로 우리들은 더 많은 가르침을 깊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법과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으로는 스승들을 부처님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경해야 한다.

칫째, 스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가르침을 청해야만 하며, 자기 시간에 맞추어 가르침을 청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항상 스승을 공경하여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셋째, 스승이 어떤 일을 시키면 화를 내서는 안된다.

넷째, 스승이 시키는 일을 하고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면서 원망하면 안된다.

다섯째, 법과 스승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가르침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는 가르침을 잘못 들을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경우와 잘 들어서 알 수 있게 되는 여섯 가지가 있다.

잘못 들을 수 있게 되는 세 가지는 ①그릇이 뒤집어져 있는 잘못 ②그릇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잘못 ③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잘못 등이 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침을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가르침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르침을 들을 때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그 안에 더러운 냄새나 독이 들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집중하여 잘 들으면서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자신만 변화시키려고 듣는 것도 옳지 않다. 그리고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흘려버려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잘 집중하여 들어야 하며,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잘 알 수 있게 되는 여섯 가지는 ①자기 자신이 병자라는 인식 ②바른 가르침(正法)이 병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생각 ③스승이 훌륭한 의사라는 생각 ④병자인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 ⑤바른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올바른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⑥바른 가르침이 오래도록 남아 있게 하겠다는 생각 등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병자로 생각하면 나머지 다섯가지의 생각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욕 성냄 질투 자만 등 탐 진 치 삼독(三毒)의 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병에만 걸려도 매우 고통스러워 하며 겁을 내면서도 탐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겁먹기는 커녕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삼독의 병을 없애는 약은 바른 가르침(正法) 뿐이므로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만 한다.

가르치는 방법

가르침 구하는이 근기따라 자비심으로 의사 병고치듯

칫째, 가르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이득을 바라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며,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자비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많은 돈건을 보시하여 베푸는 것보다 바른 가르침 한 마디를 베푸는 공덕이 더욱 큰 것이다. 이런 이득들은 자신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다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둘째,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공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른 가르침은 부처님들께서도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몸소 알께워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동기와 행동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돌보듯이, 또는 불쌍한 이들을 잘 보살피려는 자비심으로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듯이 배우는 이가 가르침을 깨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넷째, 가르쳐야 되는 이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를 구별해야 한다.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 이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야 하며, 가르침을 구하는 이의 능력을 살펴 베풀어야 한다.

다섯째, 가르침을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가 함께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해야 하며, 일체 중생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곰팡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염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받들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예술가, 예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혈관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 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 · 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론의 세포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 · 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팬,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낚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 · 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

"남 이롭게 하면 나도 이롭다"

봉사정신과 보시(布施)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8〉

오늘날의 사회를 고도 산업사회라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중요한 사회가 되었으며 물질적 풍요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게 만들고 이 물질은 인간을 관능적 향락 추구로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물질 추구와 관련이 없는 활동은 하지 않거나, 한다 해도 체면 유지의 요식 행위로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이다. 즉 오늘의 사회는 관능적 향락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획득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강도, 살인, 성폭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는 점차로 흉악화, 지능화, 연소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인류본연의 모습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며 돈 생기는 일과 관련이 없으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봉사 활동은 돈과 관련 없는 활동이기에 심지어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데 돈의 무조건적 추구도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일 '나와 더불어 남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면 아마도 이 사회는 보다 밝은 사회로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회악의 근원은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심지어는 남도 내가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마음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남이 괴로워하거나 남에게 손해 되거나, 남이 비참해지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보 전진하여 남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며, 남이 좋게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림 · 이준석

남 위해 봉사하면 만족감도 얻고 자기성장도 가능 보시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인성교육

"나와 남 더불어 산다" 인류번영의 기초 봉사생활 향상일로 무주상보시 도달

으로 되돌아가서 인류번영의 기초를 닦는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인류에게 부과된 지상과제이다.

나는 이 과제를 모든 사람에게 봉사 정신을 심어 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봉사 정신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하겠지만 두 가지의 속성 없이는 봉사라고 말 할 수 없다. 그 하나는 봉사는 돈을 받지 않는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 활동이다. 오늘날의 도덕적 위기의 조성은 모두 '돈'과 '나만을 위한 것'에 관련되어 있다.

우선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사회의 비리, 가족간의 반목, 직업의 위계순위 등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 원래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창안되었으나 점차로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인간활동의 모든 부분

물론 '나'는 지극히 소중한 절대적 존재이다. 그러나 나의 소중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깨는 다면 남의 소중함도 또한 믿어야 한다. 이 점이 바로 봉사 정신의 기본 철학이다.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대아(大我)에 소아(小我)를 통합시키는 것이 봉사 정신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불자로 자칭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느 정도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이 나라에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종교 단체들은 포교의 목적을 겸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을 중심으로 또는 불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성화된 봉사 활동은 어느 정도 전개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돈 없고, 병 들고, 헐벗고, 나이 많고, 몸이 부자유스러우며,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모가 없고, 죄 지은 몸이 된 자 옆에는 항시 다정하고 따뜻하며 정감어린 불자의 자비의 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봉사 활동은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시간 빼앗기고, 돈도 생기지 않는 활동이나 그러기에 불자로 자처하는 우리들은 이 일에 뛰어 들어야 한다.

봉사 활동은 남을 위한 활동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철저히 나를 위한 활동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남을 위하여 일하면 일한 만큼 자기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기성장이 이룩되면 그만큼 남을 위하여 더 일하게 되고 이것은 더욱 더 자기성장을 가져온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선순환(善循環)을 향상일로(向上一路)라고 말씀하셨다.

향상일로의 길을 걷다 보면 남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마저 없어지게 되며 봉사한다는 자체가 남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 때문이라는 자리(自利)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이타(利他)의 마음으로 시작한 활동은 자리(自利)가 되고 자리는 향상된 이타를 가져오며 이 이타는 더욱 향상된 자리를 낳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리가 이타이며 이타가 자리가 되어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보시(布施), 즉 진제적 보시(眞諦的 布施)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어야 한다고 한다. 봉사활동이 남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기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떠나 심지어는 봉사한다는 생각마저 떠나며 떠났다는 생각 자체가 없을 때 참다운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다는 일반적 개념에 의한 봉사 활동은 보시(布施)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경지는 오랫동안에 걸친 불교적 봉사 활동과정을 거쳐 비로소 도달될 수 있는 경지이다.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 가며 남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에 도취하는 속제(俗諦)의 수행을 거듭할 때 진제적보시(眞諦的布施)의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속제적보시(俗諦的布施)인 주상보시(住相布施)와 진제적보시(眞諦的布施)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불이(不二)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흙탕물이 모든 것을 삼킬 듯 성난 모습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우리 불자는 이 흙탕물을 맑게 할 보시의 굵고 굵은 새물결을 흘려 보내야 한다. 진제적무주상보시(眞諦的無住相布施)를 간직한 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 활동을 전개하자.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동물의 왕' 사자는 불교에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위대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자후(獅子吼)'.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이 마치 백수(百獸)의 왕인 사자가 한 번 포효하면 숱한 짐승들이 굴복해 따르는 것과 같음을 비유하는 용어이다.

후(吼)자는 '사자 우는 소리 후'자로 〈유마경〉 불국품(佛國品)에는 '법을 연설하여 두려움 없기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 하고 (獅子吼) 보살이 강설함이 우레가 떨치듯 하며…'라 하여 대중을 압권하는 듯한 법문을 사자의 포효에 비유하고 있다.

그밖에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사자좌'라 하고,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사자보(獅子步)'라 한다. 사자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하고 겁이 없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남을 비유해 '사자심(心)'이라 하며,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하고 누워서 발을 포개고 가사로 몸을 덮고 바른일을 생각함을 일컬어 '사자와법(獅子臥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리된 사자의 비유와 불법의 상징 중 가장 체계적인 것은 〈보우경(寶雨經)〉이다.

〈보우경〉은 사람이 불법에 따라 여법(如法)하게 수행하는 보살을 사자와 비유하였다.

숲속의 왕 사자는 모든 짐승들이 굴복하므로 숲속에서만은 두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고뇌로부터 벗어나 두려움이 없는 보살의 힘을 '득불경포(得不驚怖)'의 힘이라 하여 사자의 위력에 비유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요즘은 큰스님이 주시는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시종일관 열변을 토하는 연설이나 거침없는 웅변의 경우에도 '사자후'라는 표현이 자연스레 통용되고 있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사자후

대중을 압권하는 큰스님 법문 백수의 왕 사자의 포효서 비유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 한 방 암 정 보 ◆
02)700-6366

◆ 그린파워녹즙기 ◆
길동 02)470-3102

◆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이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시후 이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특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허림리 우계동 보은암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 (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많은 문의 바랍니다.

박삼중스님의
금강경 강의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강의
●위치 : 대구 수성구 매호동
자비정사
053)793-0268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릉 지 사
0391)43-5599

전 워커힐 신라 피아니스트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 · 찬불가요 · 찬불동요)
⊙ Jazz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 · 팝송 · 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 생 활 역 학 ◆
개인지도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법화강의안내
천하도인 황무제께서도 육신통과 금단식으로 팔백년을 장수한 기도날인 음10月15日 庚申日 정오시에 천문이 열리며 천가지 복을 받은 12~1시30분까지 四柱강론으로 수명장수, 부모형제자녀 체질과 질병, 길흉화복과 부부의 運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오행법 강의.
두루 동참하시어 본인의 주변을 봉사하고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입제일 : 음10月14日 해시 입제
◆ 해제일 : 음10月15日 해시 해제
◆ 회 비 : 1박2일 5만원(침식제공)
직통 02)821-6622 야 02)923-3110
012)1786-3112 017)236-3110
육경신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관 구인·구직 관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동 두 천
0351)867-4132

천년고찰에서 기도정진하며 사실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1-24
중화사 주지
0414)42-2057

◆ 기도객 받습니다 ◆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사업에 동참하실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저는 진실하게 살고있는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로서 채산성이 확실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무역업, 제조업:특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와 아울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에는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여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사업에 동참하실 재력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 02)548-8822(09:30~17:00)
호출 : 012)875-4657(주 · 야)

◆수양 · 공부 · 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주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금강경 10쪽 병풍 법보시 ◆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명 108직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 보련각서점 ◆
견지동 02)733-9537

◆ 예 진 솔 ◆
견지동 02)736-5160

◆ 견지불교사 ◆
불교서적 · 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 大 福 田 ◆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 여 래 사 ◆
견지동 02)730-6939

◆ 太成佛敎社 ◆
불교 · 단청 · 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
목발우 · 제기 · 다기잔
· 소반 · 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팩스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佛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살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 사 찰 안 내 관

전국 사찰부지 · 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68-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밑
◇ 평 수 : 대지 45평
◇ 가 격 : 1억 2천만원
◆ 요사채는 신식시설, 방2개(거실 15평)
◆ 사정상 급매
02)914-5447
02)911-1319(直)
011)271-066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도심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 평 수 : 40평 (옥상사용가)
◇ 가 격 : 2,500만원(보증금포함)
◆ 사정상 급매합니다.
02)423-18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영천 고경부근
◇ 평 수 : 임야 1만평중
- 대지 4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용왕각 4평
- 석불 입상불 (5m) 요사채 40평
◇ 가 격 : 절충가능
◆ 황수탕 약수 유명
011)819-0803
012)483-1798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 평 수 : 50평(건물에 옥상 있음)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절충가액 2,500만원
※ 월세 35만원
◆ 기본 삼존불상 있고 부처님 오백불 봉안됨
053)614-9974
012)1171-7935

암자 (전원주택)
◇ 위 치 : 경북 청도
◇ 대 지 : 208평
◇ 97년 신축-주택 30평, 창고 36평
◇ 가 격 : 9천만원
◆ 특 징 : 100m 지하 암반수 교통 경관 좋고 마을에서 떨어져 있음
※ 인접토지 확보가능
0542)71-0847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경북 김천(계곡좋은 유원지)
◇ 종교용지 : 580평
◇ 건 물 : 28평(임법당외 10평,기타10평)
◇ 가 격 : 1억 8천
◆ 스님에 한하여 1억 5천까지 알도가능 (가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많은 조정안됨)
단, 뜻을 같이 한 불자로서 투자한 금액만큼 이곳에 투자하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실 분이 계시면 집건후 매각하지 않고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기 바람.
0547)437-4135~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합천
◇ 평 수 : 대지 300평
◇ 건 물 : 법당 22평, 요사2동, 방4칸
◇ 가 격 : 8천만원
0599)34-0076
011)847-0076
※ 법화행자 우선

사찰임대안내
◆위 치 : 대구시 대명동 교통중심지
◆부 지 : 170평
◆법 당 : 20평 / 요 사 : 20평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
◆보증금 : 3,000만원 / 年500만원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하고 이사비용만 받고 임대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可)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부지 안내
◇사찰부지 : 3,000평
◇매가 : 2억1천만원(평당 7만원)
◇위치 : 월악산내(바위산으로 둘러쌓여 기도처 및 불교 수련원으로 최적지)
◇내용 : 도로및 건축허가 내어주는 조건임.
◆ 사찰부지 3,000만원에서 2억까지 사찰 3,000만원에서부터 전국 어디든지 원하는 곳 좋은 인연 맺어 드리겠습니다. 연락한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0371-762-0101
011-466-1802
012-397-6003
천운개발 한 상 철 합장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및 포교원 명 당 부 지
◇ 위 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과크호텔 정문에서 2 · 3분 거리)
02)379-8404, 8425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 종 공 고 관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사찰명 : 천 불 사
■주 소 :
경주시 양남면 석음리 261-2
■주 지 : 혜원 천 태 용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 11.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동 성 방 화 랑 ◆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정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종목 / 직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스스로 제 발목 묶으니 苦 따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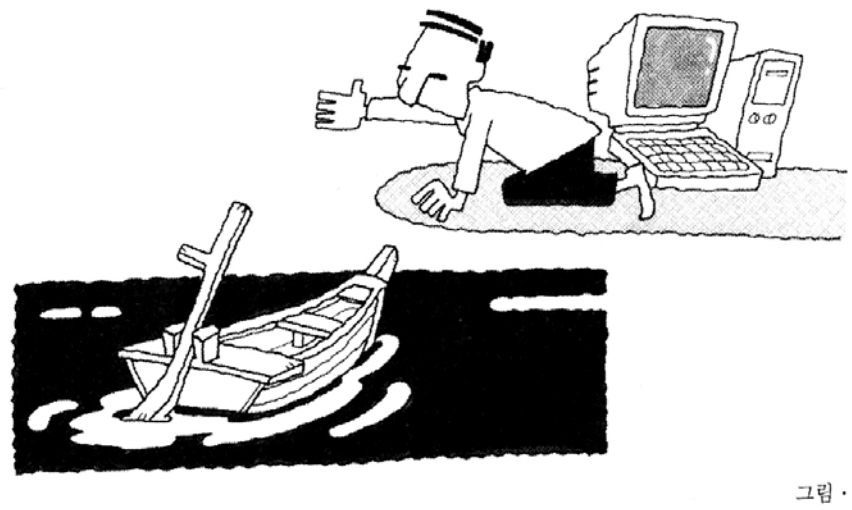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해요"

지극하고 간절히 관하면 뿌리에 영양 주는것

점안식을 하는 이유

문 부처님을 모실때 점안식을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집에서 불상을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에선 안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점안식이란 얕은 물에나 깊은 물에나, 얕은 물에는 배를 적게 만들고 깊은 물에는 배를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 집이 되지 않고 주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개인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사불(邪佛)이 되죠. 점안식을 하는 것은 사불도 침범 못하고 일체 만물만생을 건지는 사이없이 건지게끔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누구나 부처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무명에 가려 자기를 보지 못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둘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 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그 생명체들이 있는 반면에 이 몸 하나가 한 개체로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조복받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내 이 몸뚱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부처님도 계신 거니까 나부터 발견하는 것이 원칙이죠. 나의 근본!

저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없이 사는 거 못 보셨죠? 자기가 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여러분들의 한 몸 한 개체가 바로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들이 공심 공생 공체 공용 공식으로써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주처를 모르고…, 주인공(主人空)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주인공' 이란 것도 이름입니다. '불성' 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부처' 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고 상대가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들 생활 속에서의 일거수 일투족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하는 전부가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지, 자기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예요. 자기 몸뚱이는 그 생명들의 집합소죠. 그 생명들의 집합소에서, 예를 들어서 내 속의 생명들이 '나 목 마르다' 하면 물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겁니까? 어디 내가 먹은 게 따로 있겠습니까?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앞으로 할 것도 없고, 죽는다 산다 할 것도 없고, 지금 모두가 공해서, 즉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그냥 나툴 뿐입니다. 나툰다는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행하다가, '여보' 하면 남편이 돼서 행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로서 행하는데 어느 때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나라고 할까요? '아들아' 할 때 나라고 할까요? '여보' 할 때 나라고 할까요? 나라고 할 게 없느니만큼 고정되지 않게 그냥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고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보는 그대로 있습니까? 들으면 듣는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또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거 들었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걸음도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지고 이러는데, 어찌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 사는 게 말했다 하면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말했다 하면 그것도 이미 바람같이 날라가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람같이 지나가고, 봤다 하면 바람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생 전도 과거이며 어제도 과거이며, 바로 앞 1초 전도 과거로 돼 버렸습니다. 하나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道)가 붙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걸어올 때도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또 한 발짝 없어집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내가 고(苦)가 있다, 팔자 운명이 있다, 나는 깨우치지 못한다는 등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고정되게, 발목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苦)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고가 없고, 그 고라는 이름마저 없는 뜻을 알겠습니까? 내 몸 하나 내버리면, 즉 내 몸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저 강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또 지옥이 없는 줄 알아야 하고 불바퀴가 없는 줄 알아야 거듭거듭 나지 않고 홀랑 다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깨우치진 못했어도 모두가 나의 몸뚱이 속에 있는 거와 나와 둘이 아니라고 볼 때에 조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점점 지혜가 늘어서 둘이 아님을 알게되면 내가 없는데 어찌 강이 있으며, 강이 없는데 건널 배가 어디 있으랴, 이런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없는데 불이 어디 있어 타 죽으며, 또 내가 없는데 어떻게 강에 빠져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이 모두를 다 아시게 되면 그래도 그 반야줄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는 보살들이 응신으로서 응해주십니다. 이 보현보살이란 행은 항상 용무로써, 평등공법으로써, 항상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했다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며는 문수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화신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했으니까 몸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켰으니까 움죽거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될 자격이 99%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수인행을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귀가 트이고 눈이 뜨이고, 한 발을 떼어놓지 않고 움죽거리는 사이없이 움죽거린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대로 수인행인 것입니다. 그대로 다 한마음으로 인해서 한바다 가운데서 해인을, 해인의 인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행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사불(邪佛)을 만들지 않고 진짜 여래 부처 법신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부처님 상을 모셔놓고 물떠다 놓고 빌고 향 피워놓고 초 켜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응사돼서 그 부처님은 사불이 됩니다. 내가 없다면 부처도 없는 것이기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자불을 믿고 관해야지 그 형상에다 절을 하고 매달린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서 이젠 그만두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자손대까지 물려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의존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공덕이란 건 맛불래야 맛볼 수도 없고 더구나 깨우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구니 소굴을 만들고 부처님을 사불을 만들어 놓으면 세세생생 좋은 일이 못되죠.

우리 정수에는 항상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전에서는 정수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그게 깃대 아닌 깃대로서의 상투를 바로 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못났든 잘났든 다 자기 컴퓨터가 있어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되었던게 현실에 자꾸 나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입력이 되면 과거는 돌아서 현실로 오고, 미래가 과거로 됐다가 또 현실로 옵니다. 연방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삶을 살고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죽거리는지, 어떻게 내탓으로 돌리는지, 이런 모든 마음의 차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입력된 것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현실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쁘게 나오면 '너만이 좋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좋은 것이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7)

짝발인 채로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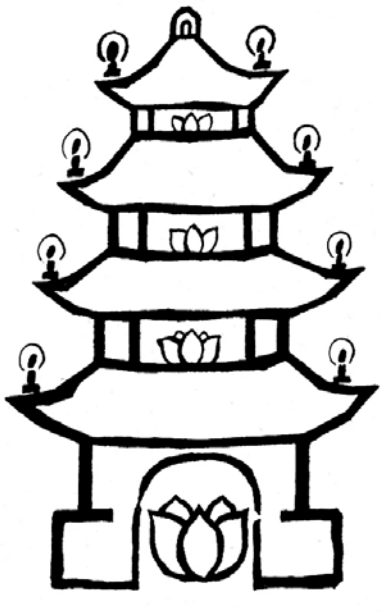
"자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아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돌아볼수록 미묘하여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요 슬기로운 마음인 것이니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라는 껍질이 하나 하나 벗겨져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의 벽이 사라지게 된다.

매사에 나를 앞세우는 그 아집을 발견하라. 발견해야 벗어 버릴 수 있다. 내가 나라는 그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아제 아제 바라아제'의 그 강도 건너지 못한다. 불바퀴도 넘어서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 내 생각, 내 입장 속에서 살고 있다. 내 말이 남의 말보다 옳고 내 생각이 남의 생각보다 바르고 내 입장이 남의 입장보다 더 방정(方正)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목소리는 커지고 내 생각은 고집스러워지며 내 입장은 성곽처럼 단단해 진다. 그 결과는 언제나 논쟁 갈등 싸움으로 이어진다. 어느 한 쪽이 양보 · 하심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다.

고로 나를 앞세우는 일은 내 손으로 내 앞 길에 고 · 번뇌를 쌓아놓는데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따르고 내 생각대로 받아주고 내 입장에 동조해 달라'고 요구한들 상대가 순순히 들어줄 리 없기 때문이다. 아니, 들어주기는 커녕 거꾸로 똑같은 것을 요구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앞세우면 세울수록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관계가 될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 · 번뇌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앞세우는 길은 가면 갈수록 좁아져 마침내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나를 버리는 길은 덤불에서 벗어나 신작로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는 내 모습을 돌아보려하지 않는다. 내가 옳고 바르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할 여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간혹 나를 되돌아 보는 경우라도 생각은 어느새 나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만다. 그래서 아만 · 아집은 발견하기도,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마치 숨은 그림찾기 처럼 시선을 집중해서 살피지 않으면 단서조차 발견하기가 어렵다. 미묘한 것이다.

아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해도 그것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생각 돌리기 나름으로 아만을 벗겨낼 수 있다.

우선 내 눈높이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그것이다. 내가 높직이 올라 앉아서 상대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아래로 내려가 더불어 지내면서 차츰차츰 상대를 위로 이끌어 보라. 거기에 무슨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겠는가. 있다면 동반자로서의 삶이 있을 뿐이다.

혹은 내가 그가 되어주는 마음의 보시를 해보는 일이 그것이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일은 나의 아만에게 고개를 들고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내가 그가 되어주는데, 내가 일단 그에게 맞춰주는데 나라는 생각이 어느 틈이 있어 끼어들겠는가.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입장이 되어서 사물을 살피면 나의 아만은 양식이 떨어져서 서서히, 서서히 굶어 죽게 된다.

벽은 사라지고 장애는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이다.

두 발이 가즈런해야 바로 걷게 된다.

두 눈이 가즈런해야 똑바로 볼 수 있고 두 귀가 온전해야 제대로 듣게 된다.

나와 너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서로의 마음이 가즈런히 맞아야 한다. 그래야 둘이 둘 아닌 줄 모르게 마음의 궁합이 딱 맞아 돌아갈 것이다.

짝짝이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집을 수 없다. 짝짝이 신을 신고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짝발 짝눈 짝귀로는 제구실을 다 할 수 없다. 한 쪽이 한 쪽에 맞춰 가즈런해져야 제 기능, 제 구실을 하게 된다. 부부간, 부모자식간, 이웃간, 직장동료간…, 어디에서나 그렇다.

제각기 서로 다름을 자랑삼고 견주고 경쟁해서는 결코 편안할 수 없고 잘 달릴수도 없다. 아만은 '제 잘난 맛'인데 제 잘난 맛은 그 뒷맛이 언제나 소태 맛이다.

상대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느 경우에든 너와 나가 '2인 3각'으로 뛰게 되어 있다. 제 잘난 맛을 고집하면 쓰러진다. 달릴 수 없다.

협 찬 : 소 충 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 한 생각에 열두지옥 다 무너져"

☞ 17면에서 계속

나오면 '감사해' 하고 그 자리에다 놓으세요. 자기 자부처를 높이 보지도 말고 얕게 보지도 마세요. 과거 수억겁 광년을 거쳐온 자기며, 바로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며, 자기를 진화시키는 자기며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모습과 권리와 삶을 가져나오는 자기 부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 다 맡기고 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지금 좋은 생각으로써 입력했던 것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진리이며 또 그렇게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 저 옥수수나무로 비유하자면 자기 뿌리에게 '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 쓰러지면 안되니깐 뿌리를 깊게 박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한다면 옥수수나무가 생각하기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자기 뿌리가 약해져 쓰러지게 되니까 넓게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깊게 박습니다. 옥수수나무조차 그러할진대 하물며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이 돼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한대서야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나무에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물을 먹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줄기와 잎을 싱싱하게 잘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근본뿌리가 있어서 밖에 보이는 잎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뿌리에다가 믿고 관하라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닥쳐오는 문제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 하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관한다면 뿌리에 영양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관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도 마음으로는 가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기에 마음으로 고장난 건 마음으로 풀어야 되죠. 내가 진실로만 관한다면 반드시 통신이 됩니다. 마음으로 화합이 안되는 것을 그걸 모르고 욕하고 때리고 또 그 몸뚱이를 잡으려면 아니되죠.

그럴 때도 '오직 너만이 저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다 자꾸 관하면 그 쪽 주인공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것도 한순간에 녹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집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집에 들어오질 않더랍니다. 그러니 속이 상해서 나더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절대 바깥으로 아들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서 "주인공, 너만이 아이가 들어오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와도 "요놈의 자식, 망할 자식, 어쩌구…." 하지 말고 "밥이라도 먹었니? 춥지 않았니?" 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라고요. 그랬더니 어느날 그 아이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들어오더니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뭐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어머니가 하고 있던 일을 빼앗아 김칫독을 죄다 닦아주더랍니다. 내가 무슨 말할려고 이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오고 싶어야 몸이 오게 되는 거지 마음이 오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몸이 와 집니까?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마음에서 저지른 잘못도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잎이 병이 들어도 그 원인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부터 살펴보고 에너지를 줘라 이런 소립니다.

"인생이란 그저 한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과 모습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신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사는 걸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 어떠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고 또 미래가 과거가 되면서 현실로 오는 거니까요. 모든 걸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마세요. 인생이란 그저 한철 사는 겁니다. 한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권리와 삶과 차원과 또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중천세계이니까 상천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천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천세계에서 잘못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지거나, 차원이 높아지면 상천세계로 올라가는데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천세계와 중천세계와 상천세계가 따로 없이 찰나찰나 그냥 함이 없이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한 발 옮죽거리지도 않고 이 세상만사를 둥글게 두루, 여러분이 진실하게 관할 때는 아니 돼주시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관할때도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해 주시오' 하면, 남한테 의지하는 것이 되므로 기복이 돼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너만이 할 수 있다' 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더러 하는 겁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거울에 비치는 것이 당신 모습이지 딴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것도 환상이예요. 그러나 마음은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뚱이 속에서 천차만별의 의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또는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런 것이 모두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즉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 모두를 닥치는 대로 누가 아프다 해도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자기 나무가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나무가 저 나무에게 에너지 좀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에너지가 오지 않아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자기 싹을 도울려고 에너지가 베풀어지죠.

이 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공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공체며 공심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은 게 없고, 혼자 본 게 없고, 혼자 들은 게 없고, 혼자 움죽거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두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열두 지옥을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열두 지옥을 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많으며 또 이렇게 한 생뿐이 아니라 억겁의 광년을 지나도 다 못 지나니,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두 지옥을 넘을 때에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내 한생각에 지옥이 다 무너집니다. 또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찌 물이 있으며 물이 없는데 어찌 배를 건넌다고 하겠으며 내가 없는데 어찌 지옥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없는데 뜨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아신다면 그냥 살아서 구경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소립니다. 살아서 구경의 경지가 안되면 죽어도 그건 못하는 겁니다. 살아서 열반이지 죽어서 열반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모두가 이 마음의 도리를 몰라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서 두루 퍼지지 못하고 통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몸으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어떤 세계라도, 또 과거 미래 현재도 다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찰나에 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량의 생각으로 통할려고 하니까 그게 통해집니까? 일체제불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우주가 다 통신이 되는, 즉 말하자면 자가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 통신을 하고 에너지를 배출하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정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에 관하면 대뇌를 통해서 정수로 가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가지고 나올 때는 바로 대뇌를 통해서, 또 사대를 통해서 이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들이 움죽거리게 만듭니다. 이 모두가 심성과학이자 심성의학이자, 심성천체물리학도 되고 심성철학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과학이 발전이 됐다 하더래도 사람들이 만든 거지 딴 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면 기운이 없고 쓰러지듯이, 마음에도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컴퓨터에 입력을 안해놓으면 나오는 게 없죠? 또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아주 나쁜 것 또는 더러운 구정물만 있을 때는 그것이 풀려나오면서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구정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진 않으시죠? 그렇게 안 하실려면 모든 것을 '구정물이 나오는 것도 거기니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되놔야 통신이 되죠. 구정물을 새물로 바꿔 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연히'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잘 되면 '아, 이것도 우연이야' 하지만 '우연히'는 없어요.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받는 것이죠. 누가 행복을 갖다주거나 뺏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만이 행복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내 행복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지런히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누가 대신 깨우쳐 주고, 먹어주고, 똥눠 주고, 잠 자 주고, 아파 주고, 죽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살 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또 한가지 얘기할 것은 자식들과 남편을 등한시하고 절에 나와서 좌선한다고 야단들 하는 사람, 절대 그건 안됩니다. 한 시간을 앉았어도 그건 참선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행선이요, 서서 걸어갈 때는 바로 입선이요, 드러누워서 잘 때는 와선이요, 앉았을 때는 좌선이요, 이렇게 행선 좌선 입선 와선 이것이 다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것입니다. 바쁘게 뛰면서도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만 앉혀놓는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육조스님이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대로 여여한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만법을 들고 내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도 안으로 입력이 되게끔 걷기다가 꼭, 잘못된 건 '잘못되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이나 태양의 근본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고 한 것처럼 일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한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 한마음이란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해주시오' 남한테 의지하게 되면 기복이므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누가 내행복 대신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환생했다면 제사는 왜…

문 3대 조상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불교에선 윤회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사를 모시는 조상님들이 혹시 환생하셔서 이 시대에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조상과 전생의 후손과 지금의 내가 공존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깨우쳤다고 함이 없는 분이라면 '윤회가 있으라'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조상분들이라 해도 체가 없고 나 또한 체가 없는 근본 마음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 제사란 내가 나한테 올리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모르면서 제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삶의 도리와 조상님들의 은혜를 알게 하겠습니까? 도덕과 교훈은 어떻게 알게 하고요?

제삿날을 잊지마시고 자손들도 잊지 않게 하십시오.

물 한그릇, 초와 향, 둥근 떡 하나면 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게 아닌 환상의 생활이지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까닭에 나도 없고 조상도 없는 것을 아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

문 어머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얼마전에 아들을 잃고 슬픔을 못이겨 하시다가 간절한 정성으로 천도재를 지내셨습니다. 그후 여동생 꿈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온 식구가 문병을 갔는데 하얀 이불보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곧 나갈텐데 뭐하러 왔느냐?' 하더랍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입원할 때와 달리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하더랍니다. 스님, 답을 청합니다.

답 꿈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텐데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닌데…. 그리고 꿈을 꾸던 한 생각 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나' 만들고 진화시키는 자기부처 바로 봐야 "몸은 바쁘게 뛰면서도 마음은 좌선해야죠"

협찬 이정근 · 최현순 · 신병욱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1-242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청소년 봉사활동 '소극적'

◇자원봉사조직과 프로그램개발, 전문성의 제고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유도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고등학생 사회봉사활동이 의무화, 평점화되면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고조됐으나 실질적인 활동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불자들은 그 이유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인식 부족, 종단차원의 경제적 지원 등을 꼽았다.

박경일교수 서울·부산지역 279명 설문



전문지도자 없고 인식부족 주 요인
프로그램 개발·자리이타교육 강화

이같은 사실은 동국대 박경일교수(사회복지학과)가 14일 현성정사에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청소년지원지도자 연수교육에서 발표한 '불교 청소년 지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96년 1월 서울, 부산지역의 청소년 청년 법회 불자 2백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과반수(165명)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4%가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부족'(37.8%)과 '불교계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지도자 전무'(24.4%) '원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홍보 미비'(11.9%) '재정부족'(10.6%)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인간구제 사상을 실천하는 불교자원봉사활동이 실생활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그에 따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23.8%) '대중매체나 법회를 통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19.3%) '종단차원의 지원'(17.3%)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유경험 응답자는 42%가 종단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함을, 무경험자 50.6%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우선으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무주상보시관, 자비관, 생명존엄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박교수는 "불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불신일소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불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에 따른 불교자원봉사 조직프로그램, 인력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수탁운영 청교련 논산지회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대전에 이어 논산에도 문을 열게 됐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논산지회(지회장 성공스님)가 18일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한 것.

논산지회의 충남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교련 대전지부에 이어 불교계에서는 두번째로 위탁운영하게 된 것으로, 타종교에 비해 열세에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천안 YMCA·YWCA, 한국보이스카웃 충남연맹, 한국청소년마을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 5개 청소년관련 단체와 경합을 벌인 끝에 얻은 쾌거에서 청교련 논산지회의 지역적 입지를 굳힌 계기가 됐다.

지회장 성공스님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수행과 함께 센터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단 신

정신대할머니에 점심공양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2백90차 수요집회에 참석한 정신대할머니와 관계자 20여명을 여불련 사무실에 초청, 점심 공양을 했다.

이에 앞서 여불련은 이날 집회에서 '일본은 한국정신대 할머니에게 자행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역사앞에 참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청소년보호법 준수 당부
인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천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스님)은 13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유흥업소회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각 단체의 입장과 영업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 365일 〈6〉 은행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환절기나 겨울의 문턱에 서면 태음인 체질의 사람들은 쉬 떨어질 줄 모르는 감기로 고생을 한다. 말쑥한 양복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는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콧물과 기침 때문에 낭패를 봤을지도 모른다.

태음인 체질은 감기가 들었다 하면 기침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래가 끓고 숨이 찬 천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등 각종 공해물질이 심한 요즘에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기 일쑤다.

〈동의보감〉 약성가에 의하면 해소 천식을 진정 시키는데 좋은 은행을 소개하고 있다. 은행은 또 주독과 여자의 대하증을 호전시키고, 폐장의 탁기를 맑게한다.

특히 은행은 폐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라는 장기는 맑은 산소를 흡수하여 피속에 공급해 주고 탁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몸안의 피를 정화시킨다. 피가 정화가 안되면 담이라는 일종의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이 담이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끼게 되면 기관지염, 천식이 유발된다.

또 우리 몸의 신경순환과 혈액순환을 총괄하는 원천적 생체 에너지인 산소라는 기를 폐장이 심이경락이라는 기의 통로를 통해 전신으로 유통시킨다. 그 기가 순환이 안되면 동시에 피가 순환이 안된다. 따라서 혈담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관을 막게 되고, 이는 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해소·천식·혈액순환 개선
살구씨와 함께 끓여 복용

동맥경화 중풍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제약회사에서는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이름으로 은행잎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한 약들을 많이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가을에 은행잎을 모아 씽크대 안에 넣어두면 바퀴벌레가 없어진다. 은행나무의 강력한 살균작용 때문으로, 대하증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복용량은 하루 은행 열개에 살구씨 열개를 끓여 먹으면 적당하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같아 부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양(利養)을 탐하여 구하고, 거짓으로 청렴한 체 조용한 곳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오욕의 쾌락에 끌리어 스스로 애욕의 밧줄로 얽어맨다 마치 하인이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道品인 재물을 잃고 마는 것과 같이...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 팩스
02-375-4143

불자 세상보기

위기의 한국 "신뢰의 끈 다시 묶자"

정치 · 경제 · 사회 등 곳곳에 불신투성
"되돌아보고 추스릴 때 희망 생긴다"

국제사회에 돈을 빌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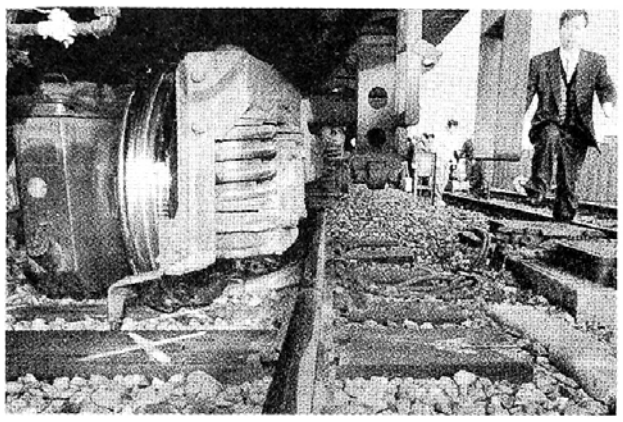
그런계 지금의 우리 사회는 금융, 경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사고를 내고 있다. 전동차수리용 화차가 레일에 방치돼 기관차와 부딪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났다. 자동차세의 유용 · 횡령, 공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로 땅투기에 나섰다. 보험금을 챙기려 부인을 살해하는 극악한 인륜파괴를 보고 있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서는 절로 한숨이 나온다. 인권과 금융개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날림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뒷전으로 밀어놨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국가의 내일을 짊어지겠다고 목청을 돋군다. 선거판은 고소 · 고발전으로 얼룩졌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의 대변인은 정치공해를 뿜어내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같은 느낌을 준다"는 독설에 쾌감을 느껴야한단 말인가.

시민의 발은 안전을 의심해야 하고, 국민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이 후보들의 공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36년 동안이나 고정간첩 활동을 해왔듯 '두 얼굴'의 세상에 살고 있다. 최근의 각종 사건 · 사건의 원인은 우리 사회의 심리적 공황에 기인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 후유증은 국민들 사이의 불신의 벽을 높인다는데 있다. 말 그대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신뢰의 끈은 토막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희망마저 버리지는 말자는 호소가 아닐까. '백 투 더 60년대'란 말이 과장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불안과 국가적인 정체성의 상실을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은 비관적일지라도 미래는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신뢰를 불어넣어줘야 할 종교계도 너무 정치놀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추스릴 때이다.

정성운 기자



◀각종 사건 · 사고는 그 자체보다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데에 심각성이 있다. 멈춰선 지하철은 시민불안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종교의 눈 믿고 존중해야 번영한다

〈장부경전〉과 〈장아함경〉에서는 나라가 번영하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의 우리 국민 모두에게 들려주는 경책이기도 하다. "모임이 잘 되고 있는 동안은 번영이 기대된다. 그들이 의무를 훌륭히 다하고 있는 동안은 베살리(옛 인도의 한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번영한다.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고, 부녀자를 보호하며, 조묘(祖廟)를 공경하고, 성자를 존중하는 동안은 번영한다. 쇠망할 일은 없다."

사람 사이의 불신에 대해서도 경전에서는 경책하고 있다. "의심많은 사람은 온갖 세간 · 출세간의 일을 무엇이나 이루지 못한다. 가르침을 의심하면 배울 수 없으며, 스승을 의심하면 공경하여 따르지 못하며, 스스로 의심하면 배울 때가 없다."〈성보론〉

이슬람원리주의자 관광객 테러

70여명 사상…반인류적 범죄 '세계 경악'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살육사건이 벌어졌다. 이집트의 세계적인 관광지 룩소르에서 17일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가 발생해 온세계를 경악케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집트의 최대 반정부 이슬람근본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그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테러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한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살상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반인류 범죄행위다. 이번 테러도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을 '배교자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슬람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하단체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슬람그룹이 관광객들을 테러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년 35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관광산업이 무바라크 정권을 지탱해주는 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이집트 방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종교언론 타종교 보도 신중하게"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언론인 '결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언론인 30여명은 15~16일 경기도이천 설봉호텔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심포지엄을 갖고 타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종교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종교간 갈등해소 △사랑 자비 등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키 위해 공동실천방안 강구 △타종교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보도를 통해 상호 대화와 화합을 지향 △종교언론의 질적 향상 추구 △종교계신문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공동기구 구성은 불교기자협회를 비롯해 각 종교언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문체부 실무대표들이 이후 모임을 갖고 진행키로 했다.

월드컵대표팀 불우축구인에 성금

월드컵 본선 4회연속 진출을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상금 일부를 불우축구인돕기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차범근감독과 선수들은 15일 대한축구협회가 지급하는 포상금을 받는 자리에서 "본선진출은 선배들의 땀이 밑거름이었던 만큼 후배로서 조그마한 정성을 표하자"고 뜻을 모아 1인당 1백만원씩 3천만원을 모았다.

'의학계 에디슨' 모교 10억 기증

세계 의학계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윤인배박사(61 · 미 존슨&존슨사 부설 외과연구소 객원교수)가 최근 모교인 연세대를 방문해 의과대학 발전기금 10억원을 기증했다. 연세대는 이 기금을 내시경수술 연구센터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윤박사는 64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의학기술 관련 특허를 1백50여개나 취득했다.

폐수처리 획기적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수질환경연구센터와 촉매화학연구실이 난분해성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18일 이 시스템을 염색폐수처리장에 설치해 실제 폐수를 처리한 결과 유기물과 부유물은 90~95%까지 처리됐고,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 제거율도 기존의 방법보다 4배나 향상됐다고 밝혔다.

경찰, 음주감지기 사비구입 말썽

성남 분당경찰서가 음주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사비로 음주감지기를 사도록 지시한 사실이 18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 경찰서 소속 9개 파출소에서 개당 15~20만원씩 하는 음주감지기를 파출소마다 2~3개씩 구입했다.

주민대책위 쓰레기반입 수뢰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수도권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폐기물처리업체들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반입이 어려운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대책위의 비밀장부를 압수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두부에 발암물질 섞어 제조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두부에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이 섞인 사실이 드러나 18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ㅁ · ㄷ식품은 두부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뒤 이를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관내 80개 두부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생활정보

가정폭력 3자 신고로 처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제삼자의 신고로도 형사처벌된다. 또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를 알게된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의 대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예방 비디오 출시

초등학생,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방안을 안내한 비디오 드라마 '꿈이 있는 교실'이 시리즈(8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감수)로 제작돼 출시됐다. (02)233-6751

이렇게 들었다

소각 쓰레기중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이 절반을 차지, 보조연료의 사용량을 높여 다이옥신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각장에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로 절반에 이른다. 환경부가 최근 음식국물의 오염도와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된장찌개 한컵은 물 7백50리터 △위스키 한잔 물 3천리터 △커피 한잔은 물 1천8백리터가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경전의 '음식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음식 발우 씻은 물도 함부로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맛 없는 것이라고 싫어하지 말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불유교경〉

▨풍미한 음식을 보면 마음을 경계하고, 무미한 음식을 보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화엄경〉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養生)을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에서는 속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일체루경〉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남의 신시(信施)를 받고도 다시 저축하기를 구하며 의복과 음식에 만족할 줄을 모르지만 사문 고오타마는 그러한 일이 없다. 〈범동경〉

▨비구도 또한 그와 같아 6근(根)의 말을 몰고 안온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족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마주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 · 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수행자는 옷입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옷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밑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타경〉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집아함 시하득대령경〉

새상품

'이뭣꼬 98'

윈도우 95에 사용할 수 있는 사찰 관리 프로그램 '이뭣꼬 98'이 출시됐다.

체계적인 신도 관리와 불교계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이뭣꼬 98'은 '신도 가족사항' '연등 접수 현황' '법회 동참 횟수' 등 10여가지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마우스와 리더기를 이용한 입력 방식, '한글 96' 'MS 97' 등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등 여타 기능도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우수하다.



간편한 초기 작업만으로 사찰의 특성에 맞게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가격은 발송비 포함 3만원.

정보기획 서명 (02)3392-1622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뷔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

시 론

참으로 딱한 세상



한 복 룡
〈충남대 법대 교수〉

김영삼 문민정부가 국민의 실망과 경제를 비롯한 총체적 사회 위기감 속에 저물어 가고 있다. 새로 나타난 대통령후보들도 국민의 마음을 잡기는 커녕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근본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인은 물론 우리 고두가 우리 스스로를 존엄하게 대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갈지자걸음'

선진국들은 다가오는 21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움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 교육, 교통, 가족, 기업, 삶의 질,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류의 살아온 삶과 역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되돌아 보고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필자가 보건대 이러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모두 인간이 어떻게 존엄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 가치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정치인들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근본사상을 이해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어쩔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국민의 나아갈 방향과 자신의 처신방향을 정했으면 한다.

우선 우리들은 우리의 현대사가 일제식민통치와 오랜독재, 그리고 6·25전쟁등 오욕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풍토에 알게 모르게 짖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가 남을 비하하는 데 앞장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 우리는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을 비롯하여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과 같이 위대한 사상을 창안하고 실천한 민족이다. 즉 인간을 하늘과 같이 섬기는 인본주의사상의 극치를 보여준 민족이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이다. 만인이 불성을 가진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 불교를 국교로 가졌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남녀가 평등함은 물론 인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지배했던 사회였음에 틀림없다. 아내와 자식을 하늘같이 섬기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유능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자존심이 강한 정치인은 결코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삼가 할 것이다. 구업을 짓는일은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과 국가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금해야 한다. 이점을 대선후보들이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는 세계 제1의 고아 수출국의 오명을 쓴 적이 있었고, 남아 출생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명예스럽지 못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해야만 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파괴되고 생명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비명에 간 것은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부패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버리고 생명을 경시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선후보토론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아직 없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에 바쁘고, 집권을 위한 국가권력구조에 너무 집착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에는 아직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자존심 회복하자

정의의 여신 유스티찌아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계급, 지역, 종교, 신분등에 의하여 편견을 갖지 말고, 사물을 공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다. 그러한 공평한 자리가 너와 내가 서로 존엄하게 대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곧 중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국민의 눈에는 여당과 야당이 하나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번 대선정국을 인본주의와 국민존중사상에서 풀어나가도록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열린마당

대선후보 '불교계 공약'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26일 등록한 각 후보들의 불교계 공약사항이 구체화되고 있다. 92년 대선당시 김영삼후보는 '불교방송 지방망 설립허가'를 비롯 총 7건의 불교계 공약을 걸었지만 현재까지 '불교종합병원 건립'과 '사찰에 대한 토초세 종토세면제' 문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불교계의 현실적인 발전에 상당한 작용을 한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어떤 내용의 공약으로 불심을 잡으려는지 이회창·김대중·이인제후보에게 질문해 보았다. 〈편집자 주〉

질문내용

1 대(對) 불교계 공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김영삼대통령이 92년 대선당시 불교계를 향해 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개 공약 가운데 사찰토지에 대한 토초세 종토세 면제와 불교종합병원 건립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의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총 0.62%에 불과합니다. 문화대국을 내세우는 우리로서는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귀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문화예산을 문화선진국답게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4 공공매체나 공인들이 자신의 종교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데 대해 국민 위화감 조성 또는 민족분열 감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귀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사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종교화합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이회창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귀사의 질문 4건에 대해 개별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편향적 종교정책을 배제하며,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건전한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타 종교정신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로서 적법한 근절책을 마련하여 건전종교를 보호할 것입니다.

둘째, 사찰 주변환경을 보호하여 불교정신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고결성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사찰 주변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사찰 주변환경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 4월 10일 개정된 전통사찰 보존법

사찰환경 훼손 개발행정 억제
세계적 불교성지 조성에 지원

이 더욱 보완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를 점차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점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재적 사찰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데, 문화재관람료에 덧붙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므로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 불편을 주어 왔으며, 궁극적으로 불교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문화재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역사의 증거물이므로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이 아닌 현장학습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유지 보수에 민간이 적극 참여토록 정부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교정신과 같은 무형문화 진흥정책도 수반하여 국민적 정신문화로 승화시킴은 물론, 21세기 문화시대에 세계시장에 내놓을 민족 전통문화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적인 불교성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정통불교로서의 한국불교 위상과 생명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우월성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성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우리 전통문화정신을 대중화시키고 세계화시켜 가겠습니다.

김대중 〈국민회의〉



1 대불교계 현안에 대한 3대부문 10대공약을 밝힙니다.

첫째, 특정종교 편향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군대내의 특정종교 편향 행위시 엄단하며 이를 공직자 윤리로 확대하여 사례 적발시 엄벌토록 하겠습니다. 불교계 여론수렴도 정기화 하겠습니다.

둘째, 대불교계 현안해결입니다.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법령정비 및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불교방송 지방국을 추가개국 허가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추진하며 폐지전까지 공원입장료의 사찰배분액을 증액하겠습니다.

셋째, 민족문화 전승차원에서 불교문화 보존·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존·보수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성보박물관 건립지원 포함)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사업지원, 한국불교를 대표할 불교성지 복원 지원(황룡사, 미륵사, 부여 정림사 등 폐사지 복원 포

종교편향 엄벌 공직자 윤리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

함), 불교문화자산 전산화 및 대국민 홍보 지원(역사·문화재 국민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 공약사항중 일부를 단편적으로 실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공정한 종교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인 차원의 공약보다도 종교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자유스럽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교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정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문화부를 독립하여 확대 개편하고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할 것입니다. 2000년까지 순수문화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1%로 확보하고 2002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5천억 이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3천억 규모의 문화산업지원 특별자금신설 등으로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4 집권자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그 종교를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은 특정종교를 비호 배척하지 않으면서 각 종교에 내포된 진리와 신앙의식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인들의 공식석상 종교행위는 특정종교를 비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제 〈국민신당〉



1 ▶농지법 개정: 현재의 농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농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활동과 문화재 보호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초토세가 부가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 불교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훼손 또는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찰환경: 국민신당이 집권한다면 사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및 환경관련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통일후의 북한문화재 보존대책 강구: 그동안 북한의 불교문화재는 많이 훼손되고 망실된 것으로 생각됩

사찰농지의 특수성 법적보호
문화예산 1%로 확대 편성

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북한문화재에 관한 특별관리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대책 강구

▶학교교육에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 강조: 초등학교부터 우리문화재에 대한 기본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보존성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 대통령의 개인적 종교신앙이 종교정책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종교성향이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에 진입하고, OECD에 가입하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다해도 문화적 발전없이 진정한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신당은 집권하면 문화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예산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인들의 개인적 종교성향이 종교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사찰의 문화재를 훼손하고 나아가 방화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빈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괄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11월 17일 ~ 12월 16일
■ 개강일시 : 1997년 12월 1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참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종단소식

조계종

교구본사 총무국장 회의

총무원(원장 월주)은 20일 전국교구본사 총무국장회의를 열고 12월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종간지도자 대회와 관련 참석 인원 및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관음사 본말사 주지연수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21~22일 이틀간 보현사에서 본괄사주지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종단교육 현황, 제주의 역사와 민속, 환경특강을 비롯 주제토론(제주 불교활성화 방안), 선체조, 포살법회 등이 진행됐다.

태고종

정기종회 새해예산 심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27~28일 이틀간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74회 정기종회를 갖는다. 이번 종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가 이뤄진다. 또 지난 7월 선암사 연찬회에서 결의된 종명환원 및 선암사 성역화, 선암사내 동방대 건립문제 등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안동유일사 대웅전 낙성

안동 유일사(주지 민덕)는 16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및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대웅전은 60평 규모로, 옛 대웅전이 보수하기 힘들 정도로 헐어 건립하게 됐다.

천태종

지자동상 기공식 참석

총무원(원장 운덕)은 중국 호북성 불교협회와 옥천사가 주최하는 '중국불교 천태종 문화연구 토론회' 및 '지자대사 입멸 1400주년 기념법회'에 도원스님(교육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19일 파견했다.

삼광사 광명유치원 상량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6일 금정구 장전동 광명사에서 부설 광명유치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내에 건립되는 광명유치원은 연건평 9백여평 규모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법당, 수영장, 시청각실, 컴퓨터실, 다도실 등을 갖추고 9학급 3백60명을 수용하게 된다.

금강불교대 성지순례

부산 금강불교대(학장 이재창)는 15~16일 이틀간 1학년 학생 1백30여명을 대상으로 화엄사, 내장사, 내소사, 채석장, 선운사, 향일암 등으로 추계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진각종

경주청년회 음성공양제

경주청년회(회장 전무찬)는 28일 오후 7시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진기50주년 기념 제1회 경주청년회 음성공양제'를 개최한다.

종단홍보 및 서원가 보급, 청년회원의 결속력 강화와 사회봉사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창, 합창, 일반합창,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다.

진각청년 모임의 밤

역대 진각청년모임(회장 강용수)은 15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청년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진각청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3대 회장에 현 강용수회장(서울 밀각심인당)을 재선출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법락회시간(레크리에이션)을 가졌다.

총화종

정기종회 성역화 논의

중앙종회(의장 화담)는 25일 총무원 청사에서 제40회 정기종회를 갖고 97년도 결산 및 9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원도 원주에 새 총무원사 건립 등 종단성역화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동종

용천사 총무원 현판식

총무원(원장 송정)은 25일 강서구 등촌2동 총무원사에서 종정 문파스님, 총무원장 송정스님 등 종단스님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평창동 총무원사에서 지난 7월 자리를 옮긴 현 총무원 사무실은 용천사(주지 운파스님) 종무소건물 1층에 마련돼 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대구신행단체聯 결성

대불회·구도회 등 10여개 단체 구성
연합대법회등 "지역포교 강화" 다짐

대구광역시신도회와 양립하는 대구신행단체연합회가 결성됐다.

대한불교대불회 대구구도회 대구경북음악인협회 개인택시정법회 등 대구지역 10여개 재가신행단체로 구성된 대구광역시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유상종)는 30일 대구 진각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동연합회는 10월26일 임시총회를 갖고 회장에 유상종씨(대불회)를 추대하고 부회장에 박운식씨(정법회 거사림회)와 장난주씨(자비회)를, 사무총장에 김주본씨(개인택시정법회)를 선임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동연합회는 △년1~2회 연합대법회 개최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문제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유상종회장은 "대구신도회와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문호를 개방해 참여의 폭을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운문비구니 승가대학원 현판식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전문강사 양성교육기관인 '운문비구니 승가대학원' 개원현판식이 20일 운문사(주지 명성)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명성스님은 개원사에서 "종단의 3대지표인 교육 포교 역경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다"며 "불교홍망의 여부는 교육의 향상저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안동 신세동 전탑 열차진동 탓 균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벽돌탑인 안동 신세동 7층전탑(국보16호)이 인근의 열차진동으로 훼손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7층전탑은 안동~서울간 중앙선 철길에서 3m정도 떨어져 하루 70여차례 이곳을 오가는 열차의 진동으로 10여 곳에 금이 가면서 기울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우재석의원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도 탑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열차진동으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가 사라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BS 횡령사고 관련 해직 박지현씨 부당해고 제소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18일 정식해고 통보를 받은 경리부 직원 박지현씨는 이날 전불련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불교방송 측으로부터 윤청광씨 작품료 2백50여만원과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유용'이라는 사유로 해고됐다. 2백50여만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씨는 이와 관련 김선도 김현안씨의 친필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진주대첩 위령제 '자비행사로'

北동포 돕기·어린이 심장병 기금 마련

대한불교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운스님)가 주최하고 서부경남 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진주대첩위령제 및 남북통일기원 유등제가 12월 6일 오전10시부터 진주공설운동장과 남강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진주대첩 위령제및 남북통일기원 유등제는 왜적의 침입을 막기위한 진주성 싸움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유·무명의 7만 민·관·군 그리고 승병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기아의 고통에 빠진 북한동포돕기 운동과 어린이 심장병 수술기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자비나눔의 행사로 열린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보광스님(해인사주지) 철옹스님(쌍계사주지) 원봉스님(약수암주지) 성진스님(청곡사주지) 보운스님(천진암주지)을 비롯 김혁규 경남도지사 백승두진주시장 등이 참가하는 아날행사는 초지역·종파적으로 2백14개사찰 5만여신도가 참석할예정이다.

장학금 2천만원 전달

금정장학회 2둘 맞아

금정장학회(이사장 벽파)는 20일 국제문화센터에서 설립 2주년을 맞아 제2회 장학금전달식과 무진장스님 초청법회를 가졌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범신스님외 9명의 대학·대학원생스님과 구성스님외 4명의 강원스님, 김민식군외 10명의 중학생에게 총 2천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전달식에 이은 초청법회에서 무진장스님은 "부처님의 참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불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파주 평화통일사 낙성 서부전선 군장병 포교

서부전선 최북단에 사찰이 건립됐다. 경기도 파주 평화통일사(주지 일선)는 14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평화통일사는 90년 5월 불사를 시작 대웅전 요사채 2동을 갖추고 8년만에 회향됐다.

주지 일선스님은 "군포교와 함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자원봉사단 창단 1백명 재난구호 활동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도영스님, 금산사주지)은 12월 9일 오후 2시 우리회관 강당에서 불교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대전권역내 단체자원봉사를 필요로하는 각종 공공봉사및 재난시 요보호자 구호, 간호활동등 단체봉사활동에 파견될 불교자원봉사단은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불자로 남녀자원봉사자 1백여명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단 동참문의는 (042) 488-6297

BBS '박성배 교수의 교리강좌'
귀 열리니 '마음 감동'

신행지침제시 등 문답식 진행 '인기'

불교방송이 3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박성배 교수의 교리강좌'(PD 박상필)가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들려주기만 하는 단순한 강의형태를 벗어나 윤원철 교수(서울대 종교학)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리강좌'는 청취자들의 궁금하는 질문을 진행자가 선별 질문하는 문답식으로 구성된 것이 두드러진 특징.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기도란 어떻게 해야하나 등 초심자들이 알아야할 불교교리와 재가신자들의 신행 지침을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석학으로 널리 이름난 박성배 교수(동국대 석좌교수)의 명쾌한 설명이 불교교리의 생활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박교수는 북동포돕기에 인색한 우리 불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등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가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곤 한다.

매일 아침 6시40분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교리강좌'는 그 인기에 걸맞게 오후 9시40분에 재방송도 마련되어 있다.

고 3인 아들이 시험공부 하느라 못들은 방송분을 들려주고 싶다며 녹음분을 요청해온 어머니, 국민은행 연수부가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임직원 연수를 위한 강연에 박성배 교수를 섭외하는 등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



◇BBS '…교리강좌'는 청취자들이 불교교리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종립대 10일부터 입시전형

동국대, 중앙승가대, 위덕대 등 종립대학이 98학년도 입학전형을 확정 발표하고 12월 10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지난해 보다 1백여명이 늘어난 5천1백66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는 각 학과정원이 30명이며, 전형일정은 '나'군이다.

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는 지난해 11개학과에서 국제관계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10개학과가 늘어난 21개학과에 특차 2백80명, 정시 6백92명 등 모두 9백72명을 선발한다. 학과별로 모집하며, 정시모집 전형일정은 '나'군이다.

동국대 **부산등 8개 지역서 응시**
승가대 **역경·포교등 120명 선발**
위덕대 **10개과 증설…특차 확대**

불교학부는 지난해보다 1명이 줄어든 69명을 모집하며, 대부분 계열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정시모집 전형일정은 서울캠퍼스가 '나'군(98.1.12-1.14)이며, 경주캠퍼스는 '라'군(98.1.21-1.23)이다. 특히 동국대는 내년 입시부터 서울캠퍼스 지원자 중 지방학생은 부산 대구 광주 등 동국대가 지정한 8개 지방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군승선발대학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등 2개학과를 신설, 모두 4개학과에 1백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2개학과 60명씩을 모집했으나, 내년입시부터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경북 경계선)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찬불가 부르며 자비실천

불자련 · 가릉빈가합창단등 복지단체 위문공연 '열심'

찬불가를 부르며 음성공양활동을 펼치던 합창단원들이 그 노래 속의 가사를 실천하고 있어 화제다. 최근 49재의식을 비롯 복지단체 위문공연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불교계 합창단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이같은 활동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이하 불자련) 합창단을 비롯 가릉빈가 합창단, 부산자비실천회 합창단, 대구영남불교대 합창단 등이 대표적이다.

12월 3일 오후 7시30분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창단식을 갖는 불자련 합창단(단장 황영희)은 음성공양과 이를 응용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전문 자원봉사합창단으로 출범한다.

불자련 합창단은 원왕생 염불봉사단과 함께 상가등을 방문하여 '무상게' '빛으로 돌아오소서'등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찬불 조가(弔歌)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합창단은 사회·복지단체 위문연주및 49재, 천도재 행사에도 참가하여 음성공양 자원봉사를 한다.

가릉빙가 합창단(단장 성지민)은 94년 창단이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소쩍새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자선바자회도 개최하여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달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 양로원과 노비구니스님 요양시설인 수양원을 방문하여 목욕봉사등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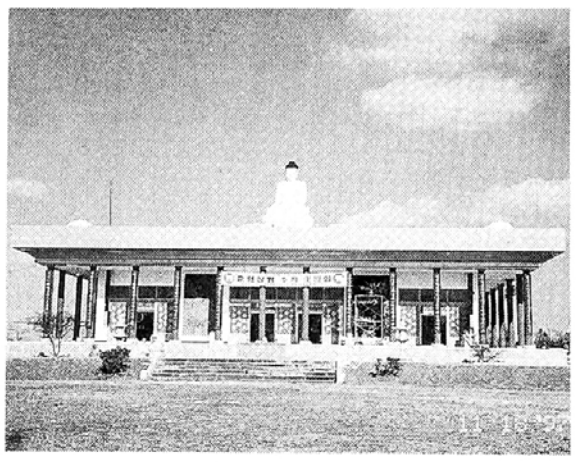
부산 자비실천회(회장 한영옥) 합창단은 94년 7월에 찬불가를 배우는 보살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매주 한번씩 부산 청송 대구교도소 정화양로원을 찾아 음성공양 자원봉사를 한다.

18일에도 회원 30여명이 TV 10여대를 들고 부산교도소를 찾았다. 3백여명의 재소자들은 합창단의 찬불가공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함께 따라부르기도 했다. 한영옥회장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사를 음미하며 그 뜻을 재소자들과 나누어 가질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94년 창단된 대구 영남불교대 합창단(단장 우학스님)도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음성공양을 하는 것은 물론 교도소팀과 병원봉사팀으로 나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교도소팀은 1달에 한번씩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고 찬불가교육도 함께하고 있다. 또 병원봉사팀은 매주 1회씩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각 병실을 돌며 쾌유기도를 하고 합창단의 찬불가 테잎을 틀어주며 환자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있다.

합창단이 자원봉사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과 관련 가릉빈가 합창단 최유영총무는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 더 나눠줄 수 있어서 좋다"며 "사회복지시설등을 찾아다니며 활동하다보니 자원봉사활동도 하자는 단원들의 의견이 일치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황산벌 연무사 중창불사 낙성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법사 경연수) 중창불사 낙성식이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포교원장 성타·포교부장 원혜·마곡사주지 철웅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4년만에 완공된 호국연무사는 건평 7백80평 규모로 훈련병 3천여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다.

점자연하장 보급

대구점자도서관 20종 제작

시각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향기나는 연하장이 점자불교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대구점자도서관(관장 배주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되고 있다. 이 연하장은 컨치로 구멍을 뚫는 기존의 점자카드와는 달리 특수 약품으로 요철을 만들어 뒷면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무늬와 색상을 넣었으며 솔향이 물씬 난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연말 이웃을 생각하는 시점에 첫선보인 이 연하장은 좋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연하장은 종 촛불 신랑각시 십장생 등 전통소재를 그린 전기영화백 작품을 토대로 20종류가 제작됐다. 테크노티에서 제작해 제4회 문구신제품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은 이 연하장은 제작비가 저렴하고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고있다.

배관장은 "수화의 경우에는 자막을 통해 일반인들도 그뜻을 알수 있었지만 점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면서 "점자묵자 공용 연하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한 장당 1천원. (053)258-8877

〈대구=이윤호 기자〉

범어사 택지초과 부담금 12억원 마련 못해 '진통'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택지초과부담금 소송에 패소한데 따른 부담금 12억원을 마련치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범어사는 8월28일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청룡동 80-3번지 5천여평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12억원을 이달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범어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게 된 것은 금정구청이 90년 시행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제의 땅은 전통사찰보존법상 사찰의 존엄 및 풍치를 위해 범어사와 부산시가 협의 설정한 경내지 밖에 위치해 명백한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범어사는 지난해 토지 일부를 매각 20여억원의 체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최근에도 금년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를 매각했으나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

조계종, 위덕대군승 선발 반대
진각종 독자추진 대책위 구성

진각종 위덕대학 군승사관 후보생 선발학교 지정문제에 대한 조계종 진각종 두 종단의 협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의 독자추진과 조계종의 반대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17일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총무원 각 부장과 교육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조계종의 최종 반대의견을 진각종에 전달키로 했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진각종 출신 군법사가 조계종의 의례·의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반대입장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각종은 조계종의 입장은 이미 예견됐던만큼 그동안 모색해온 독자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은 20일 위덕대에서 열린 창종50주년 기념세미나가 끝난 후 독자추진과 관련해 위덕대 교학처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대책위를 구성하고 종단협 정기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2월초까지 공청회를 열어 교계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국방부·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계기자 취재방해 수자원공사 사과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불교TV와 교계기자단의 팔당사무소 취재방해건과 관련 한국불교기자협회와 불교TV의 해명요구에 대해 "취재과정중 있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관련자에 대해 향후 친절의무를 다하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메라 파손은 진위를 밝혀 귀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했으면 한다"고 민원회신했다.

종단협 소비자위 공청회 유한킴벌리 불참 '무산'

'유한킴벌리와 삼우화학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18일 유한킴벌리의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 〈150호 23면 기사참조〉

한국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정사)는 30일까지 양측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1일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홍보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 뉴스

대구 공선협 시민캠페인

대구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는 20일 대구 건축사회관에서 '대선보도와 지방언론의 공정성'을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갖은 뒤 22일에는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소영진교수(대구대 자치행정학과)가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민영창 사무차장(대구경실련)이 '대통령선거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했다. 대구공선협은 광주경실련과 연대해 12월 첫째 둘째 일요일 상호방문 형식으로 영호남유권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북사암련 12월2일 송년법회

태고, 진각, 대한법화, 보문종 등 4개 종단 총무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회장 종본)는 12월2일 오후 3시 정릉빌딩 정릉뷔페에서 사암연합회 소속 1백85개 사찰 스님 및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7 송년법회 및 각 정당 불교정책 발표회를 개최한다.

28일 녹원스님 초청법회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28일 오후 5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생명나눔을 위한 녹원스님(직지사 회주) 초청대법회를 연다.

법회에서 녹원스님은 "내마음이 내 육신을 버림으로써 다른생명을 생명나눔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형태이다"라는 요지로 법문할 예정이다. 이어 생명나눔실천회 1년 활동보고및 결산과 총 8명의 신장기증자와 수혜자의 인사순으로 진행된다. 2부 축하공연에서는 강형진씨의 바이올린 독주, 도신스님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강원련 29일 정기총회

전국전통강원연합(이하 강원련) 제1차 정기총회가 29일 오후 2시 해인사 강원에서 열린다.

강원련은 △강원의 권익옹호 △강원간 학술 및 인적교류 △사찰 수행환경 수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0월25일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비대위원장 범우) 5차 대의원회의를 통해 전승련 산하단체로 결성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집행부 선출, 사업계획 구상, 정관심의 등을 의결하게 된다.

지역감정 발언 사과요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는 18일 한나라당 김윤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역감정' 발언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라져야 할 구시대 선거문화를 재현하는 정치행위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즉각 사과할 것을 천명했다.

황룡사지복원 반대 고고학회 "전시행정"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는 18일 황룡사지 및 미륵사지 복원계획은 유적의 원형보존을 제쳐두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비문화적 발상이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00위원회에 문화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도 표시했다.

이밖에 고고학회는 지방국립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 박물관 건립은 그 내실을 보장하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때 의미가 있으며 전문학예직원과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아생명 수호 결의
불교자원련 천도재

불교자원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17일 한강광나루 법당에서 신흥사 정토사 영은사 사천왕사 방생선원 관음의 집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태아기령 연합천도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태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천부적 생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인정하여 생명을 존중하며, 낙태를 명령하고 행하고 묵인하지 말것을 촉구한다"는 태아생명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목탁소리

위안부기념관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주)대동의 기증으로 정신대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에 총 1백4평 규모의 2개동으로 세워지고 있다. 당초 11월내로 완공돼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이 당장 내부의 전시물 제작비용과 운영비 2억여원의 부족으로 개관을 미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눔의 집이 기념관 건립에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3천여명을 찾는데 발벗고 나섰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보기힘든 위안부 문제는 96년에 UN이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음에도 일본정부는 망언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어용의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민간기금을 주겠다고 또다시 할머니들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눈·비가 와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앞에서 칠십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5년째 항의집회를 19일로 2백90회째 갖고 있는 할머니들의 요구는 돈몇푼 받는 물질적인 보상때문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정식사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그래야만 이미 돌아가신 강덕경할머니등 수만여명에 이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이 편안하게 잠들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기념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이것이다. 위안부 문제가 지닌 역사성을 잊지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언론이 지적한 '한 민족은 망각의 민족'이라는 치욕의 말을 듣지말자는 것이다. 위안부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우리세대 뿐아니라 다음세대에도 알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입술을 깨물자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불교계의 동체대비 실천의 상징이기도한 위안부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 '복지·역사불사' 불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손으로 기념관을 세워보자. 유럽의 '유대인 학살기념관'처럼 여법하게…. 동참은 개인 및 단체로 1구좌 10만원. (0347)768-0064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컨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피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킬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범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천수관음상', 미국의 프리어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탱화' '청동유물', 일본의 재일교포 수장가 김형익씨가 공개한 '동제각문경' 등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Q채널 특별기획 4부작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PD 박정우)가 24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주 월요일 밤 10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부 프랑스편-'파리에서 찾은 또 하나의 역사'(24일)에서는 기메박물

佛 소장 '천수관음상' 고국 시청자에 미소

Q채널 '잃어버린…' 방영

美탱화 日고불서도 소개

관 수장고에 보관된 대구 동광사에서 수집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천수관음상'과 '야미타삼존도'를 카메라에 담았다. 기메박물관 수장고가 한국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부 미국편-'뉴욕에서 거래된 국보'(12월1일)에서는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던 주치의 알렌 컬렉션과 경기도 경상도 일대에서 발굴했다는 청동유물을 공개한다.

3부 일본편-'사라진 동궁전'(12월8일)에서는 데라우찌 문고 수장고등을 한국TV 최초로 공개, 그곳에 보관된 조선 총독부 사진 기록 등국통감 퇴계선집 등과 석탑 등을 선보인다. 4부 '해외문화재 오늘의 의미'(15일)에서는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총망라해 문화재 되찾기 방법 등을 모색한다.

영상다큐

"불교문화는 민족의 고향"

'한국의 불교문화' 만든다

불교TV 기획제작팀 촬영착수

우리 사찰의 진면목을 소개하는 '한국의 명찰', 우리 시대 큰스님들의 생애와 법어를 들려주는 '뜰앞의 잣나무' 등 불교TV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제작팀이 본격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일대 변신을 꾀했다.

영상사업부에서 출발 PD 1명과 카메라맨 2명으로 운영돼온 기획제작팀은 최근 직책 개편을 통해 PD 7명으로 인력과 역할을 대대적으로 보완했다. 당초 사찰이나 종단 홍보물 제작을 맡아 왔으나 '한국의 명찰' '뜰앞의 잣나무' 등을 제작하던 제작1팀과 합쳐 종합 다큐멘터리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기획제작팀은 최세영 팀장을 중심으로 영상사업부에서부터 팀을 지켜온 이범관 PD, '한국의 명찰' 김양·노전규 PD, '뜰앞의 잣나무' 윤정현·강영호 PD, 뉴스팀의 김충현PD 등이 합세해 영상불교의 새장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기획제작팀은 요즘 '한국의 불교문화'(가제) 기획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98년 1월6일 마지막 방송이 나갈 '한국의 명찰' 후속편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획물로 총24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가운데 '석등'과 '범종' 편은 신년특집으로 꾸며져 98년 1월1일과 2일에 각각 안방으로 찾아간다. 특히 '범종'은 에밀레종을 추적해온 KBS에서도 분석작업이 끝나는 12월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으로 보여 신년에 우선 공개하기로 한 것. 불교와 관련된 불탑류 석불 불상 호법신중 불전건축 불화 불구 작법 전적 범종 불교상징물 등을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현대적 시각으로 분석, 불자들의 이해를 돕게될 이 프로그램은 98년 3월 경부터 99년 12월까지 2년여간 방영하며 비디오도 제작 출시할 계획이다.

불탑·불상·건축물등 총24편 새해 1월 범종·석등 방영

최세영 팀장은 "'한국의 불교문화'는 지난 3년간 '한국의 명찰'을 만들던 노하우와 자료를 십분 활용해 각각의 주제를 심층촬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분석적인 접근방법을 택해 불자들이 좀 더 쉽게 우리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제작팀은 '한국의 명찰' 후속으로 '한국의 불교문화'를 준비하고 있다.

감지연 기자

부처님의 미소 ②

주부신행담

3천배 마친 환희심에 이젠 매일 새벽기도 백만배 회향하면…

내 심 나 혼자만 해 내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응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부처님을 쳐다보니 빙그레 웃으신다. 그래 걱정 붙들어 매자.

어제보다 더 힘들다. 엉치도 아프고 다리는 로봇처럼 움직임이 둔하다. 삐그덕 쿵, 삐그덕 쿵. 땀방울이 바닥을 흥건히 적실 정도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더니, 내 몸에 물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오늘도 무사히' 작심삼일을 몸소 실천해온 지라 이렇게라도 다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부처님께 간절한 3배를 올린다.

"부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천배를 마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신다. 그 웃음에 안길 양으로 다시 오체를 던진다. 어제보다 더 힘들다. 시작부터 엉치가 당기고 다리는 숫제 따로 놀려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더니 영락없이 그 짝이다.

'삐그덕 쿵, 삐그덕 쿵' 얼굴 들어 부처님 마주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렇게 해서라도 부처님 곁으로 다가갈 수만 있다면 보고 보는 수밖에.

이틀째의 천배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첫번째 염주를 돌리고 나서 가장 먼저 떠 올리는 한 생각.

"정말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그림 · 이준석

3일째, 회향하는 날이다.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께 올릴 떡 한 시루와 과일을 준비했다.

"2천배 무사히 끝내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3배와 함께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 마지막 천배를 시작했다.

오늘은 몸, 마음이 모두 가볍다. 천배 정도는 날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환희심' 바로 이런 마음자리를 이르는 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일배 일배마다 사무치도록 다가온다. 기쁜 마음으로 3천배를 마치고 좌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출현하시는 3천 부처님의 은덕으로 큰 기쁨 얻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로운 불자로 거듭납니다. 부처님 제자다운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 법당을 청소하고 나오니 발걸음은 새털마냥 가볍다.

그렇게 시작된 점은 토요일마다 이어졌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나를 확인하는 순간 '그래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한 약속으로 스스로 심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고민은 며칠이고 이어졌다.

"한번 부닷쳐 보자. 부처님께서도 왕의 영화를 버리시지 않았던가."

이런 결심의 순간, 친구 한명이 내 뜻에 선뜻 동의하니 며칠의 고민이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우리는 하루에 5백배로 목표를 줄이는 대신 매일 독경을 더 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새벽 예불 시간에 법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 기쁨 반, 걱정 반. 천배에서 오백배로 줄이니 그리 부담스럽진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깜짝 놀라 일어나면 새벽 2시, 3시. 여름엔 그리도 전딜만 한데 코끝이 시린 겨울이면 그 또한 고통이었다. 평소 남보다 잠이 많은 나는 시계를 몸의 일부로 삼아 품에 안고 자는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잠과 싸우다 현관을 나설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부처님 곁으로 가는 기쁨을 확인하려는듯 회향의 날을 '백만배'로 잡아 놓았다.

새벽녘 절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 순간들은 언제나 난생 처음인 것 같다. 옛 여인의 눈썹같은 그믐달, 졸리운 듯 깜박이는 별빛, 상큼한 공기…, 이 모든 대자연의 응원 속에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기쁨이란. 이제껏 이 귀계저 귀계로 십 수년의 세월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았던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다.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⑯

♦ He who praises him who is to be blamed, or blames him who is to be praised, gathers up sin in his mouth, and through that he will not find any joy.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더하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 The trifling is the sin that consists in losing riches by dice: this is a greater sin that corrupts the mind against sugatas.

도박으로 재산을 잃은 죄는 오히려 사소한 불행이다. 그러나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은 죄는 아주 무겁다.

♦ He who speaks falsely goes to hell, or he who having done something says, "I have not done it both these after death become equal in another world they are both men guilty of a mean deed.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안했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같은 지옥에 떨어진다.

♦ Thou spreadest pollution to the misfortune of others, thou revilest the just, committing sin yourself and having done many evil deeds thou wilt go to the pool of hell for a long time.

남을 해칠 마음 없이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악이 돌아온다.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날리는 것처럼.

♦ For one's deeds are not lost, they will surely come back to you, their master will meet with them, the fool who commits sin will feel the pain in himself in the other world.

그 어떤 업(業)도 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와 그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내세에서 그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blame (v) 비난하다, 나무라다
*trifling (a) 하찮은, 시시한
*dice (n) 도박, 주사위 놀이
*sugata (pali)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 행복한 사람
*deed (n) 업(業), 행위
*the other world 내세

큰기술 PCS 016세상-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사용요금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제끗합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룩한 PCS 016-33%가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 회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끊김현상, 혼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돈 욕인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깨끗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0%)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부평, 가좌, 검암, 경서, 계양, 김포, 원당, 일산, 주안, 연희, 오류, 연희, 오류, 영종도, 운서, 검암, 서창, 송도, 청라, 대부도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태백, 간성, 도계, 묵호,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정암, 홍천, 횡성, 화천, 횡성
충청권	대전,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부여, 서산, 보령, 청양, 홍성, 천안, 아산, 온양, 당진, 서산, 태안, 서산, 대산, 예산, 천안, 입장, 광천, 성주, 오천, 보령, 서천, 장항, 한산, 비인, 홍원, 서천, 장항, 서천, 장항, 홍원, 비인, 한산
경상권	경주, 구미, 김해, 마산, 밀양, 부곡, 사천, 삼천포, 양산, 울산, 진주,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거창, 고성, 남해, 노포, 덕천, 동래, 명지, 부산, 사상, 서면, 수영, 양정, 연산, 영도, 온천, 용당, 울산, 장유, 장전, 진해, 창원, 하단